

〈 연구보고서 2009-1 〉

## 교과용도서 검정과 채택의 발전 방안 연구

－ 주요국의 교과용도서 제도 경향과  
교과용도서 수급자의 요구 분석을 토대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grams for Textbook Approval and Adoption

2009. 12.

연구 책임자: 유학영(전 교육부 인문과학편수관)

공동 연구자: 송규각(남한고등학교)

윤광원((주)미래엔컬처그룹)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 자문: 박삼서(영등포여자고등학교)  
정세훈(수원북중학교)
- 협력 연구원: 심승호(태원고등학교)

이 연구는 2009년도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것입니다.

## 머 리 말

교육 수요자 친화적인 교과용도서, 내용적으로나 외형적으로 고품질의 교과용도서를 발행하여 교육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은 국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제도의 근간인 검정 제도를 교육과정 정신에 맞추어 고찰한 다음, 검정 제도와 채택 방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선진국의 교과용도서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한편, 현장 교사와 발행 종사자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제도적인 측면과 운용에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검정 교과용도서 합격 적정 종수의 문제는, 현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검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앞둔 시점이므로, 거시적인 교과용도서 제도의 발전과 확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최신 자료의 획득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고, 각 나라의 교과용도서 정책은 사안마다 개별적인 특징과 서로 다른 관례들이 있어 뚜렷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교과용도서 수급 당사자의 의견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제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니드(need)를 수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과 협의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유관 기관 관계자분들과 현장 교사, 발행사 관계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9. 12.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전 찬 구

# 차 례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5
3. 연구 내용 및 방법 .....	6
4. 선행 연구 및 동향 .....	9
5.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	12
6. 연구 추진 일정 .....	13

## II. 주요국의 검정 교과용도서 제도의 경향

1. 미국 .....	15
가.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관 .....	15
나. 교과용도서 평가와 채택 제도 .....	18
2. 영국 .....	22
가.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관 .....	22
나.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 .....	26

3. 프랑스 .....	27
가.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관 .....	27
나. 교과용도서의 인정 절차 .....	31
다.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 .....	31
4. 독일 .....	34
가.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관 .....	34
나.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 .....	37
5. 일본 .....	38
가.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관 .....	38
나.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 .....	39
다.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 .....	41
6. 주요국의 검정 교과용도서 제도의 시사점 .....	43

### III. 검정 교과용도서에 대한 현장 수급자의 의견 조사

1. 검정 교과용도서 적정 종수와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조사(현장 교사) ·	49
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	49
나. 의견 분석 .....	51
2. 검정 교과용도서 적정 종수와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조사(발행 종사자) ·	72
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	72
나. 의견 분석 .....	74

3.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와 채택 제도에 대한 종합 의견과 논의 .....	86
가. 의견 조사 결과 종합 .....	86
나. 시사점 논의 .....	88

#### IV.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검정 및 채택 제도의 개관

1.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제도 .....	92
가. 우리나라에서의 교과용도서 .....	92
나. 교과용도서의 편찬 제도 .....	95
다. 교과용도서 제도의 변천 과정 .....	99
2.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 .....	105
가. 검정 심사 기본 원칙(검정 기준) .....	106
나. 검정 기구 .....	109
다. 검정 대상 및 검정 신청의 주체 .....	112
라. 검정 절차 및 검정 소요 기간, 검정 결과 .....	114
3.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 .....	118
가. 교과용도서 채택의 법적 근거와 방법 .....	118
나. 교과용도서 채택의 공정성 확보 장치 .....	119

## V.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검정 및 채택 제도의 개선 방향

1.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용도서의 적용 .....	122
가.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	122
나. 교과용도서의 주요 적용 .....	124
2.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방향 .....	126
가.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 추진 .....	127
나. 검인정도서의 확대 .....	127
다. 교과용도서 질 관리 강화 .....	128
3. 검정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방향 .....	130
가. 검정 방식의 개선 .....	130
나. 현행 검정 제도의 개선 .....	130
4.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의 개선 방향 .....	132
가. 교과용도서 채택의 공정성 확보 .....	133
나.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의 개선 .....	135

## V. 결론 및 제언

## 표 차례

<표 I-1> 검정 교과용도서의 과목당 합격 권 수 .....	2
<표 II-1> 세계 각국의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 .....	14
<표 II-2> 미국 출판사의 교과용도서 제작 단계 .....	19
<표 III-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현장 교사) .....	50
<표 III-2>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에 대한 생각 .....	52
<표 III-3>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에 대한 생각 .....	54
<표 III-4>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제한해야 하는 이유 .....	56
<표 III-5>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초등학교(복수 응답) ..	57
<표 III-6>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 - 중·고등학교(복수 응답) .....	58
<표 III-7>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우선순위-초등학교 (복수 응답) .....	59
<표 III-8>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우선 순위-중·고등학교 (복수 응답) .....	60
<표 III-9> 검정 교과용도서의 제한 종수 평균 .....	61
<표 III-10> 현행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향상 정도 .....	63
<표 III-11>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생각 .....	65
<표 III-12>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라는 이 유(복수 응답) .....	67
<표 III-13>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라 는 이유(복수 응답) .....	69

<표 III-14>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채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복수 응답) ...	71
<표 III-15>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발행 종사자) .....	73
<표 III-16>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에 대한 생각 .....	74
<표 III-17>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에 대한 생각 .....	75
<표 III-18>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제한해야 하는 이유 .....	76
<표 III-19>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초등학교(복수 응답)	77
<표 III-20>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중고등학교 (복수응답) .....	78
<표 III-21> 검정 교과용도서의 제한 종수 평균 .....	79
<표 III-22> 현행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향상 정도 .....	81
<표 III-23>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생각 .....	82
<표 III-24>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라는 이 유(복수 응답) .....	83
<표 III-25>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라 는 이유(복수 응답) .....	84
<표 III-26>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채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복수 응답) ...	85
<표 IV-1>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교과용도서 .....	94
<표 IV-2> 교과용도서 공통 심사 기준(컴퓨터 일반) .....	108
<표 IV-3>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진행 과정 .....	115

## 그림 차례

<그림 II-1> 주요국의 교과용도서 제도 .....	44
<그림 III-1>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에 대한 생각 .....	53
<그림 III-2>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에 대한 생각 .....	54
<그림 III-3>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제한해야 하는 이유 .....	57
<그림 III-4>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초등학교(복수 응답) ..	58
<그림 III-5>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 - 중·고등학교(복수 응답) .....	59
<그림 III-6> 검정 교과용도서의 제한 종수 평균 .....	62
<그림 III-7> 현행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향상 정도 .....	64
<그림 III-8>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생각 .....	66
<그림 III-9>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라는 이 유(복수 응답) .....	68
<그림 III-10>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 라는 이유(복수 응답) .....	70
<그림 III-11>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채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복수 응답) .....	72
<그림 III-12>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에 대한 생각 .....	74
<그림 III-13>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에 대한 생각 .....	75
<그림 III-14>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제한해야 하는 이유 .....	76
<그림 III-15>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초등학교(복수 응답) ·	77

<그림 III-16>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중·고등학교 (복수응답) .....	78
<그림 III-17> 검정 교과용도서의 제한 종수 평균 .....	80
<그림 III-18> 현행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향상 정도 .....	81
<그림 III-19>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생각 .....	82
<그림 III-20>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라는 이유(복수 응답) .....	83
<그림 III-21>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 라는 이유(복수 응답) .....	84
<그림 III-22>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채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복수 응답) ....	8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과용도서는 학교 교육에 있어 그간 중심 교재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교육 현장에서의 교과용도서의 위상은 점차 저하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용도서가 교육 현장에서 핵심적인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사회와 시대적 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 국정 교과용도서의 검정화와 검정 교과용도서의 다수를 인정화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정책은 교육과정의 변천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제도는 국정제와 검정제라는 큰 틀로 구성되어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개편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기<sup>1)</sup>부터 ‘국정 교과용도서의 축소와 검정 교과용도서의 확대’라는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제도는, 제7차 교육과정기<sup>2)</sup>에 들어와서는 교과용도서의 발행과 공급에

---

1) 제4차 교육과정(1981~1989): 민주 사회, 고도 산업 사회, 건전한 사회, 문화 사회, 통일 조국 건설에 필요한 건강한 사람을 길러내는 데에 교육과정의 목적을 두었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이며, 미래 지향적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이 반영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평가 지침에 관한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중학교에서는 보통 교육의 성격을 강조하였고, 자유 선택 과목을 신설하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단일화하였다.

2)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도 많은 변혁을 시도하였으며,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용도서 선택의 자율성과 교과용도서의 다양화를 위하여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학교 현장에 공급함으로써 단위 학교에 적합한 교과용도서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의 추구는 상대적으로 질 높은 교과용도서의 선택에 대한 어려움과 혼란이 따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보완 방안이 미비한 실정이다.

1977년에 처음 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1977. 8. 22. 대통령령 제 8660호)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2002년까지 18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2. 6.

(교육부, 1999.). 기본 방향에 따른 구성 방침은,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다.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3) 현장 학교에서 교과용도서를 선택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권 수는 실로 엄청나다. 올바른 다양성의 추구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많은 교과용도서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장 학교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용도서의 과목당 합격 권 수는 아래와 같다.

<표 I -1> 검정 교과용도서의 과목당 합격 권 수

과목	국어 1-1	생활국어 1-1	국어 1-2	생활국어 1-2	도덕	사회1	사회과 부도
합격 권 수	23	23	23	23	7	15	8
과목	과학1	수학익힘책 2	수학2	영어활동책 2	영어 2	기술가정	체육1
합격 권 수	16	17	17	19	19	9	9
과목	음악1	미술	한문1	정보1, 2, 3	환경	생활 일본어	생활 중국어
합격 권 수	15	9	15	8	4	8	13

(2008년 출원, 2009년 적용 검정 교과용도서 현황, 한국검정교과서협회, 2009.)

25. 대통령령 제17634호)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 발행 및 공급 체계를 경쟁 체제로 전환하여 교과용도서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내용이었다.<sup>4)</sup>

그러나 현행 교과용도서 발행 및 채택 제도는 개정 의도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발행의 문제이다.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발행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일차적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자칫 근본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교과용도서의 질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즉,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출판사들이 우선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교과용도서를 양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책의 문제이다. 발행사의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은 자칫 이상주의로 흐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과용도서를 발행할 수 있는 출판사와 교과용도서를 집필하고 추후에 관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판사는 시장 논리만을 내세우며 검정 규정만 지켜서 교과용도서를 일단 발행하고 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출판사의 규모에 비례한 전문 편집 인력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그 인원

---

#### 4) 제5장 발행

제28조(발행자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국정도서의 발행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9조(발행권 양도의 제한 등) ① 검정도서의 발행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발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검정도서의 원활한 발행·공급을 위하여 검정에 합격한 검정도서의 발행자로 하여금 서로 공동하여 검정도서를 인쇄·발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주문) 학교장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6월 전까지, 2학기에 사용될 교과용도서는 당해 학기 개시 4월 전까지 당해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

제31조(공급)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그 발행 계획서에 따라 제조하여 당해 도서를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주문자에게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발행자로 하여금 교과용도서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도 검정 교과용도서의 출원이 끝나고 나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리고 발행이 된 이후 검정 교과용도서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두고 운영하는 회사는 극히 드물다.

셋째, 교육 현장의 문제다. 아무리 다양하고 좋은 음식도 이를 섭취해서 소화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단위 학교는 규모면에서 각 지역별로 차이가 많다. 읍·면 단위의 소규모 학교는 전체 학급이 10개 내외인 학교가 대다수이다. 이런 규모의 학교 중에서 중등학교의 경우 과목별 교사 수는 1~2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목에 따라서는 20여 종이나 되는 교과용도서를 한정된 시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sup>5)</sup>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고 전 교과목을 다루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본 연구<sup>6)</sup>는 현재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및 채택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그리고 좋은 교과용도서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 학교급별 특성과 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발행 및 채택 방안 등 향후 교과용도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하였다.

특히, 검정 교과용도서의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검정 교과용도서의 발행 제도와 단위 학교의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에 있어 바람직한 과정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요국의 교과용도서 제도 경향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또, 교과용도서 공급자인 출판사와 사용자인 현장 교사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하여 교과용도서 수급 현장의 실태와 요구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검정 교과용도서 적정 책 수와 좋은 교과용도서의 채택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향후 교과용도서 정책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

5) 중학교의 경우 각주 3) 참고

6) 본 연구는 미래형 교육과정(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칭하고 있는 제7차 개정 교육과정 수정·보완 체제 속에서 교과용도서 제도가 국정, 검·인정, 자유 발행제 등의 틀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 2. 연구 문제

교과용도서 제도에 있어 국정 교과용도서를 축소하고 검정 교과용도서를 확대하는 조치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정 교과용도서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교과용도서 제도만을 검정화한다는 것만으로 양질의 교과용도서를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7)</sup>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교과용도서 검정 경향 분석과 채택 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검정 교과용도서 제도와 채택 제도의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나라의 검정 교과용도서 제도와 채택 제도의 장점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를 보완하여 우리나라만의 검정 교과용도서 제도와 채택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정책 전반에 걸쳐 많은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여긴다.

본 연구는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및 채택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주요국의 교과용도서 검정과 채택 방안은 어떠한가?

나. 교과용도서 수급자들의 생각과 요구는 무엇인가?

다.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정책은 어떠한가?

그리고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가. 검정 교과용도서의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가?

나. 교육 현장에서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다. 검정 교과용도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발행사의 전문화 방안은 무엇인가?

---

7) 진영, 「한국과 일본의 교과용도서 제도 비교 연구」, 서강대학교, 2005. 2p.

다른 출판 분야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교과용도서 정책은 언제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된다. 교과용도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원칙적으로 교과용도서 정책의 수립과 그 적용은 개선을 목표로 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정책 당국은 물론, 정책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당사자(학생, 학부모, 교사, 출판사 등) 간에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연구 문제를 다음에 제시된 다양한 연구 내용과 방법으로 얻어진 결과물을 통하여 교과용도서 정책 수립자와 각 이해 당사자들에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 가. 연구 내용

- (1) 주요국의 검정 교과용도서 제도의 경향(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 (가) 각 국가별 교과용도서 제도 개관
  - (나) 각 국가별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
  - (다) 각 국가별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
- (2) 검정 교과용도서에 대한 현장 수급자의 의견 조사
  - (가) 검정 교과용도서 적정 종수와 교과용도서 채택에 관한 조사(현장 교사)
  - (나) 검정 교과용도서 적정 종수와 교과용도서 채택에 관한 조사(발행 종사자)
  - (다)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와 채택 제도에 대한 종합 의견과 논의

(3)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검정 및 채택 제도와 개선 방향

- (가)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용도서 적용
- (나)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방향
- (다) 검정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방향
- (라)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의 개선 방향

## 나. 연구 방법

### (1)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와 개선 방안에 대한 선행 연구를 수집, 분석하고 재해석하였다. 특히, 지금까지 발표된 출판 관련 논문과 단행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검정교과서에서 발간하는 교과용도서 검정과 개발에 관련된 자료를 참고하였다. 또, 본 연구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교과용도서 제도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므로, 외국 관련 자료는 원서와 함께 국내에 출간된 번역본, 각 나라의 교육기관 누리집을 참고하였다.

문헌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와 채택 제도에 대한 관련 문헌 검토
-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와 채택 제도에 대한 정책 자료 및 연구 논문 분석
-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와 채택 제도에 대한 법규 및 제도 분석

### (2) 교과용도서 수급자 면담 및 설문 조사

본 연구는 문헌 연구 이외에도 교과용도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와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구하기 위해 면담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검정 기준, 검정 과정, 검정 결과, 지도서의 검정 문제 등과 관련된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와 학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와 채택 제도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교과용도서 발행사의 현직 편집 담당자들과 일선 현직 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8)</sup>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와 채택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설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을 분석, 연구하여 제시되는 교과용도서의 지향점은 과거 탁상공론(卓上空論) 식의 정책 제시와 문제점 해결 방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면담 및 설문 조사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 면담<sup>9)</sup>

- 교과용도서 정책 수립 기관의 담당자와의 대면 면담 또는 전화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 교육과정 수립 기관의 담당자와의 대면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기관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한 문제 도출 및 발전 방안 모색
- 교육 현장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한 문제 도출 및 발전 방안 모색
- 발행사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 설문 조사

- 일선 학교 교사와 발행사의 편집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8) 설문 조사지는 부록에 별도로 첨부

9) 김균홍(포항중앙여고, 2009. 8. 25.), 임영환(서울 유신고등학교, 2009. 9. 4.), 이인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7. 20.), 엄정미(성내중학교, 2009. 9. 3.), 이에리(부산동아고등학교, 2009. 8. 30.), 조영옥(남한고등학교, 2009. 7. 25.), 정규훈(덕소중학교, 2009. 8. 29.), 김진자(오금고등학교, 2009. 9. 8.), 황석진(돌마고등학교, 2009. 10. 2.), 황진연(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 2009. 6. 28.), 이재민(광주중앙고등학교, 2009. 6. 20.)

#### 4. 선행 연구 및 동향

최근의 교과서 관련 연구들은 대개 교과서 정책, 내용 구성 체계, 발행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연구 주제로 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 발행 및 교과서 검정·심의·채택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국제 비교, 교과서 개발 과정의 기술, 교과서 내용 체제 개선 방안, 외적 체제 개선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주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과서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도순 외(2001)<sup>10)</sup>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에서 여러 가지 교과서 제도를 지닌 나라들의 교과용도서 채택 및 심의 기준과 절차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심의 및 채택 기준과 절차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다른 나라의 교과용도서 심의 및 채택 기준과 절차를 밝히고 상호 비교를 하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까지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전까지의 경우, 포괄적인 외국의 교과서 제도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교과서 검정 기준과 관련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제도의 비교·연구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연구는 실제로 교과서 검정 기준과 관련된 각 국가의 교과용도서 제도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다른 나라(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와의 비교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제도를 개관하고, 검정 교과서가 실제로 심의되는 기준과 절차, 보조 자료의 채택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 우리나라의 검정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준거를 교과용도서 기본 제도, 교과용도서 저작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서, 심의 기준의 종류나 분류, 교과용도서 심사 업무의 관리 운영 기구,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의 주체, 검정의 대상이 되는 교육용 출판물의 종류,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과 명단의 공개 여부, 검정 심사의 주요 절차, 소요 기간, 검정의 의의, 재검정 제도 유무, 채택의 주제, 채

---

10) 박도순 외,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택 결정의 효력 범위, 교과용도서 구입 및 사용 제도 등 15가지로 추출하였다.

유학영 외(2003)는<sup>11)</sup> 「국정도서 발행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국정도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교과용도서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여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즉, 국정도서가 학습자의 손에 들려지기까지의 과정인 개발, 발행, 공급을 중심으로 국정도서의 범위와 국정도서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 학교급별 특성과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발행사 전문화 방안, 공익성과 학습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공급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정의 검정화는 국책과 통일 환경 등을 반영하며, 객관성 있는 교과목부터 추진해 갈 것을 제안하였다.

곽병선 외(2004)는<sup>12)</sup> 「교과용도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 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하여 자유 발행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한 담론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지식 정보화 사회 및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용도서 개발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교과용도서 자유발행제 도입의 요구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으며, 그에 따른 교과용도서 자유 발행제 도입 및 운영 지원 방안을 탐색하였다.

박소영 외(2004)는<sup>13)</sup> 「교과서 상시 개편 체제 수립 방안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개편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나라 교과용도서 개편 제도에서의 시사점에 근거하여 교과서 상시 개편 체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난심 외(2004)는<sup>14)</sup>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검정화 방안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와 중등학교 국어, 도덕, 국사 세 개 교과의 교과용도서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들 교과의 교과용도서를 검정화함으로써 예

---

11) 유학영 외, 「국정도서 발행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3.

12) 곽병선 외, 「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 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13) 박소영 외, 「교과서 상시 개편 체제 수립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14) 조난심 외,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검정화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따른 교육 및 사회적 문제점과 재정 부담, 구체적인 준비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유학영 외(2005)는<sup>15)</sup> 「교과용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교과용도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모니터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교과용도서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며, 발행사의 책무와 전문화를 제고하도록 제안하였다.

김재복 외(2006)는<sup>16)</sup>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정책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안하였다. 또,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 정책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체제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 개편 방안도 제시하였다.

홍후조 외(2006)는<sup>17)</sup> 「교과서 인정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인정도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간 우리 교과용도서 발행제가 국정과 검정을 축으로 하고 인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체제를 취해 왔는데, 당시 교과용도서 제도의 자율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자유 발행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에 대해 인정제에 먼저 주목해 보자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외국의 인정도서 제도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인정제의 법적 제도적 측면을 함께 검토했으며, 특히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의 인정제의 제도와 그 시행을 검토하였다.

홍후조 외(2008)는<sup>18)</sup>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교과서 가격 제도 중에서 검정 교과서의 책별 이익금 배분 방식에 대한 발행사들의 의견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즉, 검정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에서 그 초점을 출판사 이익금 균등 배분 문제에 두면서 검정 교과용도서 책별

---

15) 유학영 외, 「교과용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교과서연구재단, 2005.

16) 김재복 외,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6.

17) 홍후조 외, 「교과서 인정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6.

18) 홍후조 외,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8.

이익금 균등 배분이 교과서 질 개선을 위한 경쟁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발행사의 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도서의 책별 이익금 분배 방식이 '균등 배분'에서 점차 '차등 배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이념과도 부합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 그러한 차등 배분이 일부 대규모 발행사의 교과용도서 독점, 그로 인한 검정 교과용도서의 가격 상승,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중소 발행사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 5.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

### 가. 연구 결과의 기대 효과

- 주요국의 교과용도서 검정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검정 정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교과용도서 출판 및 사용자의 의견과 요구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교과용도서 검정의 적정 책 수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검정된 교과용도서 가운데 좋은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향후 교과용도서 검정, 자유 발행, 대여 등의 교과용도서 발전 정책에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 나. 활용 방안

첫째, 이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세계 주요국의 교과용도서 제도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시된 현행 교과용도서 제도와 채택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제도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제시된 현장 교사와 편집자들의 의견은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바탕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만의 교과용도서 제도를 만드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즉, 이 연구는 향후 좋은 교과용도서 검정과 채택 제도의 수립을 위한 준거 이론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 발전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6. 연구 추진 일정

연구 기간 : 2009. 6. 15. ~ 2009. 12. 15.							
연구 내용 \ 월	6	7	8	9	10	11	12
연구 기획, 세부 계획							
자료 수집, 문헌 연구, 설문 및 면담							
협의, 연구 설계, 설문 및 면담							
설문 및 면담 자료 분석, 초안 작성							
연구진 회의 및 보고서 집필 및 수정							
종합, 검토, 수정							
보고서 확정, 인쇄, 제출							

## II. 주요국의 검정 교과용도서 제도의 경향

교과용도서 제도는 어떤 발행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 발행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 네 가지 제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교과용도서 제도의 구분에 따라 외국의 교과용도서 제도를 발행제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세계 각국의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

구분	해당 국가	비고
국정제	핀란드, 필리핀, 북한	병행으로 표시된 국가는 ① 학교급별로 의무 교육 또는 초등학교는 국정제, 중·고등학교는 자유 발행 제식으로 다른 제도를 적용하거나, ② 한 학교급 내에서 과목별로 두 가지 이상의 태도를 동시에 적용하거나, ③ 자치 단체별로 다른 제도를 적용하는 나라이다.
검정제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인정제	미국,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캐나다	
자유 발행제	영국, 스웨덴, 덴마크	
검정·인정제 병행	스페인, 러시아	
국정·검정제 병행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국정·자유 발행제 병행	뉴질랜드, 스위스	
국정·인정제 병행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인정·자유 발행제 병행	프랑스	
국정·검정·인정제 병행	한국, 일본, 멕시코	

- 교육인적자원부(2000). 「교과용도서백서」 p.190 재구성

이 장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국을 중심으로 하여, 각 국가별로 교과용도서 제도를 개관한 뒤에 교과용도서 검정 및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의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미국

미국은 민간 출판사가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주(州) 교육부가 심의, 선정하여 교과용도서 목록을 발표하면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가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검정제 또는 인정제와 유사한 방식의 교과용도서 심의 및 채택 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주 교육청이 교육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중앙 집권적인 남부의 여러 주는 교과용도서 심의 및 채택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sup>19)</sup>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주가 채택하는 교과용도서는 다른 주의 교과용도서 채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가.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관<sup>20)</sup>

미국의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의 근간은 인정제이다. 미국에서 채택하는 교과용도서 인정제(textbook adoption system)는 민간 출판사가 제작,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주 교육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교과용도서로 인정한 다음, 목록을 정하여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교과용도서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정제 교과용도서의 발행자는 민간(출판사 또는 저작자)이다. 교과용도서는 저작 후 발행되어 해당 국가나 주, 교육구의 교과용도서로 ‘인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sup>21)</sup>

일반적으로 교과용도서의 저작 근거는 국가 또는 주의 교육과정이나 국가 또는 주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과용도서의 인정 기준이다. ‘저작 → 발행 →

---

19)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은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엄격한 교과용도서 심의 및 채택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소위 ‘캘리포니아-텍사스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교과용도서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Farr & Tulley, 1985; Lockwood, 1992; 이용숙외, 1995).

20) 박도순 외, 「교과용도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21) 우리나라에도 인정도서가 있기는 하나, 외국에서 시행되는 인정제와 달리, 국정도서나 검정도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정'의 절차로 교과용도서가 발행되며, 교과용도서로서의 승인자는 국가나 주 또는 학교의 교과용도서 인정 위원회이다. 교과용도서의 채택자는 학교 또는 교사이며, 교과용도서 채택의 근거는 인정을 거친 도서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교과용도서 제도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과 비슷한 결정 체제를 띠고 있다. 우리가 교육과정의 결정 체제를 국가 수준 중앙 집중, 지역 수준 중앙 집중, 지역 수준 지방 분권으로 구분할 때, 교육과정의 기준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standards, intended learning outcomes)을 해당 학회 중심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다수의 주에서는 주 수준 평가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점차 중앙집권적이면서 전국 공통적인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남서부(sun belt) 여러 주에서 시행되어 왔다.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 남서부의 여러 주에서는 학교에서 배울 과목과 내용, 성취 수준에 관한 규정을 학교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가지고 있다. 앨라배마, 애리조나, 알칸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등 20개 주가 주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중앙 집권적으로 결정해 왔다. 최근에는 학력의 상대적 저하와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의 상대적 저하를 우려하여 연방 정부에서는 각 주에서 가르칠 내용 기준, 가르치는 교수 기준, 가르친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있다.

미국의 인정제는 각 교과용도서 발행자가 먼저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주 단위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인정 목록을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주 단위 인정제(statewide adoption)와 주 단위에서 인정하지 않고 교육구나 개별 학교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지역 인정제(local adoption)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 인정제는 주 정부의 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이른바 자유 발행제와 유사하며, 이 제도를 실시하는 주를 개방 지역(open territory)이라 부른다. 주 단위 인정제를 채택하는 주는 22개 주, 지역 인정제를 행하는 주는 28개 주에 이르며, 20세기 초 이후에는 각 주별로 교과

용도서 발행 제도에 있어 큰 변화가 없었다.

교과용도서는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되며, 교육과정은 대체로 5~8년 주기로 개정되는데, 모든 교과목에 대해 일시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2개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교육과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남부의 여러 주와 서부의 몇몇 주에서는 주에서 교과용도서를 채택한다.<sup>22)</sup> 특히,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는 주의 크기, 인구의 크기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이들 주에서 어떤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느냐가 나머지 주들의 교과용도서 채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주 단위 인정제에서 사용되는 책은 주 단위 인정제를 실시하지 않는 주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교과용도서 시장의 20~30% 정도의 물량이 거래되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또는 노스캐롤라이나)는 미국 전체 교과용도서 시장의 판도를 결정한다. 주 단위 인정이 행해지지 않는 주에서도 대개 주 단위 인정을 택한 주에서 인정받은 책을 많이 사용한다.

교과용도서 심의 기준은 공통 사항과 교과목 사항으로 나뉘며, 전자는 주 교육법 준수 사항을 점검하는 기준이고, 후자는 교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 기준과 관계된다. 심사 과정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공통 사항 기준은 주 교육부 담당 직원들이 검토하여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 지시를 하게 된다. 일반 사항 기준은 교과용도서 검정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일반적으로 주 교육부 산하 교과용도서 검정 위원회에서는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교과용도서를,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9학년부터 12학년 사이의 교과용도서를 심사한다.

미국의 연방 정부는 교재 기금을 확보하여 주 정부에 배정하고, 각 주 교육과정 개발의 근간이 되는 연방 정부 교육 기본 방침을 시달하는 업무 이외에는 모든 교과용도서 업무를 주 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50개 주 정부는 인정제라는 틀을 가지면서도 각 주의 요구에 따라 교과용도서는 다른 양

---

22) 앨라배마, 애리조나, 알칸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 22개 주이다.

상으로 심의, 채택, 공급되고 있다.

#### 나. 교과용도서 평가와 채택 제도<sup>23)</sup>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교육과정은 주마다 다른 지방 분권식이며, 이러한 원칙 아래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는 인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인정제는 각 교과용도서 발행자(민간 출판사)들이 이미 제작, 발행한 도서에 대해 국가 기관이 교과용도서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제도이다.<sup>24)</sup>

교과용도서의 제작 및 발행은 민간 출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교과용도서는 교과별로 7~10년을 주기로 평가 및 채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용도서 내용은 출판사 자율로 수시로 개정한다. 출판사들은 가능한 한 많은 학교와 학생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주 단위 인정제를 채택하는 주들 가운데 인구가 많은 지역인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교육 표준(State Academic Standards)을 주요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sup>25)</sup>

---

23) 김현숙, 「미국의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와 그 문제점」, 『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pp. 69~72.

24) 현재 미국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주 단위로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주 인정제 방식(State-wide Textbook Adoption)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 학교구(Local district) 및 개별 학교에서 교과용도서를 평가하고 채택하는 지역 인정제(Local Adoption)이다.

25)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는 총 판매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 -2>

미국 출판사의 교과용도서 제작 단계<sup>26)</sup>

작업 단계	내용
① 제1단계(개념화 단계)	교육 관계의 연구 동향, 재정 투자 및 건적, 시장 조사, 편집 조사 및 재정에 대한 계획 단계
② 제2단계(교육 프로그램 계획 단계)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세운다.
③ 제3단계(교육 프로그램 개요 작성 단계)	교과용도서 편집자, 저자 및 협조자가 함께 단원을 개발, 작성한다.
④ 제4단계(편집 단계)	저자가 교과용도서 내용을 집필하고, 이것이 편집되면 현장 검토(field test) 후에 다시 편집한다. 이때, 디자이너에 의한 도판 등의 레이아웃이 정해진다.
⑤ 제5단계(제작 단계)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조판한다. 삽화, 지도, 도표 등의 원판이 제작된다. 사진도 준비되고 최종 편집이 완료된다.
⑥ 제6단계(인쇄 · 제책 단계)	인쇄·제책 기준에 따른다.
⑦ 제7단계(시장 조사와 판매 단계)	학교 교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또는 전시회에 출품, 전시한다.
⑧ 제8단계(출판 후 조사연구의 단계)	출판사는 교사가 새 교과용도서를 가지고 새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교수, 학습할 때, 전문적 협조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과용도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⑨ 제9단계(개정 등 단계)	시장 동향, 연구 성과 등에 따라 체제를 바꾸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가감한다.

26) 이춘식, 「미국 텍사스 주의 교과용도서 제도」, 『교과서연구』 제44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5. p.5.

※ 텍사스 주의 인정 제도 관련 누리집: [www.tea.state.tx.us/textbooks/adoptprocess/](http://www.tea.state.tx.us/textbooks/adoptprocess/)

미국 주 정부 교과용도서의 평가 및 채택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주 차원에서의 평가를 거쳐 각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주에서 결정한 교과용도서를 중심으로 각 지역 학교구 또는 학교들이 자체 평가나 현장 연구를 거쳐서 자신들이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 채택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출판사들이 교과용도서를 제출하는 것에서부터 주 교육국이 최종적으로 교과용도서를 채택하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채택을 위한 평가를 받기 위해 주에 제출된 교과용도서들은 주 교육국에 의해 임명된 수업자료 자문 패널(IMAP; Instructional Materials Advisory Panel)과 내용검토 패널(CRP; Content Review Panel)이 평가한다.<sup>27)</sup> 평가에 앞서 이들 구성원들은 약 1주일 정도의 연수를 통해 채택 과정, 평가 준거, 주 기준 등을 숙지하고 평가 방법에 대하여 공유한다.

교과용도서에 대한 평가는 5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내용 및 기준에 대한 적합성이다. 이는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 기준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둘째는 조직과 구조에 대한 평가로, 교과용도서 구성이 내용 기준에 따른 적절한 범위와 논리적 순서를 가지고 있는지, 한정된 수업 시수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최적의 학습 진도와 적절한 속도에 따라 정렬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셋째는 평가 영역으로, 교과용도서가 수업의 효과 및 학생의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들 및 그 결과의 활용에 대한 안내를 적절히 담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넷째는 보편적 접근성으로, 교과용도서 또는 교과 프로그램이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 및 학업 성취를 위한 기회를 허용하는가에 관한

---

27) 수업 자료 자문 패널은 주로 8학년 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일부 교육 행정가와 지역 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교과용도서의 실제 사용 가능성에 주요 관심을 두고 교과용도서를 평가한다. 반면에, 내용 검토 패널은 대학 교수나 해당 교과를 연구하는 전문가로 구성되며, 자료의 정확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것이다. 다섯째는 교수 계획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교사의 교수 계획과 실제 수업에 명확한 방향과 수단을 제공하는 지원 기능에 대한 평가 기준이며, 주로 교사용 지도서(teacher's edition)가 교사를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에 관해 평가한다.<sup>28)</sup>

수업 자료 자문 패널과 내용 검토 패널 구성원들은 1주 정도의 연수 이후 교과용도서를 할당받고 2개월에 걸쳐 교과용도서를 평가한 후, 각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패널별 전체 심의 과정을 거쳐 채택할 교과용도서를 추천한다.

교육과정 위원회는 교과용도서를 최종 채택하기 전에 일반 대중의 평가와 의견을 참고하기 위하여 출판사들이 제출한 교과용도서를 주 전역에 걸쳐 최소 30일 동안 전시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 교육국 차원의 공청회를 통하여 과목별로 4~10개 정도의 교과용도서를 채택한다. 지역 학교구들은 이들 교과용도서의 목록을 토대로 지역 학교구의 평가 과정을 거쳐 1~2개의 교과용도서를 지정하고, 개별 학교는 자신들이 사용하게 될 교과용도서를 선정한다.

주에서 채택을 승인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는 지역 학교구나 학교에 대해서는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과용도서가 무상으로 보급된다. 그 외의 교과용도서를 선택하는 학교는 자신들이 선택한 교재를 자체 재정으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 학교구 또는 학교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주에서 채택한 교과용도서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한다.

이와 달리, 주 정부 차원의 교과용도서 승인 절차 없이 각 지역 학교구 또는 개별 학교에서 교과용도서를 평가 채택하는 지역 인정제(Local Adoption)를 실시하는 주에서는 주 정부가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고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만, 각 학교에서 어떤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

28) 미국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위의 일반적인 공통 기준 외에 사회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① 문화적·인종적 다양성 ② 술, 마약 등 건강 관련 사항, ③ 화재, 동물 학대 등의 방지, ④ 미국 독립 선언 내용, ⑤ 인종, 성, 피부색, 직업, 신체장애 등에 대한 편견 금지, ⑥ 상업적 광고 금지 등의 6개 기준이며, 교과용도서가 민주주의적 가치, 문화적·인종적 다양성 등 미국 사회의 특징을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않는다. 이런 점에서 자유 발행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지역 학교구에서 교과용도서 채택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 정부의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해당 교육청 내의 학생들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교과용도서를 스스로 선정한다. 이 경우 그 수준과 방식이 매우 다양해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각 학교와 교사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진다.<sup>29)</sup>

## 2. 영국

### 가.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관<sup>30)</sup>

영국에서는 교과용도서의 발행과 채택이 자유롭다. 이는 교과용도서 집필에서부터 발행·채택·공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자유가 보장됨을 의미한다. 교과용도서 출판사는 교육과정 관련 지침 등 각종 자료의 검토 과정을 거쳐 편집 방침과 집필 요령을 확정한 후 저자를 선정하여 집필 작업에 착수한다. 출판사가 교과용도서 견본을 배포하면, 교사와 학교장이 협의, 결정하여 지방 교육청을 통해 출판사에 주문한다.

#### (1) 교육과정 행정

영국은 종래 각 학교장이 독자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전통적인 교육을 행하였으나, 1988년 신교육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교육 시스템이 크게 바뀌었다. 신교육법의 골자는 ①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설정, ② 지방 교육

---

29) 뉴욕 주의 경우, 학과 담당 교감이 교과 담당 교사와 상의하여 각 학과에서 교과용도서를 주문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30) 김재춘 외,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개발의 절차와 원리 구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5.

당국의 권한 축소, ③ 교육 각 분야에 경쟁과 효율 원리의 도입 등이다.<sup>31)</sup>

국가 교육과정은 1989년 9월부터 영국과 웨일즈에 5~16세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sup>32)</sup>

정부가 국가 교육과정을 도입한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음 세 가지이다.

- ① 균형 있는 교육(Breadth Balance)
- ② 전국적으로 일관된 교육(Consistent across the country)
- ③ 주요 단계 종료 시 평가 실시(Assessment at the end of each key stage)

③의 평가는 학교시험평가위원회(School Examination Assessment Council)라고 하는 정부 기관에 의해 평가지(Test)를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는 연령과 학년에 따라 학생들이 교과별로 어느 수준으로 학습해야 하는가가 정해져 있다.<sup>33)</sup>

주요 단계(key stage)는 1~4단계이며, 주요 단계 1은 5~7세, 2는 7~11세, 3은 11~14세, 4는 14~16세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4개 교과에 대한 통일된 평가를 행하는데, 가끔 물의가 일어나기도 한다.

중핵 교과 3과목과 '기술'을 합한 4과목은 정부에서 교수용으로 해설서를 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해설서에는 현장 교사가 경험한 경험 내용이나 출판사에서 축적해 놓은 성과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용 빈도가 낮다. 그래서 교사들은 해설서에 있는 지도법에 따르려 하지 않는다.

---

31)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독자적인 교육 방침을 가지고 있으나, 국가 교육과정 쪽으로 이행하고 있다.

32) 박영철,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영국 3」, 한국법제연구원, 2007.

33) 영국의 국가 교육과정에 설명되어 있는 중핵 교과(core)는 수학, 국어, 과학 등 3개 교과이고, 기초 교과는 역사, 지리, 기술, 음악, 미술, 체육, 외국어(중등 교육 단계 한정) 등 7개 교과가 설정되어 있다. 이 10개 교과가 필수 교과이다.

## (2) 교과용도서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편집·발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적 규제 사항이 없으며, 교과용도서는 국가 교육과정과 학교 사회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교육 방법 등을 준거하여 편찬, 발행되고 있다. 즉, 교과용도서 편찬은 자유 발행 제도로서 현장 교사가 수요(needs)를 조사하고 출판사에서 조사, 연구한 것을 추가한 다음, 국가 교육과정에 준해서 편찬 방침을 세우고 저자를 선정한다. 집필한 원고는 현장 교사가 검토(교열)하고 여러 차례의 심의와 개고를 거친 다음, 사진·삽화를 추가한다. 교과용도서의 채택은 각 학교에서 행하여진다.

영국의 교과용도서(Textbook)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의 교과용도서의 개념은 다소 애매하다. 즉, 학교에서 사용하는 책은 모두 교과용도서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개념에는 ‘교과 학습을 위해 쓰이는 도서’와 ‘학교에서 쓰기 위해 교사가 출판사의 안내 책자에서 선정한 도서’, 그리고 ‘도서관(실)·서점에서 선정된 학교용의 도서’가 포함되어 있어, 교실에서 사용하는 것 모두를 교과용도서라고 할 수 있다.<sup>34)</sup>

영국의 교과용도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중핵 교과용도서(Core book): 계통적, 요약적 학습용의 중핵 교재
- ② 주제 교과용도서(Topic book): 특정 주제에 관한 심화 학습을 위해서 만든 교재(주제별로 분책함.)
- ③ 학습 자료 교과용도서(Resource book): 풍부한 통계 자료를 담고 있는 자료서

여기에 식물도감, 통계연감, 백과사전과 같은 참고 도서(reference book, library book)도 주요 교재로 쓰이고 있으며, 위 세 가지 도서에 참고 도서를 포함시켜 ‘학교용 교과용도서(school book)’라고 한다.

수업에 직접 관련되는 일련의 학습에서 특정 부분만을 주제로 해서 편집한 주제 교과용도서(Topic book)는 교과용도서(Textbook)의 개념에 포함된다.

---

34) Education Act of 1996, [http://www.opsi.gov.uk/Acts/acts1996/ukpga\\_19960056\\_en\\_1](http://www.opsi.gov.uk/Acts/acts1996/ukpga_19960056_en_1)

실제로 주제 교과용도서는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과용도서라고 할 수 있는데, 교재와 관련하여 그 실태를 조사해 보면 주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제 교과용도서 이외에 사용되는 교재로는 학습 자료 교과용도서(Resource book)가 있는데, 이것도 영국에서는 교과용도서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주제 교과용도서의 학습은 기본 교과와 계통 학습 시간과는 별도로 특정한 주제(topic, theme)를 선정하여 주당 2~3회를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교수, 학습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주제 교과용도서가 지속적으로 제작된다.

영국의 경우, 교과용도서 집필에 관한 법령상의 심의 규정이나 교육 기관에 의한 규제가 없다.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이 도입된 이후로 교과용도서의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에 일치되도록 집필되고 있다. 출판사의 기획·편집진은 국가 교육과정 관련 지침 등 각종 자료의 검토 과정을 거쳐 편집 방침과 집필 지침을 확정한 뒤 저자를 선정하여 집필 작업에 착수한다.

집필한 원고는 현장 교사에 의해 검토되고 여러 차례의 심의를 거친 다음, 사진·삽화가 추가된다. 출판사는 상업성을 고려하여 저자에게 교과용도서 내용의 우수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집필하도록 항상 요구하고, 교과용도서 디자인에서 서체에 이르기까지 질 높은 교과용도서 편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용도서를 심의하는 제도는 없지만, 지방 교육청과 전문가 집단, 관련 교과 협의회 등에서 임명한 교사와 학교 도서관 사서들로 구성된 영국 교육의사소통 및 기술회(BECTA; British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Agency)라고 하는 협회에서 1,000개가 넘는 교육 자료들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교과용도서 출판사의 교과용도서 질 관리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과용도서 채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나.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sup>35)</sup>

영국에서의 교과용도서 채택은 원칙적으로 지방 교육 당국의 책무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학교의 해당 교사진과 학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다음, 지방 교육청을 통해 출판사에 주문한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학년별 담임 교사회를 통해 교과용도서 내용을 검토하게 되는데, 학교장이 비교적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등학교에서는 교과별 교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과용도서를 채택하게 되며, 특히 교과 주임의 의견이 존중된다.

교사가 교과용도서를 검토하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 출판사가 증정한 카탈로그와 교과용도서를 검토한다.
- 출판사 관계자의 방문이나 발표회를 통해 검토한다.
- 지역별 교과용도서 전시회나 워크숍에 참석하여 검토한다.
- 전문 잡지의 서평을 토대로 검토한다.
- 교과용도서의 실험 적용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한다.

교과용도서 출판사는 개별적으로 홍보 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출판사협의회(Educational Publishers Council)’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합동으로 교과용도서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발족된 지 30여 년이 되었으며, 교과용도서 출판사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전국적인 교과용도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시장을 개척하며, 서평을 쓰고 견본을 제공하는 활동들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교과용도서 홍보뿐만 아니라 교과용도서 채택권을 가진 교사를 계몽하고 교과용도서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공립학교의 교과용도서(의무 교육 이후에도 적용)는 지방 교육 당국의 경비 부담으로 구매되어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대여된다. 보

---

35) 김재춘 외,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개발의 절차와 원리 구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5.

통 2~4년 정도의 기간을 주기로 재사용하게 하고 있다. 반면에, 사립학교의 교과용도서는 유상이다.

### 3. 프랑스

#### 가.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관<sup>36)</sup>

##### (1) 교과용도서 제도

프랑스의 교과용도서 제도는 자유 발행제 및 자유 경쟁제로, 국가의 관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발행된 교과용도서의 공급은 공교육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며, 의무 교육 단계에서는 무상 대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과용도서의 저작 및 출판은 출판사가 모두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용도서의 개발과 집필 과정에서 전혀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즉,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근거하여 교과용도서의 저작, 편찬,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시한 학습 내용은 교과용도서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통례인데, 어떤 방식으로 교과용도서를 구성할 것인가는 각 출판사와 저자들의 집필 의도에 달려 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출판사는 새로운 교과용도서를 만들기 위해 저자들에게 집필 의뢰를 한다.<sup>37)</sup>

---

36) 김재춘 외,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개발의 절차와 원리 구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5.

37) 저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첫째, 대학에서 전공 영역을 공부했거나, 둘째, 그 영역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셋째, 이론 또는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필진들은 대개 대학 교수, 초·중등학교 교원, 교육부 장학관들로 구성된다.

출판사에서 저자를 선정하면, 편집자들은 저자들과 출판사에 모여 집필 회의를 한다. 집필 회의에서 저자들은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 내용을 검토한 다음, 교과용도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의논한다. 예를 들면,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순서대로 학년별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여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전체를 첫 학년에서 가볍게 다루고 다음 학년에서 점차 심화시켜 다룰 것인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교과용도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출판사 측에서는 교사들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회 및 간담회를 통해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출판된 책은 국립 교육자료센터(CNDP; Centre National de Documentation Pédagogique)와 지역 교육자료센터(CRDP), 그리고 각 학교 담당 교사에게 1부씩 보내지는데, 교사들에게 배부되는 교과용도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프랑스의 교과용도서 정책은 자유 발행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최소한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각 출판사와 저자들이 나름대로의 개성 있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교과용도서를 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sup>38)</sup>

그러나 프랑스의 교과용도서는 수많은 교수·학습 자료 중 하나의 자료집일 뿐이다. 반드시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달달 외워서 학습해야 할 하나의 ‘성전’처럼 인식되어 왔던 우리나라에서의 교과용도서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교과용도서를 각종 다양한 학습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 문서들과 연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현장 학습과 실험이 병행된다.<sup>39)</sup>

프랑스의 교과용도서는 예술적인 심미안을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많은 화보와 사진, 얇고 가벼운 종이의 질, 활자와 색상의 선명도가 높은 인쇄의 질, 미

38) 정호범, 고영호, 「외국 초등 사회과 교과서 구성 체제 분석 - 미국·일본·프랑스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1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4. 03.

39) 교사는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주제(교과 내용)를 다양한 교과용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 그 외의 매체를 자율적으로 선정, 활용하여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프랑스의 교과용도서 정책이자 프랑스 교육의 기본 철학이라 할 수 있다.

려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아름답고 흥미로우며 눈이 피로하지 않은 외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교과용도서의 내용 제시 방식도 설명식보다는 탐구식이며, 다양한 질문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질문의 기능을 볼 때 학습 내용 제시, 학습 내용에 대한 확인이나 강조, 발상의 전환 및 사고의 확장, 후속 논의를 위한 맥락 설정, 주의 유도에 도움을 주는 질문들이 주가 된다. ‘~해 보자, ~합시다, ~말하라’ 등과 같은 청유형 또는 명령형 질문은 별로 없으며, 각 단원에 제시된 사진과 도표, 그림들을 잘 보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등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2) 교과용도서의 활용

프랑스 학교에서의 교과용도서는 수많은 다양한 학습 자료 중의 하나이다. 학습을 위해 교과용도서 이외의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sup>40)</sup>

교사들이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들은 국립 교육자료센터에 의해 개발, 배포되고 있다. 여기에서 교사들은 자료 및 교육과정 해설서 등을 구하거나, 교사 자신이 신문, 잡지, 서적 등에서 관련 기사나 사진, 정보 등을 수집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같은 학년이라도 같은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고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데, 교육위원회(Conseil d'Enseignement)에서 교과용도서 선정할 때 같은 과목 교사들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학교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하지만,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을 때에는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예·체능 교과용도서는 출판사에서 별도로 개발하지 않으며, 학교에서는 국립 교육자료센터에서 보급하는 자료나 교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

40) 예를 들면, 프랑스어 읽기 시간에는 읽기 교과용도서 이외에 관련 소설책이나 시집 등과 같은 관련 자료를 읽는다. 사회와 과학 시간에는 교과용도서 이외의 보조 자료와 교구들, 즉 지도, 실험용 기기, 사진, 비디오가 많이 활용된다.

가르친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체육 교과용도서가 별도로 없고, 음악, 미술 교육을 위해서 음악사나 미술사 교재가 개발되어 있다.

프랑스의 교육은 채택된 교과용도서에 제시된 단원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교과용도서 안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다. 교과용도서 첫 페이지에서 끝 페이지까지 교과용도서의 내용 모두를 순서대로 가르치는 우리나라의 수업과는 대조적이다. 필요에 따라 다른 교과나 주제와 연계하여 뒷부분의 내용을 먼저 배울 수도 있고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 순서를 바꾸어 가르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교과용도서가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재 및 교구의 개발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각 학급의 문고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자료 정보 센터가 설치되고 전문 사서 교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료 정보 센터는 책을 단순히 열람하는 과거의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과 다르다. 사서 교사의 도움으로 각종 첨단 매체와 인터넷, 학술 자료 등을 이용하여 각 학생은 자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주도적으로 검색하여 수업 시간의 발표에 활용하거나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돕도록 조직되어 있다. 학생들은 중학교의 시민 교육 교과 시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점차 자신의 교육을 주도적으로 형성해갈 수 있도록 자료 정보 센터 이용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프랑스의 교과용도서관은 교과용도서를 절대적 성전처럼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과용도서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교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한 교과의 학습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며,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교육을 주도적으로 형성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 나. 교과용도서의 인정 절차<sup>41)</sup>

프랑스의 교과용도서 제도는 자유 발행제 및 자유 경쟁제로서 국가적 차원의 교과용도서 심의 제도 또는 검정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편찬하라는 개괄적인 교과용도서 편찬 방향만을 공표할 뿐, 교과용도서의 집필, 채택, 공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별도의 교과용도서 심의 제도가 없기는 하지만, 교과용도서 시장 경쟁의 원리에 따라 부실한 교과용도서는 생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과용도서의 저작, 편찬, 발행은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근거하여 출판사별 자유 발행제 형태로 이루어진다. 단지, 초등 교육과정에 존재하는 교과용도서의 인정 절차를 살펴보면, 출판사에서 발행된 도서에 대한 학구(academic)별 교과용도서 선정 위원회에서의 심의 ⇒ 학구 총장 인정·승인 절차 ⇒ 교과용도서 목록 작성 ⇒ 각 학교의 담임교사 채택·사용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역시 교실 수업에서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 내용, 학습 지도 등의 지침에 의거하여 다양한 교재를 바탕으로 지도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제도와는 완전히 상이한 것이다.

#### 다.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sup>42)</sup>

교과용도서의 채택 방식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경우가 다르다. 초등학교의 경우, 매년 각 출판사의 교과용도서 안내 책자와 각 지방 학구 교과용도서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한 교과용도서 선정 리스트를 참고하여 담임교사들이 선정한다. 한 학년에 여러 학급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학년 교사들이 협의하여 대부분 공통의 교과용도서를 선정하지만, 간혹 한 학급만 다른 교과용도서를

41) 김재춘 외,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개발의 절차와 원리 구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5.

42) 박도순 외, 「교과용도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채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를 새로 사거나 이미 쓰고 있는 교과용도서를 다른 교과용도서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과용도서를 새로 채택하거나 쓰던 교과용도서를 다른 교과용도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재정을 지원하는 초등학교가 소속된 자치구(commune)에서 매년 지급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하다. 그리고 한번 선정된 목록은 적어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3년, 중학교의 경우에는 4년 정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도서를 개발하는 출판사에서 매년 5월경에 교과용도서 소개 책자를 각 학교의 자료 정보 센터(CDI; Centres de Documentation et d'Information)로 보낸다. 자료 정보 센터의 사서 교사는 교무실에 소개 책자를 비치해 교사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한다. 각 중·고등학교에서는 5월 중에 교과별로 교육 위원회 회의(Conseil d'Enseignement)를 가지는데, 교과마다 교과용도서의 선정을 위한 심의가 행하여진다. 이 회의에서는 각 교과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장 및 사서 교사가 모두 모여 다음 학기에 가르칠 교과용도서를 선정한다.

중학교의 재정 및 교과용도서 예산은 도(departements) 소관이며, 고등학교 재정 및 교과용도서 예산(의무 교육인 고등학교 첫 학년까지만 교과용도서 무상 대여제)은 지역(regions) 소관으로 되어 있다. 지역(regions)은 또한 국가와 함께 대학 재정을 담당한다.

따라서 초·중등학교 모두 교과용도서의 채택권은 교사에게 주어진다. 교사는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선정·채택·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학생들은 프랑스 어, 수학 등 몇 과목의 교과용도서만 가지고 있으며, 모든 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sup>43)</sup>

---

43) 교사들이 수업에 필요한 교과용도서의 일부분을 복사하거나 직접 수업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수업 자료의 선택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져

프랑스 초·중등학교에서의 교과용도서 채택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입할 교과용도서가 결정되면 그 목록이 자료 정보 센터 사서 교사에게 전달된다. 중학교의 경우, 사서 교사는 새로 살 교과용도서의 종류와 명칭 그리고 학생 수를 학교 경리부로 전달하여 경리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학생들에게 무상 대여한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와 달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교과용도서 목록을 전달하면, 학부모는 이 목록을 보고 자녀들에게 교과용도서를 구입하여 준다.

교과용도서의 공급 방식은 의무 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첫 학년까지는 무상 대여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과용도서가 선정되면, 각 학교에서 필요 부수를 구입하여 학교에 비치하고 학생에게 무상 대여한다.

대여제에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교과용도서 취급 규정은 엄격한데, 낙서하는 것, 접는 것, 줄 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있다.<sup>44)</sup> 학교에서는 한 해 동안 사용한 교과용도서의 파손 여부를 가려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소독한 뒤, 다음 학년에게 다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학생들에게 물건을 아끼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의무 교육 기간이 지난 고등학교의 마지막 2년은 교과용도서를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서점에서 구입(교과용도서는 5% 할인됨.)하거나 학년도가 끝나는 6월말에 학부모회 주최의 중고 교과용도서 사고팔기 행사장에서 중고 교과용도서를 구입하기도 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교육 자료를 만들거나 취사선택하여 수업한다.  
44) 학생들은 교과용도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쓰고 난 뒤, 다음 학년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학년이 마친 다음 교과용도서를 반납할 때에는 엄격히 확인하여 파손이나 훼손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며, 벌금을 징수한다.

## 4. 독일

### 가.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관

독일은 16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로, 초등교육은 각 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주끼리 서로 협정을 맺고 있으나, 이 틀을 바탕으로 각 주가 고유의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초등교육은 4년제(6~10세)의 기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5학년 이후에는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주요 학교(Hauptschule), 실과 학교(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의 3가지 종류의 중등학교 나뉜다.<sup>45)</sup> 의무 교육은 대부분의 주에서 9년간 실시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10년간 실시된다.

연방 헌법의 규정에 의해, 교육에 대한 연방의 권한은 주로 고등교육에 한정되며, 초·중등교육의 운영은 각 주에 권한이 있다. 각 주의 교육성은 (취학 의무, 학교의 설치 및 유지, 교원의 양육 등에 대한) 법령의 작성, 학습 지도 요령의 작성, 교과용도서의 검정 등을 하고 있다.

각 주는 행정상 몇몇의 군으로 나뉘나, 군은 주로 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방법 감독, 군이나 시·읍·면의 교육 행정 감독 등을 하고 있다. 학교의 설치와 유지, 관리는 군과 시·읍·면이 책임진다. 공립학교의 교원은 보통 주의 공무원이며, 이들에 대한 급여는 주에서 부담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권은 각 주의 교육부가 행한다.

각 주의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의 교과 종류, 주간 수업 시수 등을 결정하고 있다. 기초 학교의 필수 과목은 대체로 독일어, 사실 교육(사회, 역사, 지리, 과

---

45) 하우프트슐레는 5년제(제5~9학년)로, 졸업 후 취직하여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실과 학교는 6년제(제5~10학년)로, 졸업 후 상급 전문 학교 등 전일제인 취업 학교로 진학하는 사람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나지움은 후기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9년제(제5~13학년) 학교로, 주로 대학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문부성, 「외국의 학교 교육 - 유럽과 미국편」, 1995. 11.

학 등을 포함한 종합 교과), 수학, 종교, 음악, 미술, 체육 등이다.<sup>46)</sup>

독일 헌법 및 각 주의 법에 따르는 학교 법규에 의하면, 국가가 학교 제도에 관여하는 지침을 내리고 조종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법 조항에 따라, 교육부는 이미 1972년 6월 29일에 모든 학교는 주 교육부가 승인한 교과용도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결의하였다.

독일에서는 민간 출판사의 교재가 교과용도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검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각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sup>47)</sup> 교과용도서의 저작, 편집, 발행은 민간 출판사가 맡고 있다. 출판사는 각 주별로 마련된 교육과정 지침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집필하고 주 교육부에 직접 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sup>48)</sup>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는 각 주에서 설정한 준거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검정 심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검정에 합격할 수 있는 종수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교과용도서의 수가 매우 많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교과용도서로 승인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심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sup>49)</sup>

첫째, 교과용도서는 현행법에 모순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

둘째, 각 교과목이 지향하는 내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셋째, 교과용도서는 해당 학교의 특성과 학년에 적합한 교육학적인 인식, 특

---

46) 외국의 교과서 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 「외국의 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상황」, 교과서연구센터, 2000. 3.

47) 해당 주 교육부는 일반 교육용 교과용도서와 전문 직업 교육용 교과용도서를 구분하여 선택한다. 그 다음으로, 각 학년, 과목, 교과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교재를 정하고 그 사용 기간을 결정한다.

48) 교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출판업자가 교육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교재를 신청할 때에는 어느 학교, 어느 학년, 어느 과목을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 과정에 드는 비용을 위하여 출판사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박도순 외,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49) 종교 수업용 교과용도서는 예외적으로 교육부의 심의 기준 이외에도 교회나 신앙 공동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의 기준에서 내용과 목적상 다른 기준이 추가된다.

히 방법적 원칙과 교수 원칙, 교재의 선택, 배치, 제시와 범위에 적합해야 한다.

넷째, 경제적인 면에서 교육부 재정 운영의 지침에 맞아야 하고, 그에 따른 적당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인 것이며, 각 주마다 고유의 특성을 가진 심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교과용도서의 검정 심사는 주 교육부 장관의 위촉을 받은 심사 위원이 한다. 주에 따라서는 심사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를 설치하는 곳도 있으며, 심사 위원의 명단은 공표하지 않는다. 보통 각각의 교과용도서에 대해 2~3명의 심사 위원이 심사하며, 심사 기간은 보통 3~6개월이다.

합격 여부의 결정은 심사 위원의 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다. 심사에 합격한 교과용도서는 주 교육부가 작성하는 교과용도서 목록에 게재하며,<sup>50)</sup> 동시에 민간 출판사에 합격 통지를 하게 된다. 이때,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합격 이후에도 그 교과용도서가 각 교과 내용·방법의 연구 성과에 점차 맞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된다.

독일의 교과용도서 승인에 대한 규정은 각 주마다 그 심의 기준과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sup>51)</sup>

---

50) 예를 들면, 튀링겐(Thuringen) 주의 2001/2002 학년도 교재 목록에는 총 2,187개의 교과서가 공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3월부터 2001년 2월 사이에 200개의 교과용도서가 심의되었고, 그 중에 184개의 교과용도서가 승인되었다. 이 심의 평가를 위해 300명의 튀링겐 주 전문 교사들이 심의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박도순 외,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51) 예를 들면, 헤센 주의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내용이 관용, 공정, 인간의 존엄성 존중 등의 규범에 합치할 것, 둘째, 과학 발전에 대응할 것, 셋째, 주의 학습 지도 요령에 제시된 여러 원칙을 일탈하지 말 것, 넷째, 내용과 분량이 각 학년에 적절한지를 고려할 것, 다섯째, 어떤 종류의 학교, 또는 어느 학년에서 사용될 교과용도서인지 명확히 할 것, 여섯째, 문장이나 그림의 배치, 표지, 인쇄, 판형 등이 적절할 것, 일곱째, 가격이 적절할 것 등이다. - 외국의 교과서 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 「외국의 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상황」, 교과서연구센터, 2000. 3.

## 나.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

각 학교에서는 주 교육부에서 매년 출판한 교과용도서 목록을 토대로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선택하는 권한을 가진다.

승인받은 교과용도서 중에서 해당 과목의 수업 교재를 선택하는 것은 먼저 그 학교의 교사들로 이루어진 해당 과목 전담 교사 회의의 임무이고, 전담 교사 회의는 선택한 교재 목록을 교사 전체 회의에 전달한다. 수렴된 목록에서 전체 회의는 학교에 배정된 교육 재정을 고려하여 각 과목의 교과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수량을 정한다. 이때, 학부모와 학생 대표에게도 참석의 권한이 주어진다.<sup>52)</sup>

채택된 교과용도서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목록에 삽입되어 있는 주문 서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승인된 교과용도서와 학습 자료는 학교가 직접 출판사에 주문 서류를 보내어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학교는 주문 서류의 사본을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8월 1일까지, 직업 학교의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주 교육부에 보내야만 한다.

교재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책을 교과용도서로 선택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각 학교가 교육부에 사유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보내서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학교는 이 신청서를 통해 승인되지 않은 교과용도서를 해당 과목에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책의 제목, 출판사, 주문 번호, 부수, 가격, 학교 형태와 학년을 명시해야 한다.<sup>53)</sup>

교과용도서의 채택에 의한 공급은 모든 주에서 무상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대다수의 주에서는 무상 대여를 하고, 일부의 주(예를 들면 베를린)에서는 무상 공급을 하고 있다. 교과용도서의 무상 조치는 공립의 의무 교육 학교뿐만 아니라, 공·사립의 초·중등학교 모두 적용하고 있다.<sup>54)</sup>

52) 헤센 주의 교과서 채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교과용도서 목록 제시, ② 교과용도서 구입 예산 배정, ③ 수업 자료 비용의 견적과 운용, ④ 교과용도서 채택 - 문용린 외, 「한국검정교과서협회 발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검정교과서협회, 2005.

53) 박도순 외,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54) 일부 주(니더작센 등)에서는 교과용도서 무상 조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 한해서 실

무상 조치를 위한 경비는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① 학교 설치자(군 또는 시·읍·면)가 부담하는 경우(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등), ② 주가 부담하는 경우(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주 등), ③ 학교 설치자와 주가 부담하는 경우(바이에른 주 등)로 나뉜다.

## 5. 일본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나라이다. 최근의 역사 교과용도서 검정 문제와 관련한 양국 간의 대립을 통해 일본의 교과용도서 심의·채택 제도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외관상 일본의 교과용도서 심의·채택 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은 유사성을 띠고 있으며, 엄격하고 세분화된 절차적 검정을 대표하고 있으나, 1994년 학교 교육법의 개정과 함께 검정 절차를 간략히 하고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교과용도서 심의·채택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밝히고, 우리나라 교과용도서의 심의·채택 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 가.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관<sup>55)</sup>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학제 개혁 이전의 일본의 교과용도서 제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용 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신고 제도나 검정 제도를 실시하고, 중등학교용 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검정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1947년에 제정된 ‘학교 교육법’에 의하여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가 확립되었고,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sup>56)</sup>

---

시하고 있다. - 교과서연구센터, 「1990년도 해외 교과서 사정 조사 보고서 - 영국, 독일, 프랑스」, 1991. 3.

55) 박도순 외, 「교과용도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교과용도서 사용 의무에 관해서는 학교 교육법 제21조에 “소학교에는 문부과학대신의 검정을 거친 교과용도서 또는 문부과학성이 저작 명의를 가진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 학교 등에도 준용된다.”라는 조항이 있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교과용도서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교과용도서에는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문부과학성 검정 교과용도서)와 문부과학성이 저작의 명의를 가진 교과용도서(문부과학성 저작 교과용도서)의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중등교육 학교의 후기 과정 및 특수교육의 여러 학교는 적절한 교과용도서가 없을 경우 기타 도서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 나.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sup>57)</sup>

일본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에 대한 논의는 1872년 근대 학제의 수용과 함께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자유 발행론이 우세하였지만, 1880년대 근대적 교육 체제가 정비되면서 검정 제도가 도입되었다. 소학교용 교과용도서의 경우 메이지 37년(1904년)부터 국정 제도가 채택되었고, 중등학교용 교과용도서는 대부분 검정 제도가 적용되었다. 이처럼 자유 발행제 → 검정제 → 국정제로 변화한 것은 국가가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1945년 패전 후에는 국정제가 폐지되고, 쇼와 22년(1947년)에 제정된 학교 교육법에 따라 소·중·고등학교 모두 검정 제도가 채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의 실시 이유에 대해 교육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전국적인 교육 수준의 유지 및 향상,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 적절한 교육 내용의 유지, 교육의 중립성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검정은

56) 일본의 교과용도서 발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 교육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 과정에 맞게 조직, 배열한 교과물의 주된 교재로서 교수용으로 제공되는 아동 또는 생도용 도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57) 권오현, 「일본의 교과용도서 제도와 역사 교과용도서」, 『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pp. 57~59.

대체로 4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① 검정 신청 → ② 문부과학성 교과용도서 조사관 조사 → ③ 교과용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문부과학대신의 자문 기관) 자문 요청 → ④ 심의회의 심의·의결 → ⑤ 문부과학성에 보고 → ⑥ 검정 의견 통지(합격 여부 결정은 유보) → ⑦ 수정표 제출 → ⑧ 심의회의 자문 요청 → ⑨ 심의회의 심의·의결 → ⑩ 문부과학성에 대한 답신 → ⑪ 합격 여부 결정 → ⑫ 검정 결과 통지 → ⑬ 완성된 견본 제출 → ⑭ 검정 결과 공개(신청 도서, 합격 견본, 검정 의견서, 수정표 등)

이 절차 중에서 ④의 단계에서 불합격이 된 교과용도서는 불합격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20일 이내에 반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반론서를 제출할 경우, 다시 교과용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에서 재심사를 하여 검정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⑥의 통지를 받고 수정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검정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에 교과용도서 발행자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검정 의견을 취소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를 통지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가 있는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정 의견에 따른 수정을 해야 한다.<sup>58)</sup>

현재의 이러한 검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1989년 4월에 교과용도서 검정 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확립된 것으로, 이때 간소화, 중점화, 검정 결과의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전면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 1999년에는 학습 지도 요령 개정을 계기로 검정 의견의 문서화, 오기·오식 심사의 폐지, 공개 장소의 확충 등과 같

---

58) 검정이 끝난 다음에도 교과용도서 발행자는 오기, 오식, 객관적 사정의 변경에 따라 명백한 오류가 된 사실 등의 기재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얻어 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습 상에 지장이 되는 기술 내용, 적절한 사실이나 통계 자료의 기재 및 변경의 필요성이 발견된 경우에도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은 검정 절차와 기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문부과학성은 1991년부터 검정 신청 도서와 검정 후의 도서 등 검정 관계 자료의 공개를 실시하고 있다. 1994년에는 공개 장소를 도쿄 한 곳에서 전국의 6개소로 확충하였고, 1998년부터는 8개소로 확대하였다. 1997년부터는 문부과학성 누리집에 교과용도서 검정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도쿄의 공개회장을 상설화하여 자료를 연중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2001년부터는 종래 신청 교과용도서와 합격 견본을 공개하고 검정 의견을 공표하는 것에서 그치던 것을 검정 의견서와 수정표도 같이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검정 제도는 정보 공개, 검정 절차 간소화 등의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개선되었지만, 교과용도서 출판사가 문부과학성의 검정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다.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

현재 일본에서 교과용도서 채택의 권한은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설치권자인 지방 자치 단체 시정촌(市町村, 한국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기초 자치 단체)이나 도도부현((都道府縣, 한국의 시·도에 해당하는 광역 자치 단체)의 교육 위원회에 있고, 국립·사립학교는 교장에게 있다.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의 교과용도서 채택 절차는 다음과 같다.<sup>59)</sup>

- ① 서목(書目) 제출(검정한 교과용도서의 서목을 문부과학대신에게 제출) →
- ② 교과용도서 목록 송부(문부과학대신이 각 학교와 시정촌 교육 위원회에 송부) →
- ③ 견본 송부(교과용도서 발행자가 도도부현 교육 위원회와 채택권자인 시정촌 교육 위원회, 국·사립학교장에게 송부) →
- ④ 교과용도서 선정 심의회의 자문과 답신(도도부현 교육 위원회는 교장과 교원, 교육 위원회 관계자, 학칙 경험자로 구성된 교과용도서 선정 심의회 설치, 심의회는 교과별로 수 명의 교

---

59) 박도순 외, 「교과용도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원을 조사원으로 위촉, 교과용도서 조사·연구) → ⑤ 도도부현 교육 위원회의 지도 조언(교과용도서 선정 심의회의 조사·연구 결과 토대) → ⑥ 교과용도서 전시회 개최 → ⑦ 채택

시정촌이 설립한 소·중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의 채택 권한은 시정촌 교육 위원회에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 또는 군 구역 또는 이들 구역을 합친 지역’을 채택 지구로 설정하고, 지구 내 시정촌이 공동으로 과목마다 동일한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채택 지구는 그 지역 내에서 동일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으로, 도도부현 교육 위원회가 자연적·경제적·문화적 조건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채택 지구 내의 시정촌은 통상 공동 채택을 위해 채택 지구 협의회를 설치하고, 여기에 교원 등으로 구성된 조사원을 두고 공동으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다.

채택 의무 교육 대상의 각 학교용 교과용도서에 관해서는 사용 연도의 전년도인 8월 31일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용 교과용도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교과용도서 수요량의 보고 시한과 관계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시기에 채택이 실시된다.<sup>60)</sup>

교과용도서 채택에 관해서는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과용도서 선정 심의회나 채택 지구 협의회 위원에게 학부모 대표 등을 참여시켜 학부모 등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채택 결과를 좀 더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용도서 채택에서는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발행자가 적정한 범위에서 선전 활동을 하도록 공정 거래 확보의 관점에서 독점 금지법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동법에 의한 공정 거래 위원회 고시인 ‘교과용도서업에 있어서 특정의 불공정한 거래 방법’을 통하여 금전, 물품의 제공, 중상, 비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문부과학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도하고 있다.

---

60) 김재춘 외, 「초등학교 교과서 개발의 절차와 원리 구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5.

첫째, 건본은 송부처별로 정해진 일정의 제한 부수의 범위 내에서 교육 위원회와 교과용도서 센터로 송부할 수 있지만, 교사용 지도서 및 검정 신청 도서(흰색 표지)의 납본 등은 일체 금지하고 있다.

둘째, 발행자가 주최 또는 관여하는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는 일체 금지한다.

셋째, 문부과학성에서 각 발행자가 작성한 교과용도서 편집 취지서를 정리하여 통지함으로써 각 발행자가 작성하는 선전용 팸플릿 등의 배부에 관하여 최대의 자숙을 요구한다.

넷째, 채택 관련자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직 관계자 등을 선전 활동에 종사시킬 것을 금지하며, 교과용도서 편집자, 저자는 채택에 관여할 수 없게 한다.

교과용도서 업계에서는 공정성의 확보에 관한 제반 규칙이 원활하게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발행자, 교과용도서 공급자 등을 중심으로 ‘교과용도서 공정 거래 협의회’를 설립한 바 있다. 본회는 공정 거래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공정 거래 위원회의 방침에 의한 ‘교과용도서 공정 거래 규칙’을 정하고 있다.

## 6. 주요국의 검정 교과용도서 제도의 시사점

건국 이후,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는 학교 교육의 절대적인 교재로서의 위치에 있었으며, 초등학교는 국정 교과용도서, 중등학교는 국정과 검정 교과용도서가 사용되었다. 즉, 국정 교과용도서가 교과용도서를 주도하였고, 검정 교과용도서 역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는 국가의 주도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제6차 교육과정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교과용도서에 대한 개념이 절대적 교육 자료에서 교육 활동의 중요한 교재 중의 하나라는 것으로 인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서는 국정 교과용도서 발행의 다원화와 아울러, 2007년부터는 주요 교과목의 국정 교과용도서가 검정 교과용도서로 전환되었

으며, 이후 3차의 구분 고시를 통하여 검정 교과용도서의 인정 교과용도서화가 확대되었다.

즉,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제도는 그간의 국가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수용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흐름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는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며, 선진 주요국의 교과용도서 제도의 경향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정 개정과 이에 따른 교과용도서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주요 선진국의 교과용도서 제도와 운용은 우리 교과용도서 제도가 지향하는 바에 시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1) 서구의 선진 주요국의 교과용도서 제도에서는 국가의 규제가 낮다.**

일반적인 규제의 단계로 볼 때, 교과용도서 제도는 국정 - 검정 - 인정 - 자유 발행의 순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교과용도서 제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II -1> 주요국의 교과용도서 제도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 발행제
북한			
중국			
대한민국, 일본			
독일			
러시아			
		미국 <sup>61)</sup>	
		프랑스	
			영국

61) 미국은 자유 발행제와 유사한 지역 인정제를 시행하는 주(뉴욕 주 등)와 주 인정제를 시행

국정제는 북한 등 소수에 지나지 않고, 검정과 인정제를 병행하면서 국정제가 남아 있는 국가는 동양권의 한국, 중국, 일본 등이다. 서구의 선진국은 국정제가 없이 검정제나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어 국가의 규제가 낮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도하여 비교적 세분화된 검정 절차에 의하여 엄격히 심사해 오던 일본도 1994년 학교 교육법 개정 이후 검정 절차를 다소 완화해가고 있다.

**(2) 규제가 없는 자유 발행제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가 간여는 존치하며, 오히려 점차 국가의 간여를 높여가는 추세이다.**

영국의 경우, 종전에는 학교장이 독자적으로 교과용도서와 교육 자료를 선정 하였으나, 1988년 신교육법 제정 이후 국가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출판사에서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고 교육 의사소통 및 기술회(BECTA)에서 교과용도서 1000여 종을 평가하여 채택에 영향을 주는 장치를 두었다.

프랑스는 수업 시간에 반드시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교과용도서에 대하여 자유롭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인정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으며, 중등학교는 자유 발행제를 택하고는 있지만 출판사에서 자율적으로 최소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한 지침과 학습 내용을 준수하여 교과용도서를 편찬하고 있다.

**(3) 검·인정의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의지 반영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교과용도서를 직접 검정하고 있으며, 독일과 미국은 각 주의 교육부가 검·인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독일은 주별로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972년 국가 교육부는 교과용도서만은 각 주의 교육부가 승인한 도서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

하는 주(캘리포니아주 등)가 있다. 여기에서는 영향력이 큰 캘리포니아 주의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은 주 단위의 인정제를 택하고 있지만, 점차 중앙 집권적이고 전국 공통적 성격을 강조하는 추세이며, 인정 심사 시 공통 사항으로서의 교육법 준수는 주 정부의 교육 담당 직원이 직접 검토한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검정 심의에 앞서 문부과학성 교과용도서 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 **(4) 검정 심의에 다양한 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의 인정 심의에 주 교육부 담당 직원(교육법 준수 심사)과 교사(수업자료 자문 패널), 해당 교과 연구 전문가(내용검토 패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며, 일본은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조사관(심의전 사전 조사)이 참여하고 매년 심의가 실시됨에 따라 기본적인 단계의 조사원 구성을 인력 풀(POOL)제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

#### **(5) 교과용도서의 채택을 단계별로 심사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단위 학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자유 발행제의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교과용도서의 채택을 단위 학교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단계별로 채택 심사 과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정 단계로 볼 수 있는 주 교육부의 심사에서 과목별로 4~10종의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며, 이를 지역 학교구에 제시하면 지역 학교구에서 1~2종을 채택하여 학교에 제시하고 단위 학교에서 최종 채택을 결정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검정한 교과용도서를 도도 부현(한국의 광역 자치 단체에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교과용도서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며, 이를 토대로 교과용도서의 채택 단위인 시정촌(한국의 기초 자치 단체에 해당) 또는 지역 학구의 채택 협의회에서 채택 도서를 결정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단계별로 채택 심사를 하되 채택 단위를 광역화하고 있음이 특색이다.

**(6) 교과용도서의 채택에 교육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두고 있다.**

자유 발행제인 영국과 검정제인 독일에서는 채택 결정은 단위 학교에서 하지만 주문은 지방 교육청(영국), 주 교육부(독일)를 통하도록 하며, 미국의 경우에는 주나 지역 학구에서 채택한 교과용도서는 나라에서 해 주고 있지만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선정한 교과용도서는 무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두고 있다.

**(7) 개방과 학부모 참여 등을 통하여 채택의 신뢰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도서의 전시, 공청회 등을 시행하며, 일본은 검정 신청 도서와 검정 후의 도서 등을 공개하고(공개 장소 8개소, 도쿄는 상설 공개회장 설치)<sup>62)</sup> 문부과학성 누리집에 교과용도서 검정 결과를 공개하며, 영국은 출판사의 홍보를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교과용도서의 최종 결정과 수량 결정을 위한 전체 교사 회의에 학부모나 학생 대표를 참석시키고 있으며, 일본은 교과용도서 선정 심의회나 채택 지구 협의회의 위원으로 학부모 대표 등을 참여시키고 있다.

**(8) 교과용도서 편찬과 관리가 출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경쟁 원리에 따르고 있어 출판사의 전문화가 조장되고 있다.**

선진 주요국들이 검·인정제와 자유 발행제를 통하여 출판사의 경쟁을 유발하여, 교과목별로 교과용도서의 전문 출판사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출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점차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출판사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있다.

---

62) 그러나, 발행자의 선전 활동은 공정 거래 관점에서 독점 금지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송부처별로 건본 발송 발행자 주도 강습회 등의 금지 등 제한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9) 교과용도서의 공급이 대부분 무상 또는 대여제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주나 지역 학구에서 채택된 도서는 무상이지만 이외의 학교에서 별도로 선정한 도서는 유상 공급을 하며, 영국은 공립은 무상 공급하여 2~4년 재사용하고, 사립은 유상 공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의무 교육 단계는 무상으로 대여 하고, 독일은 무상으로 공급한다.

**(10) 외형적 심사보다 교육적 가치나 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와 심도 있는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매우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인정과 채택의 틀<sup>63)</sup>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기계적이고 피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 이유로서 첫째, 제출에서부터 채택까지 6개월 안에 여러 단계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일정이 촉박하며, 둘째, 심사 요령에 대한 1주일 정도의 연수가 있기는 하지만 심사위원의 준비가 미흡하고, 셋째, 심사가 삽화 사진 등 외형적 평가와 체크리스트에 의존되고 있으며, 넷째, 심사하는 교과용도서의 분량이 통상 1000페이지에 가까워 충분한 검토가 어려운 점 등이 언급된다. 또, 각 출판사들은 수익을 위해 사용자인 교사와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만 관심을 가져 오히려 부수적인 자료에 의해 교과용도서의 채택이 결정되기도 한다.

---

63) 제출 - 심사 위원 연수 - 개별 심사 - 전체 심의 - 전시 - 공청회 - 주 교육위원회 인정 - 지역 학교구 채택 - 학교 최종 채택 등

### Ⅲ. 검정 교과용도서에 대한 현장 수급자의 의견 조사

검정 교과용도서를 편찬한 발행사와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여 교수·학습에 사용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09년 7월 20일부터 8월 30일 간에 초·중등 교사 379명과 발행 종사자 20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한편, 설문 조사 기간 중에 전문가, 정책 당국자, 출판 관계자 등에 대한 면담도 병행, 시행하였다.

#### 1. 검정 교과용도서 적정 종수와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조사(현장 교사)

##### 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총 379명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의 경우, 초등 교사가 84명(22.2%), 중등 교사가 295명(77.8%)으로, 중·고등학교 교사가 많았다. 중·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국어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51명(1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어 49명(16.6%), 사회 44명(14.9%), 수학 41명(13.9%), 과학 및 전문 교과목 29명(9.8%), 윤리 13명(4.4%), 제2외국어 12명(4.1%), 체육과 미술 10명(3.4%), 음악 7명(2.4%) 순이었다.

경력에 경우, 5년 이하 58명(15.3%), 6년~10년 이하 78명(20.6%), 11년~20년 이하 103명(27.2%), 21년 이상 140명(36.9%)으로, 2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다. 학급 규모의 경우, 10학급 미만 25명(6.6%), 10학급~30학급 미만 133명(35.1%), 30학급 이상 221명(58.3%)으로, 대부분의 학급 규모는 30학급 이상이었다.

〈표 Ⅲ-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현장 교사)

구분		빈도	%
학교	초등학교	84	22.2%
	중·고등학교	295	77.8%
중·고등 담당 과목	국어	51	17.3%
	윤리	13	4.4%
	사회	44	14.9%
	수학	41	13.9%
	과학	29	9.8%
	영어	49	16.6%
	체육	10	3.4%
	음악	7	2.4%
	미술	10	3.4%
	제2외국어	12	4.1%
	전문 교과목	29	9.8%
	중·고등 전체	295	100.0%
경력	5년 이하	58	15.3%
	6년 이상~10년 이하	78	20.6%
	11년 이상~20년 이하	103	27.2%
	21년 이상	140	36.9%
학급 규모	10학급 미만	25	6.6%
	10학급~30학급 미만	133	35.1%
	30학급 이상	221	58.3%
합계		379명	100.0%

## 나. 의견 분석

### (1)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에 대한 생각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소 수정할 사항이 있다’ 45.4%, ‘바람직하다’가 36.4%, ‘바람직하지 못하다’ 9.8%, ‘잘 모르겠다’ 8.4%로, 약 50% 내외의 교사들이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를 다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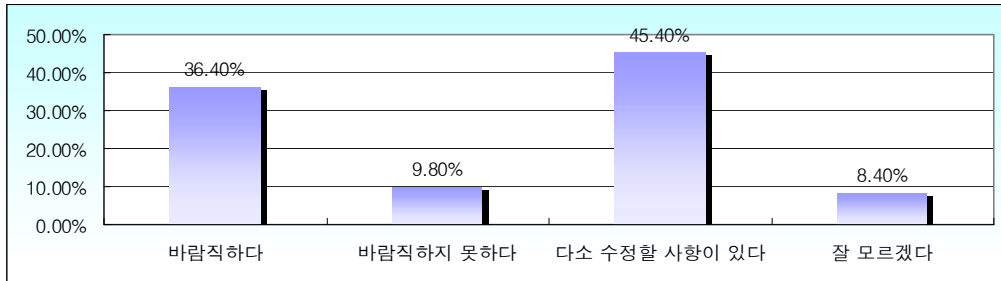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보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를 다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05$ ).

중·고등학교 담당 교과목의 경우 사회 교과, 미술 교과와 제2외국어를 제외하고는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를 다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05$ ).

<표 Ⅲ-2>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에 대한 생각

구분			발행 제도 의견				$X^2$ , p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소 수정할 사항이 있다	잘 모르겠다	
학 교	초등	빈도	38	8	31	7	$X^2=4.02$ 6 p=.259
		%	45.2%	9.5%	36.9%	8.3%	
	중등	빈도	100	29	141	25	
		%	33.9%	9.8%	47.8%	8.5%	
계		빈도	138	37	172	32	379
		%	36.4%	9.8%	45.4%	8.4%	100.0%
담 당 교 과	국어	빈도	18	6	25	2	$X^2=32.3$ 56p=.351
		%	35.3%	11.8%	49.0%	3.9%	
	윤리	빈도	4	3	6	0	
		%	30.8%	23.1%	46.2%	0%	
	사회	빈도	18	2	23	1	
		%	40.9%	4.5%	52.3%	2.3%	
	수학	빈도	13	4	18	6	
		%	31.7%	9.8%	43.9%	14.6%	
	과학	빈도	8	3	15	3	
		%	27.6%	10.3%	51.7%	10.3%	
	영어	빈도	17	3	23	6	
		%	34.7%	6.1%	46.9%	12.2%	
	체육	빈도	2	2	4	2	
		%	20.0%	20.0%	40.0%	20.0%	
	음악	빈도	1	0	3	3	
		%	14.3%	0%	42.9%	42.9%	
	미술	빈도	5	1	3	1	
		%	50.0%	10.0%	30.0%	10.0%	
	제2외국어	빈도	5	2	5	0	
		%	41.7%	16.7%	41.7%	0%	
	전문 교과목	빈도	9	3	16	1	
		%	31.0%	10.3%	55.2%	3.4%	
계		빈도	100	29	141	25	295
		%	33.9%	9.8%	47.8%	8.5%	100.0%

<그림 Ⅲ-1>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에 대한 생각



## (2)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에 대한 생각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한해야 한다’가 66.5%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보다 33.5% 많아, 교사들은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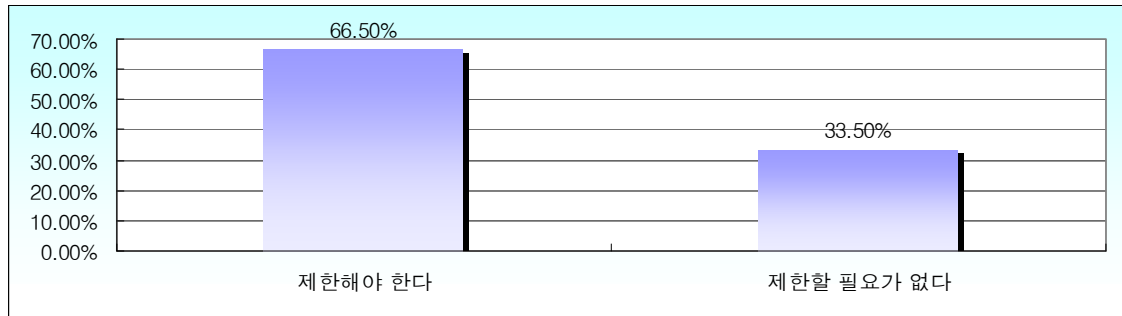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초등학교 교사가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05$ ).

중·고등학교 담당 교과에 따라, 사회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교과 교사보다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05$ ).

<표 Ⅲ-3>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에 대한 생각

구분			합격 종수 제한		$X^2$ , p
			제한해야 한다	제한할 필요가 없다	
학 교	초등	빈도	62	22	$X^2=2.5$ 94 p=.068
		%	73.8%	26.2%	
	중등	빈도	190	105	
		%	64.4%	35.6%	
계		빈도	252	127	379
		%	66.5%	33.5%	100.0%
담 당 교 과	국어	빈도	36	15	$X^2=7.3$ 08 p=.696
		%	70.6%	29.4%	
	윤리	빈도	7	6	
		%	53.8%	46.2%	
	사회	빈도	32	12	
		%	72.7%	27.3%	
	수학	빈도	22	19	
		%	53.7%	46.3%	
	과학	빈도	16	13	
		%	55.2%	44.8%	
	영어	빈도	34	15	
		%	69.4%	30.6%	
	체육	빈도	7	3	
		%	70.0%	30.0%	
	음악	빈도	5	2	
		%	71.4%	28.6%	
	미술	빈도	6	4	
		%	60.0%	40.0%	
	제2외국어	빈도	8	4	
		%	66.7%	33.3%	
	전문 교과목	빈도	17	12	
		%	58.6%	41.4%	
계		빈도	190	105	379
		%	64.4%	35.6%	100.0%

<그림 Ⅲ-2>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에 대한 생각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외적인 질이 떨어지는 교과용도서 배제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채택 과정에서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34.1%, ‘출판업계의 과당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8.7%, ‘교과용도서 채택에 따른 부조리를 줄이기 위해서’ 2.0% 순이었다. 교사들은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로 내·외적인 질이 떨어지는 교과용도서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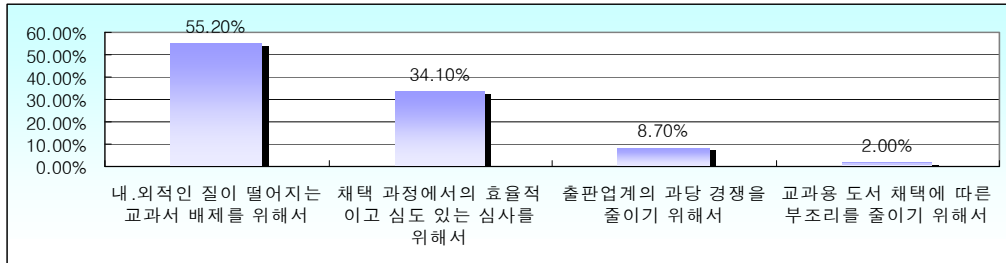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초등학교 교사가 내·외적인 질이 떨어지는 교과용도서 배제를 위해서 종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05$ ).

중·고등학교 담당교과의 경우 영어, 음악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가 내·외적인 질이 떨어지는 교과용도서를 배제를 위해서 종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른 교과 교사보다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05$ ).

<표 III -4>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제한해야 하는 이유

구분			제한 이유				$X^2$ , p
			내·외적인 질이 떨어지는 교과용도서 배제를 위해서	채택 과정에서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출판업계의 과당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교과용도서 채택에 따른 부조리를 줄이기 위해서	
학 교	초등	빈도	42	15	4	1	$X^2=5.284$ p=.152
		%	67.7%	24.2%	6.5%	1.6%	
	중등	빈도	97	71	18	4	
		%	51.1%	37.4%	9.5%	2.1%	
계		빈도	139	86	22	5	252
		%	55.2%	34.1%	8.7%	2.0%	100.0%
담 당 교 과	국어	빈도	16	15	5	0	$X^2=38.77$ 5 p=.131
		%	44.4%	41.7%	13.9%	.0%	
	윤리	빈도	4	0	3	0	
		%	57.1%	.0%	42.9%	.0%	
	사회	빈도	17	13	1	1	
		%	53.1%	40.6%	3.1%	3.1%	
	수학	빈도	9	11	2	0	
		%	40.9%	50.0%	9.1%	.0%	
	과학	빈도	7	6	2	1	
		%	43.8%	37.5%	12.5%	6.3%	
	영어	빈도	23	10	1	0	
		%	67.6%	29.4%	2.9%	.0%	
	체육	빈도	4	2	0	1	
		%	57.1%	28.6%	.0%	14.3%	
	음악	빈도	4	0	1	0	
		%	80.0%	.0%	20.0%	.0%	
	미술	빈도	3	3	0	0	
		%	50.0%	50.0%	.0%	.0%	
	제2외국어	빈도	4	2	2	0	
		%	50.0%	25.0%	25.0%	.0%	
	전문 교과목	빈도	6	9	1	1	
		%	35.3%	52.9%	5.9%	5.9%	
계		빈도	97	71	18	4	190
		%	51.1%	37.4%	9.5%	2.1%	100.0%

<그림 Ⅲ-3>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제한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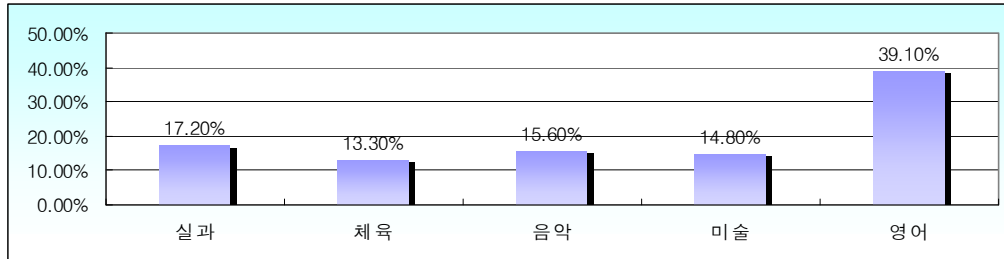
「초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어’라는 응답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과’ 17.2%, ‘음악’ 15.6%, ‘미술’ 14.8%, ‘체육’ 13.3% 순이었다.

초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중에서는 영어 교과용도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종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Ⅲ-5>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초등학교(복수 응답)

구분	빈도	%
실과	22	17.2%
체육	17	13.3%
음악	20	15.6%
미술	19	14.8%
영어	50	39.1%
전체	128	100.0%

<그림 III-4>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초등학교(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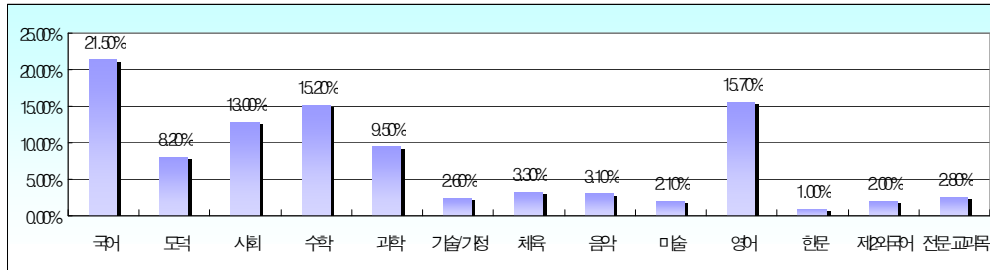


「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라는 응답이 2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어’ 15.7%, ‘수학’ 15.2%, ‘사회’ 13.0%, ‘과학’ 9.5%, ‘도덕’ 8.2% 순이었다. 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중에서는 국어 교과용도서에 대해서 종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6>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 - 중·고등학교(복수 응답)

구분	빈도	%
국어	131	21.5%
도덕	50	8.2%
사회	79	13.0%
수학	93	15.2%
과학	58	9.5%
기술·가정	16	2.6%
체육	20	3.3%
음악	19	3.1%
미술	13	2.1%
영어	96	15.7%
한문	6	1.0%
제2외국어	12	2.0%
전문 교과목	17	2.8%
전체	610	100.0%

<그림 III-5>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 - 중·고등학교(복수 응답)



「초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우선 순위 교과목」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의 경우, ‘영어’라고 응답한 교사는 78.7%로 가장 많았으며, 2순위의 경우 ‘음악’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50.8%로 가장 많았다. 3순위의 경우 ‘미술’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4순위의 경우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비슷하였다. 5순위 경우 ‘실과’ 및 ‘체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2.8%, 31.1%로 많았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영어를 가장 우선 시하여 종수를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7>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우선순위-초등학교(복수 응답)

순위 교과	1		2		3		4		5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실과	6	9.8%	13	21.3%	9	14.8%	14	23.0%	20	32.8%
체육	4	6.6%	9	14.8%	14	23.0%	15	24.6%	19	31.1%
음악	2	3.3%	31	50.8%	9	14.8%	16	26.2%	3	4.9%
미술	1	1.6%	6	9.8%	26	42.6%	14	23.0%	12	19.7%
영어	48	78.7%	2	3.3%	3	4.9%	2	3.3%	7	11.5%

「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우선 순위 교과목」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의 경우 ‘국어’라고 응답한 교사는 56.7%로 가장 많았으며, 2순위의 경우 ‘수학’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29.4%로 가장 많았다. 3순위의 경우 ‘영어’라고 응답한 교사가 24.0%로 가장 많았으며, 4순위의 경우 ‘과학’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35.0%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5순위 경우 ‘사회’, ‘과학’, ‘영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2.9%, 21.0%, 20.4%로 많았다.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국어를 가장 우선시하여 종수를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8>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우선 순위-중고등학교(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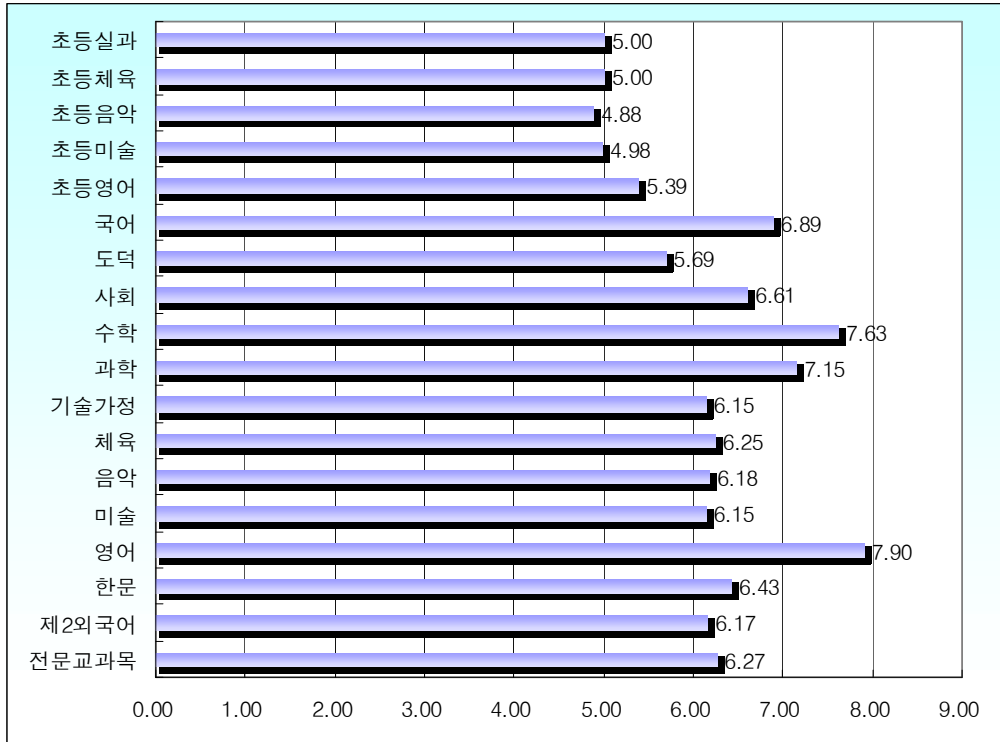
순위 교과	1		2		3		4		5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국어	106	56.7%	15	8.3%	20	11.7%	7	4.3%	7	4.5%
도덕	6	3.2%	34	18.9%	11	6.4%	8	4.9%	2	1.3%
사회	14	7.5%	33	18.3%	31	18.1%	21	12.9%	36	22.9%
수학	14	7.5%	53	29.4%	28	16.4%	24	14.7%	10	6.4%
과학	3	1.6%	9	5.0%	15	8.8%	57	35.0%	33	21.0%
기술	5	2.7%	2	1.1%	1	0.6%	6	3.7%	1	0.6%
체육	6	3.2%	5	2.8%	3	1.8%	0	0.0%	5	3.2%
음악	1	0.5%	7	3.9%	6	3.5%	5	3.1%	0	0.0%
미술	2	1.1%	0	0.0%	7	4.1%	5	3.1%	3	1.9%
영어	22	11.8%	15	8.3%	41	24.0%	18	11.0%	32	20.4%
한문	1	0.5%	4	2.2%	2	1.2%	3	1.8%	6	3.8%
제2외국어	4	2.1%	2	1.1%	0	0.0%	7	4.3%	9	5.7%
전문 교과목	3	1.6%	1	0.6%	6	3.5%	2	1.2%	13	8.3%

「교과목별로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몇 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의 경우, ‘실과’는 평균 5.00종, ‘체육’은 평균 5.00종, ‘음악’은 평균 4.88종, ‘미술’은 평균 4.98종, ‘영어’는 평균 5.39종으로 대략 5종 정도가 좋으며, 나머지 교과는 대략 5종으로 제한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의 경우, ‘국어’가 평균 6.89종, ‘도덕’ 평균 5.69종, ‘사회’ 평균 6.61종, ‘수학’ 평균 7.63종, ‘기술·가정’ 평균 6.15종, ‘체육’ 평균 6.25종, ‘음악’ 평균 6.18종, ‘미술’ 평균 6.15종, ‘영어’ 평균 7.90종, ‘한문’ 평균 6.43종, ‘제2외국어’ 평균 6.17종, ‘전문 교과목’ 평균 6.27종으로, 수학, 영어 교과용도서는 대략 8종, 국어, 과학 교과용도서는 대략 7종, 나머지 교과는 6종으로 제한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9〉 검정 교과용도서의 제한 종수 평균

	빈도	평균
초등실과	51	5.00
초등체육	53	5.00
초등음악	56	4.88
초등미술	54	4.98
초등영어	59	5.39
국어	132	6.89
도덕	77	5.69
사회	119	6.61
수학	119	7.63
과학	108	7.15
기술가정	59	6.15
체육	56	6.25
음악	56	6.18
미술	55	6.15
영어	118	7.90
한문	53	6.43
제2외국어	59	6.17
전문교과목	55	6.27

<그림 III-6> 검정 교과용도서의 제한 종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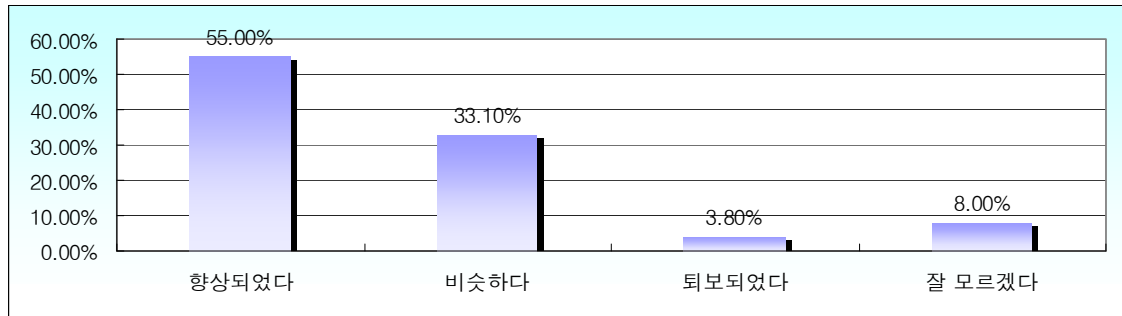
### (3) 현행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향상 정도

「현재까지 발행된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향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상되었다’가 55.0%, ‘비슷하다’ 33.1%, ‘퇴보되었다’ 3.8%, ‘잘 모르겠다’ 8.0%로, 반수 이상의 교사들은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보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교육과정 교과용도서가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05$ ). 중·고등학교 담당교과목의 경우, 사회 교과, 제2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교육과정 교과용도서가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다른 교과 교사보다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05$ ).

<표 Ⅲ-10> 현행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향상 정도

구분			향상정도				$X^2$ , p
			향상되었다	비슷하다	퇴보되었다	잘 모르겠다	
학 교	초등	빈도	40	30	1	9	$X^2=4.317$ p=.229
		%	50.0%	37.5%	1.3%	11.3%	
	중등	빈도	146	82	12	18	
		%	56.6%	31.8%	4.7%	7.0%	
계		빈도	186	112	13	27	338
		%	55.0%	33.1%	3.8%	8.0%	100.0%
담 당 교 과	국어	빈도	25	16	0	4	$X^2=37.37$ 9 p=.166
		%	55.6%	35.6%	.0%	8.9%	
	윤리	빈도	8	4	0	1	
		%	61.5%	30.8%	.0%	7.7%	
	사회	빈도	24	7	3	2	
		%	66.7%	19.4%	8.3%	5.6%	
	수학	빈도	23	10	2	2	
		%	62.2%	27.0%	5.4%	5.4%	
	과학	빈도	14	9	1	2	
		%	53.8%	34.6%	3.8%	7.7%	
	영어	빈도	29	15	2	2	
		%	60.4%	31.3%	4.2%	4.2%	
	체육	빈도	2	4	2	1	
		%	22.2%	44.4%	22.2%	11.1%	
	음악	빈도	5	6	0	0	
		%	45.5%	54.5%	.0%	.0%	
	미술	빈도	2	3	0	3	
		%	25.0%	37.5%	.0%	37.5%	
	제2외국어	빈도	8	3	0	0	
		%	72.7%	27.3%	.0%	.0%	
	전문 교과목	빈도	18	10	3	4	
		%	51.4%	28.6%	8.6%	11.4%	
계		빈도	186	112	13	27	258
		%	55.0%	33.1%	3.8%	8.0%	100.0%

<그림 Ⅲ-7> 현행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향상 정도



#### (4)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생각

「제7차 교육과정과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귀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는 편이다’가 49.3%로 ‘채택하는 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다’보다 33.2% 많아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하는 데 있어 제반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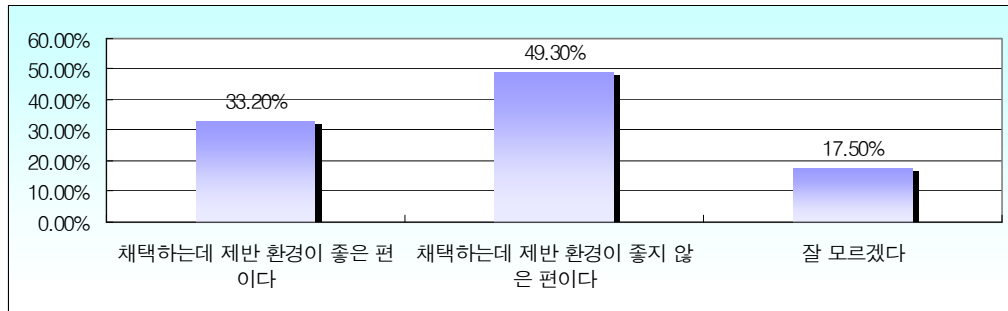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교사보다 중·고등학교 교사가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응답한 의견보다 좋지 않은 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p < .05$ ).

중·고등학교 담당교과의 경우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는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데 제반 환경이 좋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 교사보다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p > .05$ ).

<표 Ⅲ-11>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생각

구분			제반 환경			$X^2$ , p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다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다	잘 모르겠다	
학 교	초등	빈도	15	30	23	$X^2=16.50$ 9 p=.000
		%	22.1%	44.1%	33.8%	
	중등	빈도	103	145	39	
		%	35.9%	50.5%	13.6%	
계		빈도	118	175	62	355
		%	33.2%	49.3%	17.5%	100.0%
담 당 교 과	국어	빈도	12	25	12	$X^2=25.48$ 8 p=.183
		%	24.5%	51.0%	24.5%	
	윤리	빈도	4	5	4	
		%	30.8%	38.5%	30.8%	
	사회	빈도	18	21	3	
		%	42.9%	50.0%	7.1%	
	수학	빈도	16	20	5	
		%	39.0%	48.8%	12.2%	
	과학	빈도	8	17	4	
		%	27.6%	58.6%	13.8%	
	영어	빈도	21	26	1	
		%	43.8%	54.2%	2.1%	
	체육	빈도	2	4	3	
		%	22.2%	44.4%	33.3%	
	음악	빈도	3	3	1	
		%	42.9%	42.9%	14.3%	
	미술	빈도	2	7	1	
		%	20.0%	70.0%	10.0%	
	제2외국어	빈도	6	3	2	
		%	54.5%	27.3%	18.2%	
	전문 교과목	빈도	11	14	3	
		%	39.3%	50.0%	10.7%	
계		빈도	103	145	39	287
		%	35.9%	50.5%	13.6%	100.0%

〈그림 Ⅲ-8〉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생각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라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용도서가 다양성을 지녀서’라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두드러지게 좋은 교과용도서가 있어서’와 ‘그동안 기대하고 있던 교과용도서가 발행되어서’ 18.4%, ‘출판사의 과당 경쟁이 해소되어서’ 16.5%, ‘기타’ 2.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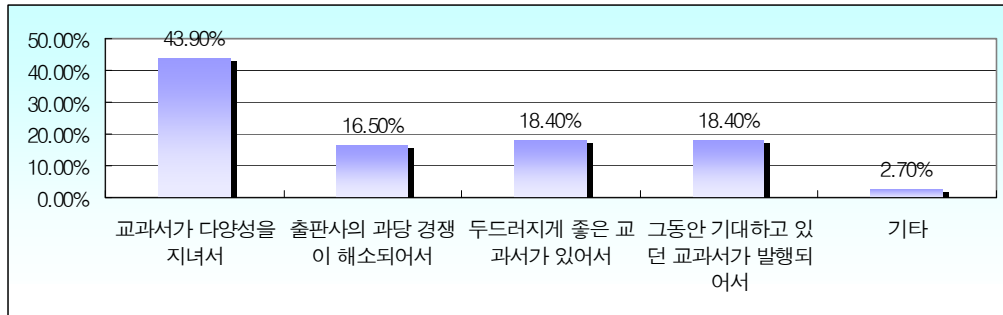
교사들은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사 모두 교과용도서가 다양성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사는 ‘출판사의 과당 경쟁이 해소되어서’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중·고등학교 교사는 ‘그동안 기대하고 있던 교과용도서가 발행되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중·고등학교 담당교과외의 경우 윤리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를 제외하고 모든 교과 교사들이 교과용도서가 다양성을 지녀서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Ⅲ -12〉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라는 이유(복수 응답)

구분			긍정 이유					
			교과용도서가 다양성을 지녀서	출판사의 과당 경쟁이 해소되어서	두드러지게 좋은 교과용도서가 있어서	그동안 기대하고 있던 교과용도서가 발행되어서	기타	전체
학 교	초등	빈도	14	8	5	3	1	31
		%	45.2%	25.8%	16.1%	9.7%	3.2%	12.2%
	중등	빈도	98	34	42	44	6	224
		%	43.8%	15.2%	18.8%	19.6%	2.7%	87.8%
계		빈도	112	42	47	47	7	255
		%	43.9%	16.5%	18.4%	18.4%	2.7%	100.0%
담 당 교 과	국어	빈도	12	3	5	6	2	28
		%	42.9%	10.7%	17.9%	21.4%	7.1%	12.5%
	윤리	빈도	4	1	4	3	0	12
		%	33.3%	8.3%	33.3%	25.0%	.0%	5.4%
	사회	빈도	17	7	6	6	1	37
		%	45.9%	18.9%	16.2%	16.2%	2.7%	16.5%
	수학	빈도	16	8	9	6	1	40
		%	40.0%	20.0%	22.5%	15.0%	2.5%	17.9%
	과학	빈도	7	0	3	4	0	14
		%	50.0%	.0%	21.4%	28.6%	.0%	6.3%
	영어	빈도	20	8	8	9	2	47
		%	42.6%	17.0%	17.0%	19.1%	4.3%	21.0%
	체육	빈도	2	1	1	0	0	4
		%	50.0%	25.0%	25.0%	.0%	.0%	1.8%
	음악	빈도	2	0	0	1	0	3
		%	66.7%	.0%	.0%	33.3%	.0%	1.3%
	미술	빈도	2	1	0	1	0	4
		%	50.0%	25.0%	.0%	25.0%	.0%	1.8%
	제2외국어	빈도	6	2	2	4	0	14
		%	42.9%	14.3%	14.3%	28.6%	.0%	6.3%
	전문 교과목	빈도	10	3	4	4	0	21
		%	47.6%	14.3%	19.0%	19.0%	.0%	9.4%
계		빈도	98	34	42	44	6	224
		%	43.8%	15.2%	18.8%	19.6%	2.7%	100.0%

〈그림 Ⅲ-9〉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라는 이유(복수 응답)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라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너무 많은 교과용도서의 종류로 인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과용도서마다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29.4%, ‘많은 출판사가 과당 경쟁을 하여서’ 22.2%, ‘교사들의 검토 결과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어서’ 10.2%, ‘기타’ 2.5%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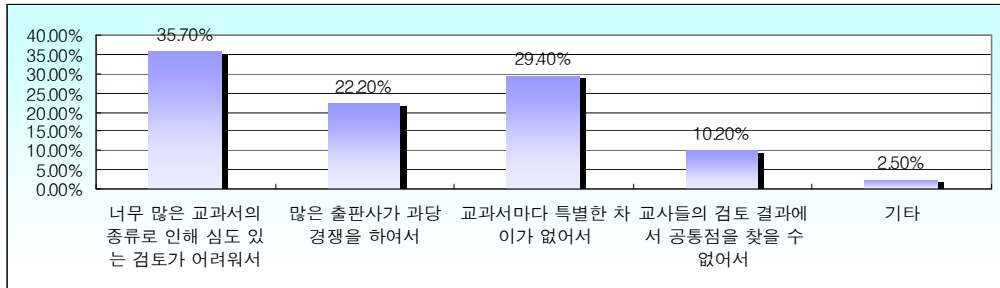
교사들은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교과용도서의 종류로 인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사는 ‘교사들의 검토 결과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초등학교 교사보다 많았다. 중·고등학교 담당 교과에 경우 윤리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는 ‘너무 많은 교과용도서의 종류로 인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Ⅲ-13〉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라는 이유(복수 응답)

구분			부정 이유					
			너무 많은 교과용도서 의 종류로 인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워서	많은 출판사가 과당 경쟁을 하여서	교과용도서 마다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교사들의 검토 결과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어서	기타	전체
학 교	초등	빈도	21	17	21	2	2	63
		%	33.3%	27.0%	33.3%	3.2%	3.2%	15.7%
	중등	빈도	122	72	97	39	8	338
		%	36.1%	21.3%	28.7%	11.5%	2.4%	84.3%
계		빈도	143	89	118	41	10	401
		%	35.7%	22.2%	29.4%	10.2%	2.5%	100.0%
담 당 교 과	국어	빈도	21	11	16	5	1	54
		%	38.9%	20.4%	29.6%	9.3%	1.9%	16.0%
	윤리	빈도	5	3	2	1	0	11
		%	45.5%	27.3%	18.2%	9.1%	.0%	3.3%
	사회	빈도	20	8	16	7	2	53
		%	37.7%	15.1%	30.2%	13.2%	3.8%	15.7%
	수학	빈도	18	12	13	6	1	50
		%	36.0%	24.0%	26.0%	12.0%	2.0%	14.8%
	과학	빈도	12	9	14	6	0	41
		%	29.3%	22.0%	34.1%	14.6%	.0%	12.1%
	영어	빈도	22	12	14	9	2	59
		%	37.3%	20.3%	23.7%	15.3%	3.4%	17.5%
	체육	빈도	3	2	3	0	0	8
		%	37.5%	25.0%	37.5%	.0%	.0%	2.4%
	음악	빈도	3	1	3	1	0	8
		%	37.5%	12.5%	37.5%	12.5%	.0%	2.4%
	미술	빈도	6	4	7	1	1	19
		%	31.6%	21.1%	36.8%	5.3%	5.3%	5.6%
	제2외국어	빈도	2	2	3	0	0	7
		%	28.6%	28.6%	42.9%	.0%	.0%	2.1%
	전문 교과목	빈도	10	8	6	3	1	28
		%	35.7%	28.6%	21.4%	10.7%	3.6%	8.3%
계		빈도	122	72	97	39	8	338
		%	36.1%	21.3%	28.7%	11.5%	2.4%	100.0%

〈그림 III-10〉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라는 이유(복수 응답)



#### (5)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채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귀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채택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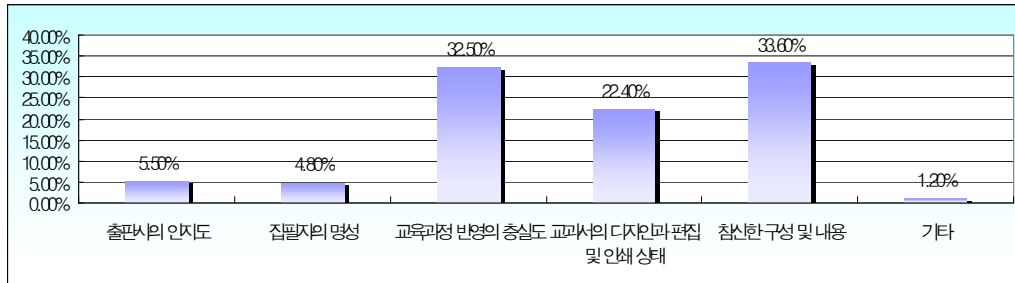
‘참신한 구성 및 내용’이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과정 반영의 충실도’ 32.5%, ‘교과용도서의 디자인과 편집 및 인쇄 상태’ 22.4%, ‘출판사의 인지도’ 5.5%, ‘집필자의 명성’ 4.8%, ‘기타’ 1.2% 순이었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채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참신한 구성 및 내용과 교육과정 반영의 충실도이었다. 학교의 경우 특별한 차이는 없었으며, 담당 교과에 따라 또한 특별한 차이는 없었다.

<표 Ⅲ-14>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채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복수 응답)

구분			제반 환경						
			출판사의 인지도	집필자의 명성	교육과정 반영의 충실도	교과용도 서의 디자인과 편집 및 인쇄 상태	참신한 구성 및 내용	기타	전체
학 교	초등	빈도	14	13	74	51	66	1	219
		%	6.4%	5.9%	33.8%	23.3%	30.1%	.5%	22.6%
	중등	빈도	39	34	241	166	260	11	751
		%	5.2%	4.5%	32.1%	22.1%	34.6%	1.5%	77.4%
담 당 교 과	국어	빈도	8	12	41	20	48	1	130
		%	6.2%	9.2%	31.5%	15.4%	36.9%	.8%	13.4%
	윤리	빈도	0	2	11	8	11	1	33
		%	.0%	6.1%	33.3%	24.2%	33.3%	3.0%	3.4%
	사회	빈도	4	8	37	27	39	1	116
		%	3.4%	6.9%	31.9%	23.3%	33.6%	.9%	12.0%
	수학	빈도	5	5	35	25	34	3	107
		%	4.7%	4.7%	32.7%	23.4%	31.8%	2.8%	11.0%
	과학	빈도	2	2	24	19	24	0	71
		%	2.8%	2.8%	33.8%	26.8%	33.8%	.0%	7.3%
	영어	빈도	10	2	38	32	49	2	133
		%	7.5%	1.5%	28.6%	24.1%	36.8%	1.5%	13.7%
	체육	빈도	0	0	8	5	8	1	22
		%	.0%	.0%	36.4%	22.7%	36.4%	4.5%	2.3%
	음악	빈도	0	2	11	8	10	0	31
		%	.0%	6.5%	35.5%	25.8%	32.3%	.0%	3.2%
	미술	빈도	0	0	10	8	10	0	28
		%	.0%	.0%	35.7%	28.6%	35.7%	.0%	2.9%
	제2외국어	빈도	3	1	10	5	10	0	29
		%	10.3%	3.4%	34.5%	17.2%	34.5%	.0%	3.0%
	전문 교과목	빈도	10	4	32	20	34	3	103
		%	9.7%	3.9%	31.1%	19.4%	33.0%	2.9%	10.6%
	전교과	빈도	11	8	55	38	46	0	158
		%	7.0%	5.1%	34.8%	24.1%	29.1%	.0%	16.3%
	담당교과목 없음	빈도	0	1	3	2	3	0	9
		%	.0%	11.1%	33.3%	22.2%	33.3%	.0%	.9%
계		빈도	53	47	315	217	326	12	970
		%	5.5%	4.8%	32.5%	22.4%	33.6%	1.2%	100.0%

<그림 III-11>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채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복수 응답)



## 2. 검정 교과용도서 적정 종수와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조사(발행 종사자)

### 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

총 208명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담당 업무의 경우, 편집 업무가 199명(95.7%)으로 대부분 편집 업무였다. 담당 과목은 국어가 66명(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학 40명(17.2%), 과학 29명(12.5%), 사회 23명(9.9%), 전문 교과목 22명(9.5%), 영어 15명(6.5%) 순이었다. 경력은 5년 이하가 44명(21.2%), 6년~10년이 82명(39.4%), 11년~20년이 69명(33.2%), 21년 이상이 13명(6.3%)으로, 6년~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많았다. 전문 편집 인력 인원의 경우, 50명 미만이 28명(13.5%), 50명~100명이 68명(32.7%), 100명 이상이 112명(53.8%)으로, 대부분 전문 편집 인력 인원은 100명 이상이였다.

<표 Ⅲ-15>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징(발행 종사자)

구분		빈도	%
담당 업무	경영	3	1.4%
	기획	3	1.4%
	편집	199	95.7%
	영업	3	1.4%
담당 과목 (복수 응답)	국어	66	28.4%
	윤리	6	2.6%
	사회	23	9.9%
	수학	40	17.2%
	과학	29	12.5%
	영어	15	6.5%
	체육	11	4.7%
	음악	6	2.6%
	미술	10	4.3%
	제2외국어	4	1.7%
	전문교과목	22	9.5%
경력	5년 이하	44	21.2%
	6년 이상~10년 이하	82	39.4%
	11년 이상~20년 이하	69	33.2%
	21년 이상	13	6.3%
전문편집인력	50명 미만	28	13.5%
	50명 ~ 100명 미만	68	32.7%
	100명 이상	112	53.8%
합계		208명	100.0%

## 나. 의견 분석

### (1)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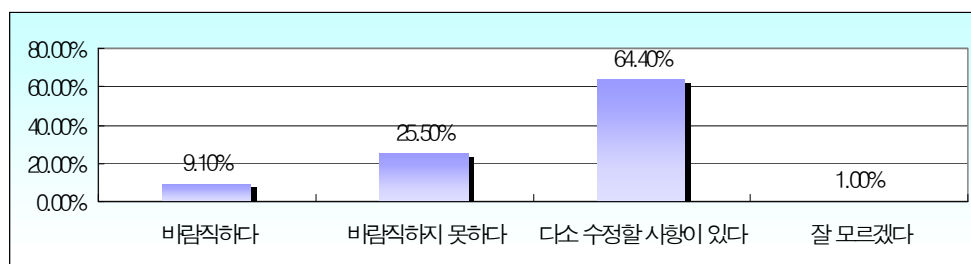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소 수정할 사항이 있다’가 64.4%, ‘바람직하지 못하다’가 25.5%, ‘바람직하다’는 9.1%, ‘기타’는 1.0%로, 대부분의 발행인들은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Ⅲ-16>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에 대한 생각

구분	빈도	%
바람직하다	19	9.1%
바람직하지 못하다	53	25.5%
다소 수정할 사항이 있다	134	64.4%
잘 모르겠다	2	1.0%
전체	208	100.0%

<그림 Ⅲ-12>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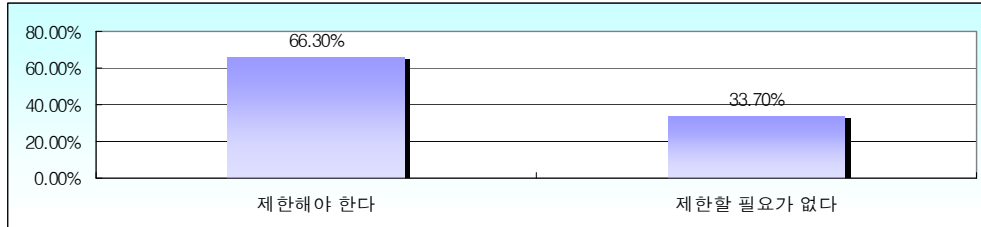
## (2)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에 대한 생각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한해야 한다’가 66.3%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의 33.7%보다 많아 약 70%가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17>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에 대한 생각

구분	빈도	%
제한해야 한다	138	66.3%
제한할 필요가 없다	70	33.7%
전체	208	100.0%

<그림 III-13>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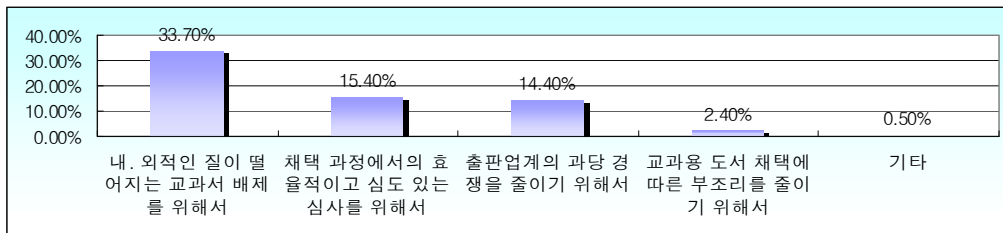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외적인 질이 떨어지는 교과용도서 배제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채택 과정에서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가 15.4%, ‘출판업계의 과다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가 14.4%, ‘교과용도서 채택에 따른 부조리를 줄이기 위해서’가 2.4%, ‘기타’ 0.5% 순이었다. 발행인들은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로 내·외적인 질이 떨어지는 교과용도서를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Ⅲ-18〉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제한해야 하는 이유

구분	빈도	%
내·외적인 질이 떨어지는 교과용도서 배제를 위해서	70	33.7%
채택 과정에서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32	15.4%
출판업계의 과당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30	14.4%
교과용도서 채택에 따른 부조리를 줄이기 위해서	5	2.4%
기타	1	0.5%
<b>전체</b>	<b>138</b>	<b>100.0%</b>

〈그림 Ⅲ-14〉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제한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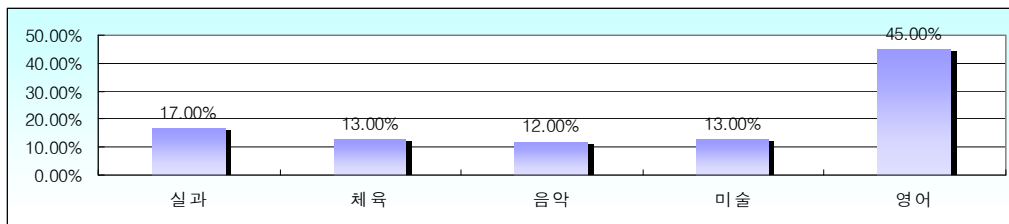


“초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어가 45.0%로 가장 많았으며, 실과 17.0%, 체육과 미술 13.0%, 음악 12.0% 순이었다. 초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중 영어 교과용도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종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Ⅲ-19>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초등학교(복수 응답)

구분	빈도	%
실과	34	17.0%
체육	26	13.0%
음악	24	12.0%
미술	26	13.0%
영어	90	45.0%
전체	200	100.0%

<그림 Ⅲ-15>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초등학교(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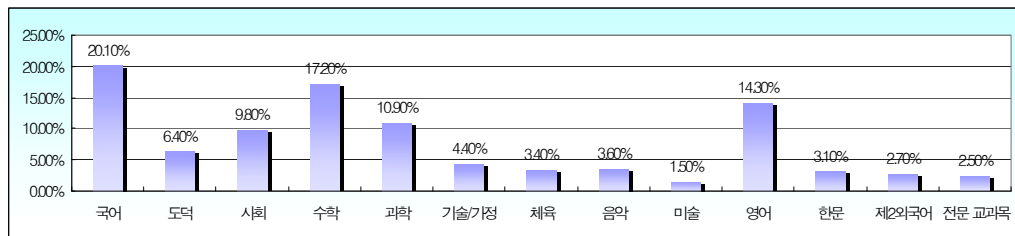


“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가 20.1%로 가장 많았으며, 수학 17.2%, 영어 14.3%, 과학 10.9%, 사회 9.8%, 도덕 6.4% 순이었다. 중·고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 중 국어 및 수학 교과용도서에 대해서 종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20>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중·고등학교 (복수응답)

구분	빈도	%
국어	111	20.1%
도덕	35	6.4%
사회	54	9.8%
수학	95	17.2%
과학	60	10.9%
기술/가정	24	4.4%
체육	19	3.4%
음악	20	3.6%
미술	8	1.5%
영어	79	14.3%
한문	17	3.1%
제2외국어	15	2.7%
전문 교과목	14	2.5%
전체	551	100.0%

<그림 III-16>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중·고등학교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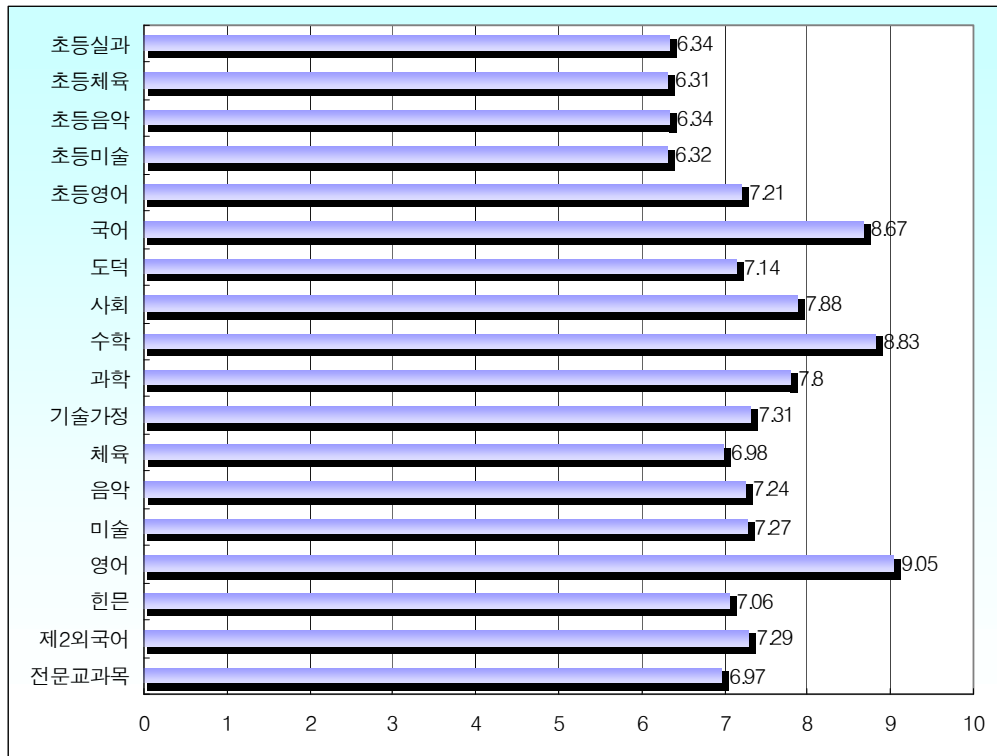
“교과목별로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몇 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검정 교과용도서의 경우, 실과는 평균 6.34종, 체육은 평균 6.31종, 음악은 평균 6.34종, 미술은 평균 6.32종, 영어가 평균 7.21종으로 대략 7종 정도가 좋으며, 나머지 교과는 대략 6종으로 제한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 검정 과서의 경우 국어는 평균 8.67종, 도덕은 평균 7.14종, 사회

는 평균 7.88종, 수학은 평균 8.83종, 과학은 평균 7.8종, 기술·가정은 평균 7.31종, 체육은 평균 6.98종, 음악은 평균 7.24종, 미술은 평균 7.27종, 영어는 평균 9.05종, 한문은 평균 7.06종, 제2외국어는 평균 7.29종, 전문 교과목은 평균 6.97종으로, 영어, 국어, 수학 교과용도서는 대략 9종, 나머지 교과는 7종에서 8종으로 제한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Ⅲ-21〉 검정 교과용도서의 제한 종수 평균

	빈도	평균
초등 실과	67	6.34
초등 체육	65	6.31
초등 음악	65	6.34
초등 미술	66	6.32
초등 영어	84	7.21
국어	113	8.67
도덕	72	7.14
사회	81	7.88
수학	96	8.83
과학	85	7.80
기술·가정	65	7.31
체육	63	6.98
음악	62	7.24
미술	62	7.27
영어	93	9.05
한문	63	7.06
제2외국어	65	7.29
전문 교과목	62	6.97

<그림 Ⅲ-17> 검정 교과용도서의 제한 종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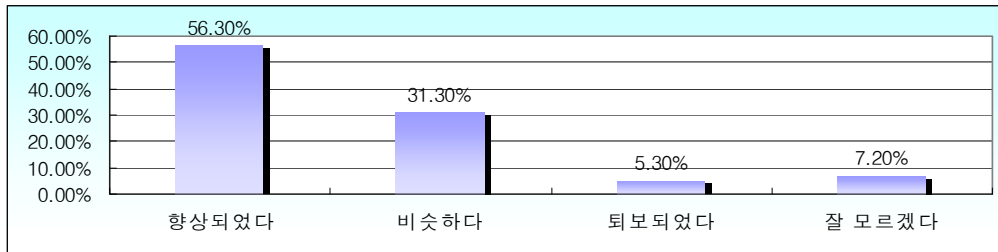
### (3) 현행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향상 정도

“현재까지 발행된 제 7차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향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상되었다’가 56.3%, ‘비슷하다’가 31.3%, ‘퇴보되었다’가 5.3%, ‘잘 모르겠다’가 7.2%로, 반 이상의 발행인들은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Ⅲ-22> 현행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향상 정도

구분	빈도	%
향상되었다	117	56.3%
비슷하다	65	31.3%
퇴보되었다	11	5.3%
잘 모르겠다	15	7.2%
전체	208	100.0%

<그림 Ⅲ-18> 현행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향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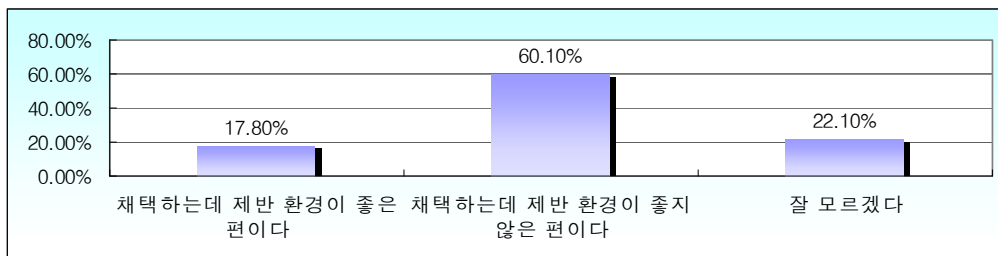
#### (4)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생각

“제7차 교육과정과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귀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는 편이다’가 60.1%로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다’의 17.8%보다 약 3배 이상의 많은 수가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하는데 있어 제반 환경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Ⅲ-23>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생각

구분	빈도	%
채택하는 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다	37	17.8%
채택하는 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다	125	60.1%
잘 모르겠다	46	22.1%
전체	208	100.0%

<그림 Ⅲ-19>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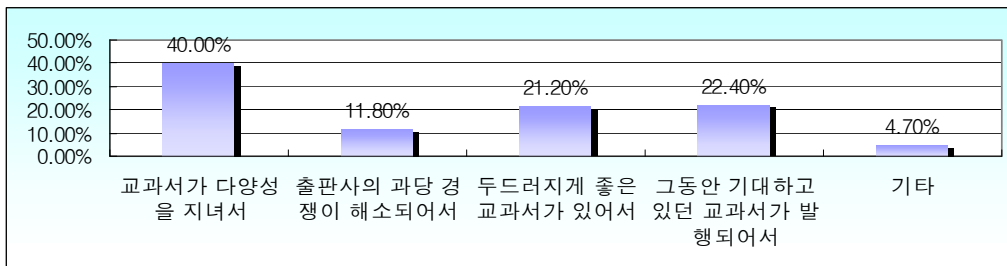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라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용도서가 다양성을 지녀서’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동안 기대하고 있던 교과용도서가 발행되어서’ 22.4%, ‘두드러지게 좋은 교과용도서가 있어서’ 21.2%, ‘출판사의 과다 경쟁이 해소되어서’ 11.8%, ‘기타’ 4.7% 순이었다. 발행인들은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교과용도서가 다양성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24>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라는 이유(복수 응답)

구분	빈도	%
교과용도서가 다양성을 지녀서	34	40.0%
출판사의 과당 경쟁이 해소되어서	10	11.8%
두드러지게 좋은 교과용도서가 있어서	18	21.2%
그동안 기대하고 있던 교과용도서가 발행되어서	19	22.4%
기타	4	4.7%
전체	85	100.0%

<그림 III-20>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라는 이유(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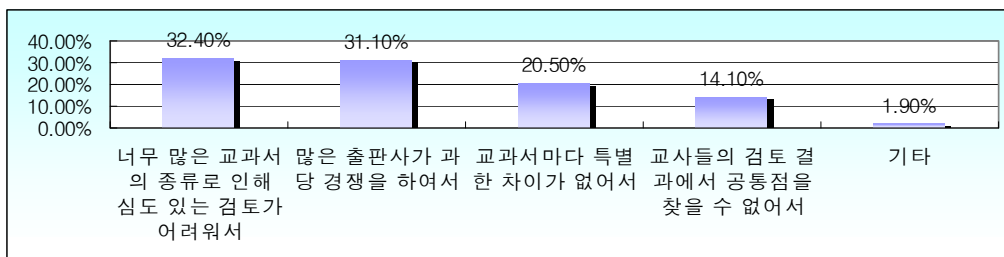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라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너무 많은 교과용도서의 종류로 인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워져서’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출판사가 과당 경쟁을 하여서’ 31.1%, ‘교과용도서마다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20.5%, ‘교사들의 검토 결과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어서’ 14.1%, ‘기타’ 1.9% 순이었다. 발행인들은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교과용도서의 종류로 인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고, 많은 출판사가 과다 경쟁을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20% 정도는 교과용도서의 특색 없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Ⅲ-25〉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라는 이유(복수 응답)

구분	빈도	%
너무 많은 교과용도서의 종류로 인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워서	101	32.4%
많은 출판사가 과당 경쟁을 하여서	97	31.1%
교과용도서마다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64	20.5%
교사들의 검토 결과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어서	44	14.1%
기타	6	1.9%
전체	312	100.0%

〈그림 Ⅲ-21〉 교육과정 검정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라는 이유(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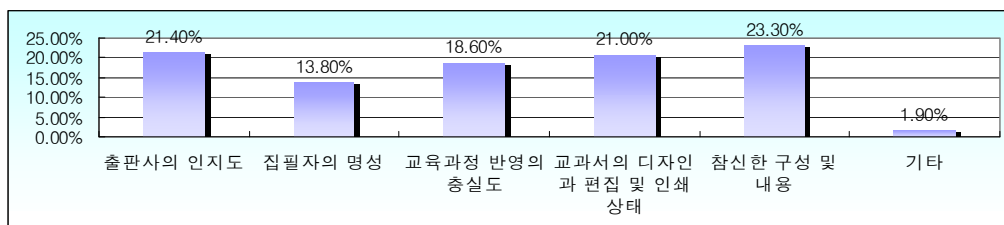
(5)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채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귀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채택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신한 구성 및 내용’이 2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출판사의 인지도’ 21.4%, ‘교과용도서의 디자인과 편집 및 인쇄 상태’ 21.0%, ‘교육과정 반영의 충실도’ 18.6%, ‘집필자의 명성’ 13.8%, ‘기타’ 1.9% 순이었다. 발행인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채택 시 참신한 구성과 내용(23.3%), 출판사의 인지도(21.4%), 디자인과 편집 및 인쇄 상태(21.0%)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I-26>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채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복수 응답)

구분	빈도	%
출판사의 인지도	122	21.4%
집필자의 명성	79	13.8%
교육과정 반영의 충실도	106	18.6%
교과용도서의 디자인과 편집 및 인쇄 상태	120	21.0%
참신한 구성 및 내용	133	23.3%
기타	11	1.9%
전체	312	100.0%

<그림 III-22> 학교 현장에서 교과용도서 채택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복수 응답)



### 3.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와 채택 제도에 종합 의견과 논의

#### 가. 의견 조사 결과 종합

현행 검정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에 대하여 현장 교사는 ‘다소 수정할 사항이 있다’가 45.4%, ‘대체로 바람직하다’가 36.4% 인 반면, 발행 종사자는 ‘다소 수정할 사항이 많다’가 64.4%, ‘바람직하지 못하다’가 25.5%로, 발행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은 현장 교사보다 발행 종사자들이 높게 나타났다. 즉, 현장 교사는 현행 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발행 종사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수정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행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용도서의 향상도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와 발행 종사자 모두 ‘대부분 향상되었다(현장 교사 56%, 발행 종사자 56.3%)’와 ‘비슷하다(현장 교사 33.1%, 발행 종사자 31.3%)’라고 대답하여 다수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교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 제한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나 발행 종사자 모두 합격 종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 찬성(현장 교사 66.5%, 발행 종사자 66.3%)하고 있다. 합격 종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의 반대 의견은 찬성 의견의 반 정도(현장 교사 33.5%, 발행 종사자 33.7%)에 머물러 있어 합격 종수 제한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종수를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내·외적인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현장 교사 55.2%, 발행 종사자 33.7%), 채택 과정에서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현장 교사 34.1%, 발행 종사자 15.4%), 출판업체의 과다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현장 교사 8.7%, 발행 종사자 14.4%) 순으로 나타났다.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 영어가 가장 많았고(현장 교사 39.1%, 발행 종사자 45.0%), 실과, 음악, 미술, 체육이 뒤를 이었으며,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어(현장 교사 21.5%, 발행 종사자 20.1%), 영어(현장 교사 15.7%, 발행 종사자 14.3%), 수학(현장 교사 15.2%, 발행 종사자 17.2%)이 많았으며 사회와 과학이 뒤를 이었다.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의 우선 순위(현장 교사)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영어(78.7%), 음악(50.8%), 미술(42.6%)의 순으로,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어(56.7%), 수학(29.4%), 영어(24.0%), 사회와 과학 순으로 응답하였다.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그 종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현장 교사는 4.88~5.39권, 발행 종사자는 6.31~7.21권, 중등학교의 경우, 현장 교사는 5.69~7.90권, 발행 종사자는 6.97~9.05권으로, 현장 교사보다 발행 종사자들이 1~2권 높게 반응하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중등학교가 초등학교보다 1~2권 많고, 현장 교사보다 발행 종사자가 1~2권 많았다.(교과목별 제한 종수는 표 III-9, III-21 참조)

검정 교과용도서의 채택에 대해서는 많은 현장 교사와 발행 종사자들이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다(교사 49.3%, 발행 종사자 60.1%)'로 응답하였고, 특히 발행 종사자들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높게 반응하였다.

그 이유로서 현장 교사들은 '너무 많은 종류의 교과용도서로 인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워(초등 교사 33.3%, 중등 교사 36.1%)', '교과용도서마다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초등 교사 33.3%, 중등 교사 28.7%)'라고 하였으며, 발행 종사자는 '많은 출판사가 과다 경쟁을 하여서(31.1%) 좋지 않다'라고 하였다.

현장 교사들은 교과목별로 채택 환경이 좋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과목은 미술(70.0%), 과학(58.6%), 영어(54.2%) 순이었으며, 수학, 체육, 미술 과목이

40%대 이상이였다.

한편, 채택 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한 반응도 상당수(현장 교사 33.2%, 발행 종사자 17.8%)인 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교과서가 다양성을 지녀서’에 높게 반응하였으며(현장 교사 43.9%, 발행 종사자 40.0%), ‘두드러지게 좋은 교과서가 있어서’(현장 교사 18.4%, 발행 종사자 21.2%)와 ‘기대했던 교과서가 발행되어서’(현장 교사 18.4%, 발행 종사자 22.4%)에도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장 교사들이 말하는 채택 환경이 좋은 교과목은 음악(66.7%) 체육·미술(각각 50.0%) 순이었으며, 대부분 교과목이 40%대 이상이였다.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 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에는, 현장 교사의 경우, ‘교육과정 반영의 충실도(초등학교 33.8%, 중등학교 32.1%)’와 ‘참신한 구성 및 내용(초등학교 30.1%, 중등학교 34.6%)’, ‘도서의 디자인 편집 인쇄 상태(초등학교 23.3%, 중등학교 22.1%)’의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발행 종사자는 ‘참신한 구성과 내용(23.3%)’, ‘출판사의 인지도(21.4%)’, ‘디자인 편집 인쇄(21.0%)’ 순으로 응답하여, 출판 종사자는 현장 교사와 달리 출판사와 교과용도서의 외형 체제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시사점 논의

설문 조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검정 제도는 지금보다 교과목의 종수를 확대하고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검정 제도가 확대되고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국정 교과용도서로 정해져 있는 교과목에도 이러한 변화가 적용되어야 한다.<sup>64)</sup> 이를 통해 자유롭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교과용도서에 구현될

---

64) 국정 교과용도서를 검정 교과용도서로 바꾸었을 경우, 예산 문제와 내용의 중립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정 교과용도서는 상대적으로 국정 교과용도서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고, 의무 교육 기간이 중학교까지는 교과용도서의 대금을 국가가 부담하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인제 박사(2009. 7. 20.)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와 학생이 토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정 교과용도서의 검정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다.<sup>65)</sup>

둘째, 교과용도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검정 심사를 하는 제도를 보완하여 동일 교육과정 아래에서 일정 주기가 되면 교과용도서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sup>66)</sup>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유순기 연구원(2009. 8. 22.)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용도서를 한번 만들고 나면 다음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까지 내용의 수정과 보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잘못된 내용뿐만 아니라, 매년 달라지는 사회적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셋째, 교과용도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문적인 집필진과 편집진이 상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 출원 당시에 일시적으로 작업을 하고 흩어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과용도서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 집필자 중심의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 회사 중심의 개발 방식이 절실하다. 특히, 우수한 교과용도서 편집자를 양성하고, 교과용도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sup>67)</sup>

---

때문이다.

65) 그러나 현직 교사의 의견은 이와 다른 경우가 많았다. 조영옥 남한고등학교 교감(2009. 7. 20.)은 “다양성 측면에서는 국정 교과용도서의 검정 전환에 찬성한다. 그러나 몇몇 과목에 한해서는 내용상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다.

66) 김균홍 교사(포항중양여자고등학교, 2009. 8. 25.)는 “전면 개편하는 교과용도서는 제작비가 많이 들고, 검정 심사비가 비싸며, 검정 심사를 단기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의 질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문제점을 시사하였다.

67)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인제 박사는 “아직 우리나라의 출판사는 참고서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용도서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며, 교과용도서 시장도 참고서 시장과 연결하여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용도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하에 교과용도서만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가 아니더라도 출판사 안에 교과용도서 전문 편집국이라도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였다.

검정 교과용도서의 집필에 참여했던 현직 교사는 “교과용도서 전문 출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이합집산식의 편집자 및 집필자 구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용도서를 개발하는 회사 내에서 교과용도서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팀을 두고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넷째, 교과용도서 채택에 있어 여러 교과용도서의 견본을 살펴보면서 각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 검토한 다음 신중하게 교과용도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채택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현재 검정을 통과한 교과용도서를 전시하고 채택하기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 정도(그나마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소규모 학교에서는 개별 교사가 여러 책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는 편이다. 현직 교사들(이재민 외, 광주중앙고등학교, 2009. 6. 23.)은 공통적으로 “2주 정도 되는 시간에 적게는 6~7개 정도의 교과용도서를, 많게는 20개에 달하는 교과용도서를 자세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내용까지 비교하는 어렵고, 전체적인 분위기나 탐구 활동 정도를 비교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섯째, 교과용도서 채택 과정에 학부모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등 민간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없고, 결정권 또한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sup>68)</sup>

여섯째, 각 단위 학교별 교과용도서의 채택 심사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많은 책을 심사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채택 단위를 광역화하여 전문화된 심사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채택의 시간적 어려움으로 내용에 대한 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과용도서의 채택과 선정이 개별 학교가 아니라 권역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별 학교보다 학생 수를 감안하여 채택 단위를 광역화하여, 권역별로 교과

68) 현직 교사(김진자, 오금고등학교 외 대면 및 응답자 다수)는 “교과용도서의 질과 상관없이 각 출판사 영업 사원들의 로비에 의해 교과용도서의 선택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과용도서협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용도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수의 공론에 따라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sup>69)</sup>

---

69) 각 단위 학교에서 교과용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못한 채, 교과용도서를 채택함으로 인하여 질 낮은 교과용도서를 자연 도태시키는 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 있다. 특히, 공립학교 교사들은 전근을 가기 때문에 교과용도서 채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

## IV.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검정 및 채택 제도의 개관

### 1.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제도

#### 가. 우리나라에서의 교과용도서

우리나라만큼 교과용도서<sup>70)</sup>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중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교과용도서를 접하지 않는 일반인까지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는 “교과용도서는 성전(聖典)이 아니고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 자료의 하나일 뿐”이라는 개념<sup>71)</sup>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그 교육적 의도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무모한 시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교과용도서는 그야말로 ‘성전’일 수밖에 없으며, 교과용도서의 내용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불문하고 금과옥조(金科玉條)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과용도서가 차지하는, 이처럼 거의 절대적인 비중에 대해 교육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그러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의 연구들이 교과용도서의 개선으로 이어지지지는 못하였다.<sup>72)</sup>

---

70)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용도서’에 대한 정의이다. 이와 같은 ‘교과용도서’의 법률적 정의는 점차 “학생들이 배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교과 영역의 학습 내용을 책자로 엮은 것” 또는 “국가의 교육 이념이나 목표를 구현하는 수단이며 도구인 동시에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자료” 등으로 교과용도서의 가치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71) “교과용도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교수·학습을 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교과 영역의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은 책자이다.” - 홍웅선(1979). ‘교과용도서의 역할과 기능’, 한국교육개발원

72) 한국교육개발원 사회과 연구실의 보고(1977)에 의하면, “교과용도서를 ‘학생들이 지니고 스

교과용도서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진다. 첫째는 꼭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는 일이고, 둘째는 지적 발달을 자극하고 촉구해 주는 일이다. 교과용도서는 여러 가지 학습자료 중의 하나로 그 위치가 달라져가고 있다. 적은 양의 지식을 통해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발견, 창조해낼 수 있게 하는 효능을 가져야 좋은 교과용도서가 되는 것이다.<sup>73)</sup>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정책은 시대에 따라 다소 기복은 있지만, 국가가 주관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과목당 획일적인 교과용도서 발행을 근간으로 한 국정제와 제한된 종수 범위 내에서 심사 통과된 교과용도서에 한하여 발행을 허용하는 검정제가 중심이었다. 이것은 교과용도서 발행에 관한 국가의 통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한 교과용도서관’<sup>74)</sup>의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스로 탐구해 나가기 위한 ① 교재 내용의 일중, ② 자료의 일중, ③ 학습 방법의 지침, ④ 일반 수업 절차의 지침 등’으로 간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용도서 자체의 빈약성, 학급 인원의 과다, 빈약한 교구 시설, 자료의 부족, 교사의 지도 능력 문제 등으로 교과용도서를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73) 교과용도서관의 변화

~에서	~으로
주어지는 교과용도서	선택되는 자료
틀에 박힌 인간	창의적인 인간
권위 있는 내용을 담은 책	교육과정 자료
획일성	다양성
규제	자유

곽병선 · 이혜영,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2005. 02.

#### 74) 곽병선의 단한 교과용도서관

- 교과용도서 내용은 절대적으로 바른 것이고 따라서 누구에게나 그것이 옳은 것으로 습득되어야 하는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 교과용도서를 소중히 여기는 서적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일방적인 것이 되기 쉽다.
- 이러한 특성들을 통하여 교과용도서의 내용에만 정통한 인간이 길러지기 쉽다.

교과용도서관(觀)은 이제 ‘열린 교과용도서관’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새 교과용도서를 편찬할 때 발표되는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교과용도서라는 보도 자료를 보면 교과용도서관의 변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IV -1>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대하는 교과용도서<sup>75)</sup>

	전통적인 교과용도서	바람직한 교과용도서
교과용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과옥조형 교과용도서</li> <li>· 교과용도서 중심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li> <li>· 지적 영역 중심의 교과용도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자료 중의 하나인 교과용도서 지향</li> <li>· 교육과정 중심 학교 교육에 적합한 교과용도서</li> <li>· 기능·태도 영역에 유의하고 창의력·사고력 배양 강조</li> </ul>
진술 형태	· 지식 요약형, 개념 압축형, 강의 요강형 교과용도서	· 다양한 사실·사례 제시형, 학습 과정(절차와 방법) 중시형 교과용도서
단원 전개	모든 교과용도서에 하나의 전개 체제 적용	단원주제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전개 체제 적용
내용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 중심, 교사 중심의 내용 선정</li> <li>· 교과용도서 내용의 실생활과의 유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 개념과 관련된 실생활 경험, 사례 중심, 학생 중심 내용의 선정</li> <li>· 교과용도서 내용의 실용성, 유용성 추구</li> </ul>
내용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 체계별 단선형 조직</li> <li>· 문장과 삽화의 단조로운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지식과 실생활 경험을 통합하여 조직</li> <li>· 다양한 편집 체제의 도입</li> </ul>
연구 개발 과정	기초 연구가 소홀히 된 교과용도서	기초 연구를 보다 중시한 교과용도서

75) 광병선·이혜영,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2005. 02.

그러나 이러한 ‘기대하는 교과용도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오랫동안 거의 그대로 제시되어온 것이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가 교육과정의 개정을 겪으면서도 기대한 만큼 변화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교과용도서는 어디까지나 ‘그릇’, 즉 도구이다. 교과용도서에 실린 모든 지식은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고 가장 확실한 지식이나 가장 불가결한 기능도 아니다. 단지 특정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배워야 하고 배울 수 있는 지식 또는 기능의 대표적인 것일 뿐, 모든 지식과 기능적인 내용을 교과용도서에 담아낼 수는 없다.

단지, 그것을 배움으로써 학습자가 다른 지식과 기능을 개방적·자율적으로 배워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가 메마른 지식 체계로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생생한 경험이 그것을 배우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생동감과 현실감을 지닌 자료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sup>76)</sup>

## 나. 교과용도서의 편찬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 및 지도서를 ‘교과용도서’라 한다. “‘교과용도서’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을, ‘지도서’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77)</sup>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는 국정도서와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나뉘며, 학교(교사)에서는 그러한 교과용도서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sup>78)</sup> ‘국정도서’란 ‘교

76) 교육인적자원부(2000). 「교과서백서」, p.2

77) 대통령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78)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중에서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관한 조항(제3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을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

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검정도서'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인정도서'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 (1) 국정제

국정제는 국가에서 직접 교과용도서를 제작, 발행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 발행제(government-issued textbook system)라고도 한다. 교과용도서 개발 절차는 통상 저작 → 심의 → 발행의 과정을 거쳐 제작되며, 교과용도서로서의 승인자와 채택자 모두 교과용도서 발행자인 국가가 된다.

교과용도서 채택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교과용도서 저작의 근거인 '교과용도서 기준'이 곧 채택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정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정도서에는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와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및 고등학교 전문 교과 of 일부 교과용도서 등이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국정 교과용도서의 연구·개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모를 통해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하여 개발을 위임하고 있다.

한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에서는 국정도서가 대폭 검정으로 전환되었는데, 7차 교육과정에서 국정도서였던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및 초등학교 영어 교과용도서(3~6학년) 및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 교과용도서 등이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

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검정제

검정제(textbook authorization system)는 민간이 먼저 교과용도서를 제작한 후에 권위를 가진 기관에 심사를 받고 적정한 기준에 합격하여 통과되면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민간이 먼저 제작한다는 점은 인정제와 동일하나 검정 교과용도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도서만 교과용도서의 지위를 얻어 발행된다는 점이 인정제와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 역시 검정 교과용도서 저작의 주체는 민간(저작자 또는 출판사)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국정 교과용도서와는 다르지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정 심사를 받아야 교과용도서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면 국가가 교과용도서 발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검정도서 저작의 근거는 교육과정과 검정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검정 기준 발표 → 저작(민간) → 검정 → 발행의 절차를 거쳐 교과용도서가 발행되며, 교과용도서로서의 검정·승인자는 검정 기관인 국가이다. 교과용도서의 채택자는 대체로 학교 또는 지역 교육청이 되는데, 학교의 경우 교사가 선정하여 교장이 최종 결정하거나 학교의 교과용도서 채택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며, 지역 교육청의 경우 시·군 또는 시·도의 교육위원회가 채택권을 가진다.<sup>79)</sup> 초등학교에서부터 검정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는 일본과 독일 등이 있다.

## (3) 인정제

인정제(textbook adoption system)는 민간이 제작, 발행한 도서에 대하여 지방 자치 단체 교육청이나 국가의 교육부에서 교과용도서로 인정한 후 목록을

---

79)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법 중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제32조(기능)에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검정 교과용도서를 학교 단위에서 채택할 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정하여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정제 교과용도서의 발행자는 민간(또는 저작자)이며, 교과용도서는 저작 후 발행되어 지방 자치 단체나 지방 교육청의 교과용도서로 '인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저작 → 발행 → 인정의 절차로 교과용도서가 발행되며, 승인자는 국가 또는 지방 교육청, 학교의 교과용도서 인정위원회이다.

우리나라에도 인정도서가 널리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정제와는 달리 국정도서나 검정도서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인정제는 검정제와 유사한 제도로 인정 심사는 검정 심사와 유사하며, 대부분의 인정 업무가 사·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

#### (4) 자유 발행제

자유 발행제는 일반도서의 출판 원칙을 교과용도서 발행에도 적용하여 국가가 교과용도서의 저작, 발행, 채택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자유 발행제에서 교과용도서의 저작자는 민간(출판사 또는 저작자)이며, 교과용도서 저작의 근거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체의 교육과정과 저작자의 학문적, 교육적 필요이다. 교과용도서는 저작 후 심의, 검정 절차 없이 발행되며, 발행 후에도 교과용도서로서의 특별한 인정 절차 없이 교사들에 의해 교과용도서로 인정, 채택된다. 교과용도서 채택의 근거는 출판사별 교과용도서 목록과 선택자들의 자유 의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용도서 자유 발행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다. 자유 발행제 하에서도 교과용도서를 제작할 때에는 그 근거로서 교육과정을 참고한다는 점은 인정제와 같으나 인정제는 해당 국가나 지방 자치체에서 교과용도서로 사용될 수 있는 책으로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는 제도인 반면, 자유 발행제는 출판사에서 발행된 책을 학교 단위에서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이 다르다. 영국의 경우가 전통적으로 자유 발행제를 유지해 온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 다. 교과용도서 제도의 변천 과정

### (1) 광복 이후부터 제1차 교육과정 이전

일제 강점기에 출판을 규제했던 출판법이 미군정 초기에 폐지됨에 따라 민간인에 의한 다양한 종류의 교과용도서가 편찬, 발행되는 ‘교과용도서 자유 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불식하고 국가 교육을 재건하기 위해 1945년 9월에 발족된 조선교육심의회 제9분과 위원회가 교과용도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어 교과용도서를 비롯한 각종 교과용도서 편찬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 교과용도서 편찬 발행 상의 주요 특징은 1948년 8월 건국과 함께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과 검정 교과용도서의 발행이 늘어났지만, 민간인의 자유로운 교재 개발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간인에 의해 자유 발행되던 교과용도서 발행 체제는 미군정 체제가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초등의 모든 교과용도서와 중등의 국어 교과용도서는 국정으로, 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중등 교과용도서는 검정으로 발행되었다.

### (2) 제1차 교육과정 시기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초등학교·중학교·사범학교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1955년 8월 1일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1955년부터 1958년까지 연차적으로 교과용도서 개편 작업이 시작되었다. 당시 교육법에 의해 국정과 검정은 정규 교과용도서로 하고, 인정 교과용도서는 보조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초등학교는 국정 교과용도서를 원칙으로 하였고, 중등학교는 국정(중·고등학교 국어, 중학교 도덕, 고등학교 도덕, 중학교 농업·상업·공업·수산업), 검정(국정을 제외한 교과목), 그리고 인정(각 교과목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충, 심화한 학생용 도서) 교과용도서를 병용하였다.

특히, 이 당시의 검정 체제에서는 교과용도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교과용도서를 수시로 심사하고 허가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출판업계의 교과용도서 개발의 붐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과용도서의 치열한 판매 경쟁과 채택의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 (3) 제2차 교육과정 시기

1963년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과 더불어 가능한 한 검정 교과용도서를 줄이고 국정 교과용도서를 늘리는 국정 중심 교과용도서 체제가 형성되었다.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의 검정제를 전면 폐지하였고,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종전의 검정제의 무제한 인가 방침에서 1교과목당 7종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제한 조치는 교과용도서 판매 경쟁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제거하고 교과용도서 가격을 낮추어 학생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 아래에서 단행되었다.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검정 교과용도서 종수를 제한하고자 노력하였다. 중학교의 국어, 실업, 반공·도덕 교과, 인문계 고등학교의 국어, 국민윤리 교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국어, 사회 등 일반 교과목 전부와 발행 부수가 적은 전문 교과 대부분이 국정으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검정 교과용도서의 경우는 중학교 9개 교과 13개 과목, 고등학교 13개 교과 38개 과목만 발행되었다.

### (4) 제3차 교육과정 시기

1968년에 선포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과 1972년에 선언된 유신 이념의 구현을 위해 1973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당시 유신 정권의 교육과정 체제는 국가의 지도 이념을 강력하게 반영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의 통제를 이전보다 더 강화하였고, 따라서 국정 교과용도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국민정신 교육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검정이었던 국사 교과용도서와 중학교의 전 교과는 국정화되었고, 사회 교과용도서가 단일본

으로 편찬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교과용도서를 검정화했을 경우 국가의 지도 이념을 교육에 강력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정치 논리와 일선 학교에서 교과용도서를 단일본으로 사용했을 경우 수험 준비에 편리하다는 현실 논리가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작동되었다.

1977년 ‘검정 교과용도서 파동(검정 교과용도서 탈세 사건)’으로 교과용도서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종전의 ‘교과용도서 검정령’이 폐지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공포되었다(1977. 8. 22.). 그리고 문교부 편수국에서 가지고 있던 국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상당 부분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국정 교과용도서의 저작권은 교육부가 가지되, 한국교육개발원을 위시한 전문 기관이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교과용도서를 연구, 개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79년부터는 국정도서를 1종 도서(연구 개발형)로, 검정도서를 2종 도서(자유 경쟁형)로 새롭게 명명하였다. 당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1종 도서의 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실업계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및 지도서,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국민윤리, 국사 등이 있었다. 그리고 검정 합격 종수는 종전의 1교과목당 7종에서 5종으로 줄어들었다.

#### (5) 제4차 교육과정 시기

1980년 정부가 초·중등 학생의 개인 과외나 학원 수강을 금지한 7·30 교육개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되었다. 이때, 교육과정 개발 방식이 문교부 편수관들에 의해 주도된 ‘행정적 모형’에서 ‘연구 개발형’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교과용도서 개발의 주도권이 문교부 편수국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기관과 대학 등으로 본격적으로 이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획일적인 교과용도서 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1982년 3월 11일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1종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축소하고, 2종 교과용도서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당시 1종 도서로는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용도서와

지도서, 중학교의 국어, 도덕, 국사 교과용도서(중전에는 모든 교과용도서와 지도서가 1종이었음.), 고등학교의 국어, 국민윤리, 국사 교과용도서와 지도서(중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용도서와 지도서가 1종이었으나, 이제는 인문계와 동일함.)가 있다.

이 당시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문교부의 위탁을 받아 개발하였으며, 중등학교 검정도서의 합격 종수는 1교과목당 5종으로 중전과 동일하였다. 검정도서의 출판사의 자격을 ‘최근 3년간에 5종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에서 매년 10종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으로 강화하여 교과용도서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였다. 또, 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용도서와 고등학교 자유선택 과목인 철학, 교육학 교과용도서 등을 인정도서로 개발하였다.

#### (6) 제5차 교육과정 시기

1986년 문교부가 특기할 만한 외부적인 사건 없이 교육과정 개정을 결정하고, 현행 교육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한다는 ‘부분 개정’의 방침을 설정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방침 중의 하나로 ‘교육과정의 지역화’가 강조됨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2중화’, ‘교과 단원의 지역화’, ‘교재 활용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용도서의 1종 도서화’를 지양하면서 ‘1교과 다교과용도서 정책’이 최초로 도입되어 교과용도서 이외의 읽기 자료, 연습 자료, 보충·심화 학습 자료 등 별도의 보충 교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국어는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산수는 산수, 익힘책 등 각 교과마다 2~3종의 교과용도서들이 개발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교과용도서에 처음으로 시·도별로 지역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지역별 교과용도서, 즉 ‘인정’ 교과용도서가 개발되었다. 또, 검정 합격 종수는 중학교의 경우 5종으로 중전과 동일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5종에서 8종으로 확대되었다.

### (7) 제6차 교육과정 시기

민주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교과용도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분출함에 따라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도 1종 도서 중심에서 2종 도서 중심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1종 도서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목 중 국어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 및 지도서로 제한하였고, 나머지는 2종 도서로 대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법령의 추가 개정 없이 국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이 원칙상 검정제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검정 심사에서 불합격한 도서의 검정 재신청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1차 검정에 불합격한 2종 도서의 경우 불합격의 이유를 출판사나 저자에게 통지하였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정하여 재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2종 도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교과용도서 검정 과정 자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초등학교의 경우 영어를 제외한 전 교과(총 9개 교과), 중학교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국사 포함), 컴퓨터, 환경의 총 5개 교과,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 14개 과목, 전문 교과 378과목이 1종 도서에 해당된다. 또, 2종 합격 종수는 중학교의 경우 종전의 5종에서 8종으로 확대되었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절대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합격 종수의 제한이 폐지되었다. 그 결과 교과별로 합격 종수가 달라졌으며, 특정 교과의 경우 최대 18종까지 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 (8) 제7차 교육과정 시기

제6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종수 제한 폐지에 이어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중학교 교과용도서 검정 합격 종수 제한이 폐지되었고, 검정 방식이 종전의 일괄 검정에서 학년별, 연차별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즉, 종전의 검정 방식은 중학교 1, 2, 3학년을 한 해에, 그리고 고등학교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다음 해에 동시 검정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기에는 중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검정을 실시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기본·일반·전문 과정과 심화 선택 과목을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검정하였다.

그리고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고등학교 교과목 중 변화 속도가 빠른 컴퓨터 관련 과목이나 개별 교육이 가능한 체육, 예술, 국제에 관한 78개의 전문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를 당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편찬이 완료된 2002년 6월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바뀔에 따라, 우선 교과용도서 구분의 명칭이 종전의 1종 도서는 국정도서로, 2종 도서는 검정도서로 다시 환원되었다. 그리고 국정도서의 의미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로 개정되어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모든 교과용도서가 검정제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 (9) 2007년 6월 20일에 발표된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는 ‘양질의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07년 2월 28일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학문의 발달에 맞게 교과용도서 제도를 수정, 보완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정책 연구(2003~2004년), 설문 조사 및 의견 수렴, 공청회(2004~2006년), 교육혁신위원회와의 협의(2007)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의 주용 내용에는 현재 국정도서인 초등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중등 국어, 도덕, 역사를 검정도서로 전환하는 것을 비롯하여 교과용도서 질 관리 체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80)</sup>

80)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과용도서 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발표된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민간의 교과용도서 개발 참여가 활성화 되고 양질의 다양한 교과용도서가 개발, 보급되어 학교 현장의 창의적인 교수·학습 풍토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

교과용도서 검정은 민간 출판사와 저작자가 편찬한 도서를 학교에서 교수·학습용 도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교육과학기술부나 그 위임을 받은 공공성 있는 기관이 판단하는 절차이다.

- 
- ① 다양한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하여 초, 중등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을 확대하였다.
    - 초등학교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를 검정으로 전환하였다.
    -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국사를 검정으로 전환하였다.
  - ② 오류 없는 검정도서 개발을 위하여 검정 방식을 개선하였다.
    - 그 동안 교육과정이 개정되어야만 교과용도서 검정이 이루어졌으나,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연중 정해진 시기에 교과용도서를 검정할 수 있도록 ‘매년 상시 검정제’를 도입하였다. 교과용도서 사용 연한을 5년으로 한정하고, 5년이 경과하면 정기적으로 검정하는 주기적 정기 검정제를 도입하여 학문 발전과 시대 변화를 저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검정 기준 및 판정 원칙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검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교과용도서 개발의 자율권 신장을 위하여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를 확대하였다.
    - 다양한 교육 내용이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교과용도서 개발의 자율권 시장을 위하여 자율 학교에 국민공통기본교과목 이외에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계, 기타계고의 전문 교과목에 ‘인정도서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를 확대하였다.
  - ④ 교과용도서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하여 교과용도서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하였다.
    - 교과용도서의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교과용도서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교과용도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편향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교과목의 경우 국정도서는 개발 단계에서 검정도서는 검정 단계에서 전문 기관의 감수를 받도록 하는 전문 기관 감수제를 도입하였다.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각 학교급별로 교과용도서를 개발, 보급하게 된다.

## 가. 검정 심사 기본 원칙(검정 기준)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검정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sup>81)</sup> 이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검정 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심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안을 마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과목 또는 도서별 도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검정 심사 기본 원칙(이하 검정 심의 기준)을 따른다. 확정된 검정 심의 기준은 검정 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교과용도서 저작·편집자들이 이를 숙지하고 교과용도서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sup>82)</sup>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검정 교과용도서의 심의 기준은 공통 기준, 교과 공통 기준 및 교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평가해야 할 요소만을 제시하며, 각 교과는 이 기준을 토대로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용도서와 지도서의 교과 기준을 선정하게 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공통 기준은 모든 교과용도서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으로, 심사 영역은 Ⅰ. 헌법 정신과의 일치, Ⅱ. 교육기본법·교육과정과의 일치, Ⅲ. 저작권 위배 여부, Ⅳ. 내용의 보편타당성의 4가지 영역으로 제시되고, 여기에 5가지의 세부 심사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sup>83)</sup>

---

81) 교과용도서 검정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에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동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제1항에서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동법 제29조 2항에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구체적인 범위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6조(검정도서)에서 “검정도서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정도서 이외의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82) 제7조(검정 실시 공고)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정할 교과용도서의 종류, 신청자의 자격, 신청 기간, 검정 기준, 편찬상의 유의점, 심사본의 제출 부수, 검정 수수료 및 그 납부 방법, 그 밖에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교과목별 기준은 각 교과에 특성에 부합되는 기준으로, ‘교과용도서 및 지도서 공통 기준’과 ‘교과별 교과용도서 및 지도서 기준’으로 나뉘어 제시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검정 기준은 공통 기준과 교과 공통 기준으로 구분된다. 공통 기준은 법규범의 준수, 내용의 보편성 등 교과용도서가 갖추어야 할 필수 기본 조건이므로, 심사 판정도 ‘있다, 없다’로 한다. 이 기준은 질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준수 여부만 판단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공통 기준의 어느 한 항목이라도 위반한 도서는 부적격 도서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헌법과 법률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학계의 통설 및 사회적 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 83) 공통 심사 기준

심사 영역	심사 관점
I. 헌법 정신과의 일치	1.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기본 이념 및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3.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II. 교육기본법 및 교육과정과의 일치	4. 국가의 교육 이념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있는가? 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및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가?
III. 지적 재산권의 존중	6. 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이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IV. 내용의 보편타당성	7. 학문상의 명백한 오류나 관련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 기준」, p.82.

〈표 IV-2〉 교과용도서 공통 심사 기준(컴퓨터 일반)

심사 영역	심사 관점
I. 교육과정의 준수	1.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II. 내용 선정 및 조직	2. 내용의 수준과 범위는 학습자의 특성에 적절하고, 내용의 중복이나 비약이 없도록 전후 학년 및 다른 교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는가?
	3.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과 내용 요소를 충실히 제시하였으며,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의 각 단위 간 비중은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직되었는가?
	4. 학습량은 적정하며, 학습자 주도의 문제 해결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학습 내용을 제시하였는가?
	5. 문제 해결과 관련된 개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례와 과제를 제시하였는가?
	6. 사진, 삽화, 통계, 도표 및 각종 인용 자료 등은 공공성이 있는 최신의 것으로서, 본문의 설명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출처를 분명히 제시하였는가?
III. 창의성	7. 단원의 도입, 전개, 정리, 평가 등 일련의 학습 과정을 창의적으로 전개하였는가?
	8.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논리적 사고력과 탐구력,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참신한 소재를 선정하여 구성하였는가?
	9. 교수-학습 과정과 활동을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IV.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10. 제시한 사실, 개념, 이론, 사례 등은 최신의 것으로 정확하며, 그 의미를 학생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였는가?
	11. 특정 지역, 인물, 성, 상품, 기관, 종교 등을 비방왜곡 또는 옹호하지 않았으며, 편견 없이 공정하게 기술하였는가?
	12. 관련 전문 용어는 적절하며,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
V.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13. 교과 교육 목표와 내용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및 과제를 제시하였는가?
	14. 정보 기술, 멀티미디어 등의 교육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교수학습과 관련된 각종 참고 자료를 제공하였는가?
	15. 교과 학습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활용 방법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16.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 일관된 평가 방법과 과제를 제시하였는가?
	17. 원리, 개념, 지식, 기능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과 탐구력,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 및 과제를 제시하였는가?
VI. 표기표현 및 편집	18. 한글, 한자, 로마자, 인명, 지명, 용어, 통계, 도표, 지도, 계량 단위 등의 표기는 정확하며, 편찬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기준을 충실히 따랐는가?
	19. 오타자, 문법 오류, 비문 등 표기·표현상의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술하였는가?
	20. 편집 디자인 및 지면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구성하였는가?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 기준」. pp.112 ~ 113.

## 나. 검정 기구

우리나라 검정 업무의 주관은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운영하여 왔으나,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용도서 검정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조하여 실시하고 있다.

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은 검정관리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나뉘어 구성된다. 검정관리위원회는 검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회는 교사, 교수, 교육과학기술부 편수 담당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이 참여하는 연구 위원과 검정 위원으로 구성된다.

검정관리위원회는 검정관리위원장이 임명하고, 연구 위원과 검정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촉한다. 심의 위원 위촉은 비공개로 하며, 그 인적 사항은 비밀로 한다.

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 기간은 심사 대상 학년의 교과용도서 및 지도서 검정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하며, 각 심의회는 5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한다.

### (1) 검정관리위원회

검정관리위원회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검정 과정 전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검정 담당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으로 구성된다.<sup>84)</sup>

#### 84) 검정관리위원회의 구성

직책		역할
위원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검정 업무 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 총괄
부위원장	교과용도서연구본부장	총괄 업무 추진
위원	검정 조정 위원	· 위원장의 업무 보조 · 운영 본부 개설 기획 및 사전 준비

## (2) 검정심의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는 연구 위원과 검정 위원, 간사로 구성되어 있다.

### (가) 연구 위원

연구 위원은 검정 신청 교과용도서의 내용과 외형 체제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교과목별, 신청 도서별로 보고서로 작성하여 본 심사의 교과별 검정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나) 검정 심의 위원

검정 심의 위원은 1차 심사에서 부적격/적격본 판정 및 수정·보완 요구 사항을 지시하고, 2차 심사에서는 수정·보완 사항 확인 및 적격 도서를 판정한다. 마지막으로 재수정·보완 심사를 통해 재수정·보완 사항 확인 및 최종 적격 도서를 판정한다.<sup>85)</sup>

	연구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정 관련 사항 연구, 개발</li> <li>· 검정 위원, 연구 위원의 추천, 활동 지원</li> <li>· 검정 신청 업무 지원</li> <li>· 교과용도서 제반 문제점 검토</li> </ul>
지원팀	팀장	행정 지원 총괄
	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본부 계획 및 시행</li> <li>· 검정 관련 사무용품 관리 및 구입 의뢰</li> <li>· 행정 실무 담당, 검정 업무 진행 지원</li> <li>· 각종 공문서 및 서식 전산 업무 처리</li> <li>· 합숙 심사 시 출입자 통제 관리</li> </ul>

#### 85) 교과 검정심의 위원장과 교과 검정심의 위원의 역할

구분	역할	내용
교과 검정심의	심의회 활동을 대표하	· 심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다) 간사·운영 팀

간사<sup>86)</sup>는 검정 업무 준비, 위원 연수 담당 등의 업무를 맡고, 운영팀은 연구 지원팀과 행정 운영팀으로 나뉜다.

(3) 검정 기구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과용도서 발행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검정심의위원회는 기초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 위원과 적격/부적격을 판단하는 검정심의 위원, 그리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장	며 업무 총괄	있도록 위원회 운영 · 심의 위원들에게 역할 배분, 일의 진행을 점검 · 심의 결과 처리의 적합성 확인 · 심의 결과 서류 확인
	분과별 심의 시 분과 및	심의 위원 간의 균형 유지
	적격/부적격 도서 판별 협의회 주관	판별: 검정심의 위원 전체 협의체로 운영 → 위원 전체 2/3 의견에 따라 결정
교과 검정심의 위원	제반 규정에 따라 검정 신청 교과용도서(집필 계획서 포함) 1, 2차 심의	준거: 교육과정, 집필상의 유의점, 검정 기준
	적격/부적격 도서 판정	· 검정심의 위원 합의를 거쳐 1차 및 2차 심사 결과 에 따라 적격·부적격을 판정함. · 부적격 도서에 대한 판정 이유서 작성 → 검정심 의 위원 전체 명의로 함. · 수정·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수정·보완 요 구서를 작성함. · 수정·보완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검정 신청자 의 의견을 심사함.

86) 간사는 ‘기초 조사’, ‘1·2차 심사’에 교과별로 1인을 둔다. 기초 조사 간사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1·2차 심사는 교육과학기술부 교과 담당이 한다.

간사·운영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몇 번의 합숙을 통하여 집중적인 검정 심사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은 효율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나친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보다는 상시 체제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공개적으로 검정이 이루어져서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다. 검정 대상 및 검정 신청의 주체

### (1) 검정 대상

우리나라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용도서와 지도서<sup>87)</sup>를 검정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검정은 기본적으로 미성숙한 학생의 교육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검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도서만이 검정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sup>88)</sup>

지도서는 교과용도서를 학생에게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도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검정의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를 해석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도서를 검정

---

87) 우리나라에서 지도서를 검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교과용도서와 달리 발행사들이 지도서에 투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 허술한 지도서보다는 참고서와 문제집을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전략을 막기 위함이다. 이러한 참고서와 문제집이 교육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지도서의 충실함을 검정하는 검정 심사가 유지되었던 것이다. 지도서의 검정 심사는 발행사들의 교재 출판이 지도서 → 참고서 → 문제집으로 이어지던 꼬리를 끊고, 대신 교과용도서 → 지도서 → 각종 원전 또는 보완 교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볼 수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2000). 「교과용도서백서」. p.127

88) 국가가 검정의 권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원칙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세금인 재정을 이용하는 교육 기관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과용도서가 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를 획일화시키고,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발행사들은 교과용도서에서 들어는 노력에 비해 지도서에 들어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영성하다. 지도서는 교과용도서를 편찬한 발행사의 후속 서비스 차원에서 발행되고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교재출판의 전문화가 이루어진다면 교사용 지도서는 검정 심사 대상이기보다는 인정도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현재 중·고등학교 검정도서의 지도서는 인정심의위원회의의 심의 없는 인정도서로 발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이러한 논리는 우리의 현실과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간 검정도서 발행사들이 지도서를 매우 영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 후속 작업으로 각종 참고서와 문제집 등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참고서와 문제집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사설 학원과 개인 교습에 이용되도록 조장해 왔던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과용도서와 달리 양질의 지도서를 제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큰 문제점이다. 1년 이상의 개발 과정을 가진 교과용도서와 달리 지도서는 검정 심사 합격 이후 약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에 양질의 지도서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 (2) 검정 신청의 주체

검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 및 지도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기 위하여 그 원고를 집필한 자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sup>89)</sup> 그러나 이 규정은

---

89) 2004년 6월 19일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제8조(검정 신청)

검정 신청은 그 원고를 집필한 자(이하 “저작자”라 한다) 또는 발행자가 하거나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한다.

→ 이 법령은 출판사도 검정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치는 출판사도 참고 도서를 판매하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되며, 사명감을 가지고 교과용도서 발행에 적극

2004년에 개정된 것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대표 저작자가 검정 신청의 주체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144호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 저작자, 발행자, 저작자와 발행자 공동		
· 발행사 요건		
▶ 검정 출원일 현재 교과목별 편집 인력 및 출판 실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교과목	편집 인력 기준	출판 실적 기준
국어, 영어, 수학	검정 출원 과목 관련 편집 전문 인력 5명 이상	지난 3년간 검정 출원 과목 관련 도서 5책 이상
기타 교과목	검정 출원 과목 관련 편집 전문 인력 2명 이상	지난 3년간 검정 출원 과목 관련 도서 2책 이상
▶ 검정 출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자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저작자 요건		
▶ 검정 출원일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검정위원 임기(2년) 중이 아닌 자		
▶ 2인 이상의 공동 저작인 경우 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함.		
▶ 동일 학년(학기) 동일 교과목의 검정 대상이 복수인 경우(교과서가 2책 이상이거나 지도서 또는 전자 저작물이 검정 대상인 경우) 그 저작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 검정 출원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사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라. 검정 절차 및 검정 소요 기간, 검정 결과

### (1) 검정 절차

검정도서의 검정 과정은 <표 IV-3>과 같다.

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3> 교과용도서 검정 진행 과정

단계		심사 내용	조건	비고
심사본 접수 (검정관리위원)		· 심사본 제작 형식 · 심사본 제출 부수 · 각종 서류 · 수수료 납부 확인	제출할 서류 종류 및 내용 확인	단순 미비 사항은 보완한 뒤 재접수
기초 조사 (연구위원)		· 내용 조사 · 국어 표기 조사 · 어휘 검색 · 편집 디자인 분석	조사 보고서는 본심사의 필수 준거 자료가 됨.	
본 심사 (검정위원)	적격/ 부적격 판정	[공통 기준] 적용 · 헌법 준수 · 교육법, 교육과정 준수 · 저작권 준수 · 내용 타당성  [교과 기준] 적용 · 교육과정 준수 · 내용 선정 및 조직 · 교수·학습 방법 · 표현·표기 · 편집 및 외형 체계 · 독창성	[제척 사유] → 심사 판정 5개 항목 중에서 ‘있다’는 판정은 받은 도서는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교과 기준심사에서 제외시킴.  → 항목별 채점-채점 요소를 참고하여 채점한 뒤 총점과 A, B, C의 평점 부여, C가 두 개 이상인 교과용도서는 부적격으로 판정함.	과목별 합격 총수는 교과 검정위원회가 결정함.
적격 도서 수정 보완 지시		수정·보완 지시 사항 이해 여부 확인	지시 사항 미수정 도서는 부적격 판정	부적격 도서 이의 제기 ▶ 이의 제기 심사 ▶ 이의 제기 발표
지도서 심사		→ 교과용도서와 같은 과정으로 검정 실시	지도서 불합격 시 교과용도서 합격도 취소	
최종 판정(검정위원)		· 교과용도서와 지도서 종합 판정 · 적격/부적격	교과용도서와 지도서가 모두 합격된 경우에만 최종 합격본으로 인정함.	
합격본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2) 검정 소요 시간

제6차 교육과정까지 검정 교과용도서 개발 시 중학교 1, 2, 3학년은 한 해에, 고등학교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은 다음 해에 동시에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용도서, 고등학교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교과용도서를 동시에 개발하려다 보니 집필 기간이 부족하여 교과용도서 질 향상에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7차 검정 교과용도서 개발 시에는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필수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을 연차별로 검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연차별 검정은 집필자에게 보다 많은 집필 기간을 주어 교과용도서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검정 2차 연도를 거치면서 1학년 교과용도서에는 합격되고 2학년 교과용도서가 불합격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학습자의 학습에 연속성이 없어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점을 거쳐 왔다. 그러나 2학년의 교과용도서가 불합격이었다고 하여 1학년의 합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90)</sup>

우리나라는 교과용도서의 검정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되면 검정 공고를 해서 검정 신청을 받은 후에 실시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용도서 사용 1년 전부터 학년별, 연차적으로 검정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검정 심사 절차 및 검정 심사 시기는 시대적인 상황이 빠르게 반영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권의 교체기마다 교육과정이 바뀌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검정도서의 부정적인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

90)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0조 2항에 “하나의 과목에 검정 교과용도서가 2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검정 교과용도서로서 부적합하면 그 신청자가 신청한 당해 교과목의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검정 시기가 다른 경우로서 뒤에 신청한 도서에 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도서의 합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3) 검정 결과

검정 신청 교과용도서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에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격 도서가 된다. 한 과목의 교과용도서가 두 권 이상의 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어느 한 책이라도 부적합하거나 교과용도서와 지도서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격한 경우 그 저작자의 신청 도서는 모두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이때, 불합격 도서의 저작자는 재검정<sup>91)</sup>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받아 구제받을 수도 있다.

교과용도서 검정 결과 이후 검정의 공정성 측면이 제기되기도 한다. 교과용도서 검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교과용도서 검정 위원들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검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검정 결과의 공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검정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검정 기관에서는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겠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꼭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검정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었지만, 2004년 6월 19일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검정 제도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제7차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재검정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7차 교육과정에 있었던 재검정 제도는 저작자를 위한 배려로 볼 수 있지만, 재검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sup>92)</sup>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재검정 교과용도서는 교과용도서의 질적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재검정 교과용도서는 탈락한 이유를 보완해서 나름대로 독창성 있는 도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합격한 교과용도서를 모델로 해서 합격한 교과용도서와 유사한 교과용도서를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재검정 교과용도서는 합격이 되더라도 학교에 공급되는 경우가 검정도서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교과용도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합격과 동

---

9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4년 6월 19일) 제3조(재검정 제도의 폐기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한 재검정에 관하여는 이 영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92) 2001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재검정 제도에 대한 찬성 26%, 반대 49%의 결과가 나왔다.

시에 사장되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검정 제도의 폐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다. 검정도서를 만들기 위해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들이는 반면, 재검정 교과용도서는 검정 소요 기간이 짧아 제작 기간이 부족하다. 또, 같은 저자가 새로운 교과용도서를 다시 만들어 재검정 신청을 받는 것은 아이디어 부재 및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이어져 양질의 교과용도서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 3.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

#### 가. 교과용도서 채택의 법적 근거와 방법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에 관한 내용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교과용도서의 선정’에 명시되어 있다.

제3조의 ①항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로 명시되어 있다.

②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항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에서 사용할 검정도서를 선정함에 필요한 도서의 편찬 방법 및 내용 등 도서별 특징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항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구역 안에 신설되는 학교가 있는 경

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교가 사용할 검정도서 및 인정 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교과용도서 채택을 위한 위원회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학교에 따라 약간의 선정 기준이나 선정 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선정 위원을 두고 심의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개 교재 및 학습지 선정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인의 위원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1명)과 교원 위원(1명), 해당 과목 교과부장,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해당 학년부장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연구기획부장을 간사로 하되, 이때 간사는 결의권이 없다.<sup>93)</sup>

#### 나. 교과용도서 채택의 공정성 확보 장치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의 채택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번 정한 교과용도서는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정도서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으나, 검정도서의 경우 합격본이 교과용도서별로 다수이므로 어떠한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과용도서 채택은 각 학교별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세 가지 단계의 채택 절

---

93) 일본에서의 교과용도서 채택은 의무교육제 학교와 고등학교에 따라서 다른 방식이 취해진다. 그 이유는 의무교육제 학교에 있어서는 교과용도서의 무상 조치가 인정되고 있어 이 제도와 연동하여 광역 지역 채택 제도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행정 구역의 교육위원회에 채택의 권한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학교의 교사가 교장의 납득을 얻어 결정한다. 채택은 매년 행해지고 매년 교과용도서를 바꾸는 학교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채택은 실질적으로 교사가 교과용도서 채택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채택에 관한 규정은 의무교육제 학교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각 학교에 있어 교과용도서 채택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관리 규칙에 있어서 교과용도서 채택 규정에서 교과용도서 채택이 교사의 교육권에 속한다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차를 거치게 된다. 첫째, 동일 교과목의 전 교사가 참여하는 교과협의회에서 3종을 선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되고,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추천된 교과용도서를 심의하여 순위를 정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선정할 교과용도서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채택 과정에서 교과협의회는 추천 교과용도서의 우선순위는 부여하지 않고, 3종의 교과용도서를 선정하게 된다. 학교에서 당해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당해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협의하여 추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추천된 교과용도서의 체제, 삽화 및 사진의 내용, 배역, 선명도, 활자, 지질, 제책, 학생 사용의 편의성 등을 심의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 교사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다.<sup>94)</sup>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 합격한 검정도서를 선정 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청별 또는 학교별로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발행사의 연수회, 설명회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감, 교육장은 검정도서 선정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배포하며, 단위 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채택 권유 행위가 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sup>95)</sup>

94) '2종(검정) 교과용도서 채택 부조리 예방 대책'(서울특별시교육청, 2000년 10월 13일).

「좋은 교과용도서 채택은 좋은 수업의 출발점입니다.」. 전국교과모임연합. pp.10~11.

95) 일본은 교과용도서의 채택과 관련하여 교과용도서 발행자의 선전 활동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째, 발행자가 적정한 범위의 선전 활동을 하도록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독점금지법' 상에 근거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교과 사업에 있어서의 특정한 불공정 거래 방법'에 의해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 타 발행자에 대한 중상이나 비방에 대한 금지를 명하고 있다.

둘째, 문부과학성은 규제 조항을 바탕으로 공정한 채택 과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행자뿐만 아니라 채택권자에게도 시책을 통하여 지도 활동을 펴고 있다.

한편, 한국검정교과서협회는 각 출판사의 도서 선정을 위한 참고 자료가 과장된 표현이나 상대 도서, 저작자 및 출판사를 비방, 채택, 명목의 금품 제공, 부교재, 학습 자료 등의 무상 제공 약속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채택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택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어떠한 법적 규제도 없다.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학교장과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용도서 선정위원회를 두고 학교별로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채택 과정에서 출판사의 로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up>96)</sup>

---

가. 교과용도서의 견본은 일정한 제한 부수 범위 내에서 교육위원회나 교과용도서전시회에 송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교사용 지도서 및 검정 신청 도서의 송부 등은 일절 금한다.

나. 발행자가 주최하거나 관여하는 교과용도서와 관련한 강습회, 연구회 등을 일체 금지한다.

다. 교과용도서 각 발행사가 작성하는 선전용 팸플릿 등의 배포를 제한하고, 문부과학성이 일괄적으로 교과용도서 편집 취지서를 작성, 배포한다.

라. 채택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가지는 교직 관계자 등의 선전 활동 참여를 금지하고, 교과용도서의 편집자나 저작자가 교과용도서의 채택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교과용도서 업계의 자숙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과용도서 업체 자체적으로도 공정한 채택과 관련한 여러 규제들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교과용도서 발행자, 공급업자 등이 참여하는 교과용도서 공정거래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다. 교과용도서 공정거래협의회에서는 공정 거래한 관련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 지정’ 등에 준거한 ‘교과용도서 공정거래 실시 세칙’을 정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인 교과서협회도 교과용도서의 선전자속에 관한 합의를 통해 선전 활동의 자숙을 기하고 있다.

96) 한겨레신문. ‘교과용도서 채택 로비 혼탁’. 2000년 10월 12일

## V.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검정 및 채택 제도의 개선 방향

### 1.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용도서의 적용<sup>97)</sup>

#### 가.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 2009년 교육과정 개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 방향은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 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였다.

-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축소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창의적 체험 활동 도입을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육성한다.
- 고교 교과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의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
-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를 유도한다.

공통 사항으로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년군, 교과군제를 도입하고 집중 이수를 유도하여 학기당 배우는 과목 수 10~13 과목을 7~8과목으로 축소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

97)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6월 20일에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래 4회에 걸친 구분 고시 등을 통하여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용도서 적용과 관련하여 전향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17일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 특별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운영하여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을 강화한다.
-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여 교과군별 기준 시수의 20% 증감 운영이 가능하고, 교과군 내 교과별 시수는 단위 학교가 결정한다.
- 학습 부진아, 다문화 가정 자녀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한다.

초등학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 1~2학년 초기 단계에 국어 사용 능력 및 수리 능력 미흡 학생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기본 교육을 강화한다.
-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저학년 ‘돌봄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중학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집중 이수를 통한 학기당 이수 과목을 8개 이하로 편성한다.
- 선택 과목으로 ‘진로와 직업’을 신설하고,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 교육을 강화한다.

고등학교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 이수 단위를 204 단위로 축소하고, 고교 전 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 고교 단계 핵심 기초 과목(국어, 수학, 영어) 이수는 더욱 강화되고,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의 과목 편성권을 64 단위까지 대폭 확대하며, 대학 과목 선이수제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 교과목을 개선하여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회 등 교과는 통합하며, 학생 수준에 맞춰 ‘하고 싶은 공부’를 더 깊게,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내용상 위계가 있는 국어, 과학 등 교과는 수준별 교과로 재구조화한다.
- 전문 교육의 강화를 위해 외국어 계열의 경우, 전문 교과 중 전공 외국어

이수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에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2012년에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과 고등학교 2학년, 2013년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3학년 순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계적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수정, 보완 또는 편찬이 추진될 예정이다.

## 나. 교과용도서의 주요 적용

### (1) 심의 없는 인정도서의 확대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를 국·검·인정 어떤 것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고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교육과정 개정 고시 이후 4번에 걸쳐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하였다.

2007년 6월 22일 구분 고시를 제외하고, 이후 3번의 구분 고시는 인정도서와 관련한 고시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구분 고시를 통하여 검정도서인 교과목의 지도서를 인정도서로 전환하고, 전문 교과 중 전산 회계와 과학 과제 연구를 국정도서에서 인정도서로 전환하였다(2007. 8. 7. 구분 고시).

이후 구분 고시를 통하여 시·도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받는 국어, 도덕, 사회, 역사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의 교사용 지도서를 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육청의 심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 이외에도, 사용 학기 3개월 전까지 인정 신청을 하면 되므로 교과서 채택 이후에도 교과용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CD 등 보조 자료를 함께 개발하도록 하였다(2008. 8. 28. 구분 고시).

또, 일부 전문 교과 국정도서를 심의 없는 인정도서로 추가, 전환한 바, 즉 과학 및 예술 계열의 전문 교과 국정도서를 심의 없는 도서로 전환하였다

(2009. 1. 21. 구분 고시)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정신에 따라, 창의적 인재 육성, 학생의 핵심 역량 강화,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다양화 등이 강조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인정도서, 특히 심의 없는 인정도서의 확대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2) 교과용도서의 가격 및 유통 개선

교과용도서의 가격 제도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과용도서의 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제도로, 1950년부터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과용도서 가격 제도는 적정 가격화로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 안정 등에 기여한 바 크지만, 발행사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키거나 전문화를 저해한 일면이 없지 않았다.

시장 변화와 자율 경쟁 체제를 통한 교과용도서 전문 출판사의 육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2월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발행사가 검정도서의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자율화’를 도입하였고, 1982년부터 한국검정교과서협회가 주관하여 오던 공동 인쇄, 발행, 공급 제도를 해제하였다. 교과용도서의 가격 자율화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고시에 고등학교 선택 과목의 경우부터 적용받게 된다.

교과용도서의 공동 인쇄·발행·공급 제도는 새로 편찬이 고시되는 교과용도서 편찬 시부터 적용되며, 2012년 3월에 적용되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 교과용도서부터 적용된다.

한편, 현재 고등학교용 교과용도서의 공급 제도는 국정과 검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편이 상존하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동 생산 및 수익금 균등 분배와 같은 담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 참고서나 문제집의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교과서 모형 개발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3) 검토할 교과용도서 정책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인정도서로 전환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따라 선택하는 교과목의 교과용도서는 국정 또는 검정도서보다는 인정도서로 개발되는 것이 좋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고교 선택 과목 중 전문 교과의 경우, 수요가 적은 교과용도서는 현장 교원 참여 개발 방안을, 수요가 있는 교과용도서는 인정도서로의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교과용도서를 검정으로 전환한데 이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검·인정도서 개발을 확대할 것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 통합 교과용도서는 국정 → 검정 → 인정 제도로 점진적 자율화가 필요하다<sup>98)</sup>”는 학계의 건의도 있다.

아울러 교과용도서 자유 발행 제도의 도입, 교과용도서 전자 교과용도서 제도 등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필요하다.

## 2.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방향

제6차 교육과정기까지 교육과정의 개정은 교육과정 전체를 동시에 개정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필요한 부분과 교과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교과용도서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어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2011~2013년間に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교과용도서의 개편과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이 요청된다. 특히, 2011년 적용 교과용도서의 편찬은 일정상 편찬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

98)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건의문(2009. 9. 30)

## 가.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 추진

2007년 6월 20일에 발표한 ‘양질의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의 목표는, 첫째 사회 변화와 학문 발전을 반영하는 교과용도서 개발, 둘째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 질이 향상되는 교과용도서 개발, 셋째 학생의 흥미와 수준, 진로, 탐색을 중시하는 교과용도서 개발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개발, 보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더욱 전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나. 검·인정도서의 확대

### (1)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 확대

제도 개선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국정도서의 검정 확대를 들 수 있다. 이미 초등학교 5, 6학년의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되었으며, 중등학교의 국민공통 기본 교과인 국어, 도덕, 역사(중학교 1~고등학교 1) 또한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또, 선택 과목 중에서 검정 출원이 가능한 과목인 중학교의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및 고등학교 아랍어를 제외한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 중에서 기계제도, 정보 기술 기초, 기업과 경영 등이 검정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국정도서의 검정 전환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회의 변화 및 학문의 발전을 반영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현행 검정 제도는 앞서 설문 조사에서 보인 바와 같이 대체로 환영을 받고 있으나, 수정해야 할 사항도 많다.

## (2) 인정도서의 확대

인정도서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검정도서에 상응하는 심의 기준, 채택 기준, 사후 수정·보완 체제 등을 마련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하는 등 인정도서의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인정도서와 관련된 체계적인 질 관리 방안 및 전담 인력 배치 권고를 통해 인정도서의 질 제고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정도서 보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3차에 걸친 구분 고시를 통해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도 확대하였다. 이는 전문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목에는 ‘인정도서심의 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 사용을 확대하고, 자율 학교에서는 국민공통 기본 교과 목 이외에는 ‘인정도서 심의회 심의 없는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 여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정도서 제도의 확대와 유연한 운영은 계속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다. 교과용도서 질 관리 강화

그 동안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 및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교과서정보서비스 (<http://cutis.moe.go.kr>)를 활성화하고, 출판사 자체의 ‘교과용도서 오류 접수 센터(가칭)’의 설치를 권고하며, 집필자와 출판사에게 오류 등에 대한 공동 책임 부과, 교과용도서에 교과용도서 오류 신고 센터 누리집 및 전화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교과용도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또, 출판사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수정을 요구하여 차년도 발행 도서에 반영하고, 사회 변화와 학문 발전에 따른 교과용도서 수정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과용도서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 정도서는 개발 단계에서, 검정도서는 검정 단계에서 전문 기관의 자문을 필하 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과용도서에 대한 표현·표기의 오류 검증 및 교과용도서 의 편향성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는 첫째, 질 높은 교과용도서 보급으로 학생의 창의성,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제고 지원, 둘째, 복수의 검정 기회 및 발행사와 저자의 책임 있는 수정·보완을 통해 교과용도서의 질 개선 촉진, 셋째, 검정 기준과 규제 완화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용도서 개발, 넷째, 검정 절차를 개선하여 교과용도서 검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다섯째, 규제 완화를 통한 교과용도서 출판사와 출판 시장 관행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대책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설문 조사에서도 교사와 발행 종사자 56% 이상이 현행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교과용도서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더불어 교과용도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질 높은 교과용도서의 보급과 사용이다. 즉,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는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표 달성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용도서 편찬에 있으며, 그 기본 방향은 학생의 학습 능력과 창의력 신장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개발이다. 또 이를 구체화하면, 첫째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교과용도서, 둘째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 체제에 적합한 교과용도서, 셋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용도서 개발이다.

앞서 설문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들은 좋은 교과용도서로서 교육과정 반영의 충실도를 1위로 들고 있다.

우수한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해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교과용도서를 편찬, 발행하는 관계자들의 높은 책무성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참여 또한 매우 중요하다. 또, 우선적으로는 정부와 교과용도서 개발자 간의 협력도 필요하다. 즉, 국가는 개발자들을 신뢰하고, 개발자들은 높은 책무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정부의 요구에 부응할 때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3. 검정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 방향

#### 가. 검정 방식의 개선

검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 개정 없이도 검정할 수 있는 매년 상시 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사회의 변화와 학문의 발전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에 대해 교과용도서 검정 주기와 관계없이 연중 정해진 시기에 검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교과용도서 사용 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하고, 그 사용 연한이 경과되면 검정을 실시하는 주기적 검정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검정 출원 매체를 다양화하였다. 디지털 교과용도서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검정 기준을 개발·보완 고시하고 디지털 교과용도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관련 연구를 거쳐, ‘디지털 교과용도서 도입·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교과용도서와 지도서 등 검정 출원 매체를 다양화함으로써 교과용도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교과용도서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셋째, 검정 기준 및 판정 원칙을 재조정하였다. 이는 다양한 교과용도서 출현을 촉진, 지원하도록 검정 기준과 편찬상의 유의점을 개선하고, A/B/C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함으로써 세부 심사 관점에 따른 기계적 적부 판정이 아닌 전체적인 접근으로 질 높고 창의성이 높은 검정도서 출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 나. 현행 검정 제도의 개선

현행 검정도서 제도 운용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부분적인 사안들에 대한 개선책을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교과용도서의 현장

수급자에 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가 검정 교과용도서의 합격 종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교과용도서의 질 저하 방지,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출판사의 과당 경쟁 방지를 들고 있다. 또 합격 종수는 초등의 경우 5권 전후, 중등의 경우는 8권 내외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한이 필요한 교과용도서로는 초등의 경우 영어, 음악, 미술에, 중등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교과용도서 전문 출판사를 육성해야 한다. 앞선 조사에 따르면, 디자인 편집, 인쇄 등이 교과용도서 채택에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문적인 집필진과 편집진이 상시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 출원 당시에 일시적으로 모여 작업을 하고 흩어지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은 매해 교과용도서를 수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 교과용도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교과용도서 집필자 중심의 제작 방식이 아닌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 회사 중심의 개발 방식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교과용도서를 출원하는 출판사가 상시 개발 체제를 갖추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수한 교과용도서 편집자를 양성하고, 교과용도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검정 기준을 정선, 명료화한다. 검정 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거나 체크리스트화할 경우 일정 규범 안에 강제되거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심사에 머무를 수 있으므로, 심사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과 반드시 배제해야 할 사항만을 정선하여 합격 여부에 반영하고, 여타의 특성과 장점은 순위에 반영함이 좋을 것이다.

넷째, 검정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교과용도서 검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의 과정은 검정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게는 많은 행정 부담을 주고 있으며, 교과용도서 출원 출판사에게는 많은 심사비용을 감당하게 하는 면도 있다.

다섯째, 교과용도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검정을 하는 제도를 보완하여 동일 교육과정 아래에서도 일정 주기가 되면 교과용도서를 보완, 수정할 수 있는 수시 검정 심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

과정이 개정된 이후 교과용도서를 일괄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정·보완·개선된 교과용도서를 검정 심사하여 판수를 거듭함으로써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체제로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를 바꾸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검정과 공급 수수료를 적정화한다. 검정 교과용도서의 가격이 일부 자율화될 전망이지만, 검정 교과용도서 연구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재 교과용도서당 책정된 연구비는 120만 원으로, 교과용도서 발행사들에게 연구 의욕을 자극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책당 최소 한 명의 전문 연구 인력이 교과용도서의 개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비가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용도서 가격 결정에 있어서 기존에 반영되고 있는 항목 이외에 본문 디자인비, 실사료, 편집 인건비, 일반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정 심사 과정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을 검정 출원자에게 전가하여 출판사의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한국검정교과서(협회)가 건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검정의 일반 행정에 필요한 경비만 수수료로 청구하고 검정 심사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공급 수수료의 인상 요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 적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직접 분배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학생 개별 분배를 원하는 경우는 상당한 보관 장소와 시간, 인력이 소요되어 공급 수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4.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의 개선 방향

교과용도서의 채택이란,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교과용도서 채택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번 정한 교과용도서는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정도서의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으나, 검정도서의 경우 합격본이 교과용도서별로 다수이므로 어떠한 교과용도서를 채택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가. 교과용도서 채택의 공정성 확보

교과용도서 채택은 각 학교별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세 가지 단계의 채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첫째, 동일 교과에 전 교사가 참여하는 교과협의회에서 3종을 선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되고,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추천된 교과용도서를 심의하여 순위를 정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교장이 선정할 교과용도서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러한 채택 과정에서 교과협의회는 추천 교과용도서의 우선순위는 부여하지 않고, 3종의 교과용도서를 선정하게 된다. 학교에서 당해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당해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협의하여 추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추천된 교과용도서의 체제, 삽화 및 사진의 내용, 배역, 선명도, 활자, 지질, 제책, 학생 사용의 편의성 등을 심의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 교사의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 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다.<sup>99)</sup>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비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 합격한 검정도서 선정 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청별 또는 학교별로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발행사의 연수회, 설명회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감, 교육장은 검정도서 선정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배포하며, 단위 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채택 권유 행위가 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sup>100)</sup>

99) '2종(검정) 교과용도서 채택 부조리 예방 대책'(서울특별시교육청, 2000. 10. 13.). 「좋은 교과용도서 채택은 좋은 수업의 출발점입니다.」. 전국교과모임연합. pp.10~11.

100) 일본은 교과용도서의 채택과 관련하여 교과용도서 발행자의 선전 활동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한국검정교과서(협회)는 각 출판사의 도서 선정을 위한 참고 자료가 과장된 표현이나 상대 도서, 저작자 및 출판사를 비방, 채택, 명목의 금품 제공, 부교재, 학습 자료 등의 무상 제공 약속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자율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채택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택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어떠한 법적 규제도 없다.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 학교장과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용도서선정위원회를 두고 학교별로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채택 과정에서 출판사의 로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sup>101)</sup>

공정성 확보는 근원적으로 심사 참여 교사의 전문성과 양심의 문제이지만, 심

---

첫째, 발행자가 적정한 범위의 선전 활동을 하도록 독점금지법에 의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독점금지법’ 상에 근거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교과 사업에 있어서의 특정한 불공정 거래 방법’에 의해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 타 발행자에 대한 중상이나 비방에 대한 금지를 명하고 있다.

둘째, 문부과학성은 규제 조항을 바탕으로 공정한 채택 과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발행자뿐만 아니라 채택권자에게도 시책을 통하여 지도 활동을 펴고 있다.

가. 교과용도서의 견본은 일정한 제한 부수 범위 내에서 교육위원회나 교과용도서전시회에 송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교사용 지도서 및 검정 신청 도서의 송부 등은 일절 금한다.

나. 발행자가 주최하거나 관여하는 교과용도서와 관련한 강습회, 연구회 등을 일체 금지한다.

다. 교과용도서 각 발행사가 작성하는 선전용 팸플릿 등의 배포를 제한하고, 문부과학성이 일괄적으로 교과용도서 편집 취지서를 작성, 배포한다.

라. 채택 관계자에게 영향력을 가지는 교직 관계자 등의 선전 활동 참여를 금지하고, 교과용도서의 편집자나 저작자가 교과용도서의 채택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교과용도서 업계의 자숙조치를 취하고 있다. 교과용도서 업체 자체적으로도 공정한 채택과 관련한 여러 규제들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교과용도서 발행자, 공급업자 등이 참여하는 교과용도서 공정거래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다. 교과용도서 공정거래협의회에서는 공정 거래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 지정’ 등에 준거한 ‘교과용도서 공정 거래 실시 세칙’을 정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인 교과서협회도 교과용도서의 선전자속에 관한 합의를 통해 선전 활동의 자숙을 기하고 있다.

101) 한겨레신문. ‘교과용도서 채택 로비 혼탁’. 2000년 10월 12일

사 환경의 개선과 감시의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의 개선

우리나라는 교과용도서 채택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력하고 있다. 각 교과별 선정 협의회를 거쳐 3배수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교과별로 한 권의 교과용도서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하고 학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교과용도서가 선정된다. 이는 일본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102)</sup>

개선안을 구안하기에 앞서 몇 가지의 전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용도서 검정을 보다 엄격히 시행하여 합격 중수를 축소한다. 불필요한 낭비나 질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택 심사의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과용도서 채택에 있어서는 여러 교과용도서 견본을 살펴보면서 각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비교·검토한 후 신중하게 교과용도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102) 일본의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는 채택 권한이 행정 구역 교육위원회에 있다. 교육위원회는 적절한 교과용도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과용도서 센터를 운영하여 항상 열람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으며, 도(都), 도(道), 부(府), 현(縣)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과용도서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교과마다 조사원을 위촉하여 조사 활동을 벌인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교과용도서 채택 제도 비교>

구분	대한민국	일본
교과용도서 선정의 주체	교과별 교사,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조	공립학교는 소관 교육위원회, 국립과 사립은 학교 교장
교과용도서 채택 결정의 효력 범위	당해 학교의 학년 및 교과	교과용도서 채택 지구 내 해당 학교의 학년 및 교과
교과용도서 사용 제도	국정은 학생 개인용으로 무상 지급, 검정도서는 개인 구입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문부과학성이 구입하여 개인 무상 지급

교과용도서 채택 기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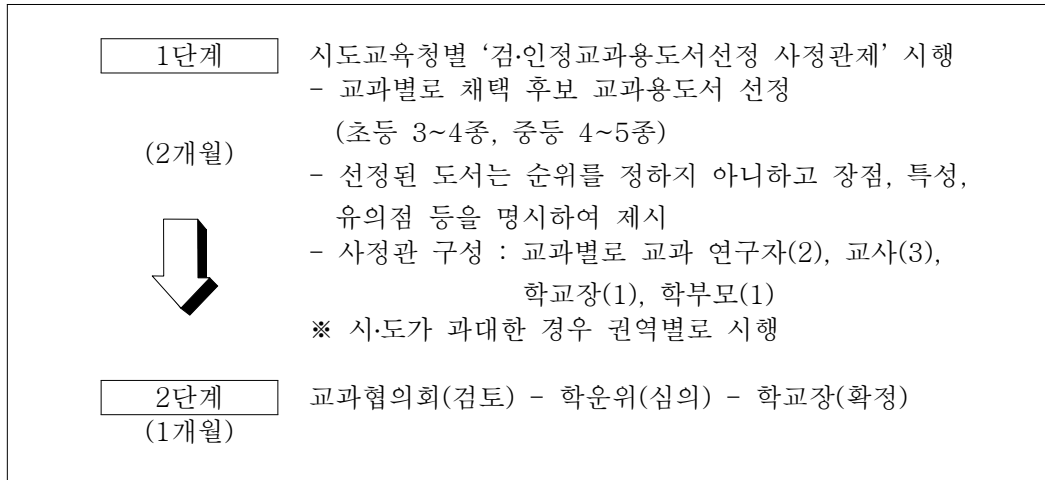
현재 검정을 통과한 교과용도서를 전시하고 채택하기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 정도(검토 기간은 15일 내외임.)로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개별 교사가 여러 책을 모두 비교, 검토하려면 기간이 상당히 짧다. 검정과 채택 심사에 미국은 6개월을 소요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검정에서 채택까지의 기간은 10개월로 짧지 않으나 그 기간의 대부분이 검정 심사에 소요되고 채택 심사는 1개월 정도, 그것도 채택 단위인 학교의 심사는 15일 남짓으로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검정 완료 시기를 조정하여 최소한 2개월은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과용도서 채택 과정에 학부모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등 민간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지만 학부모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가 없고, 결정권 또한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넷째, 교과용도서 채택과 선정을 개별 학교가 아닌 권역별로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별 학교에서 해당 과목 담당 교사들의 검토·의견을 모아 교과용도서를 채택하고 있다. 개별 학교보다 채택 단위를 광역화하고, 학생 수를 감안하여 권역별 채택 지구를 정하며, 다수의 공론에 따라 질 높은 교과용도서를 공동 채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검정 교과용도서가 증가함에 따른 채택 심사가 어렵고, 특히 교원의 잦은 이동은 교과별 교사 수가 소수인 학교에서 큰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데, 교사가 검정도서를 검토 추천하고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에 대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구안할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미래의 다음 사회는 ‘지식과 문화의 사회’로서, 물질 자원보다 인적 자원이 발전의 중심에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 같은 사회를 풍요롭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식, 창조 능력, 덕성과 감성을 길러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은 경직성과 획일성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의 매개체이자 교육의 핵심자료인 교과용도서는 교육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교과용도서의 제도와 운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시대적·사회적 환경에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줄곧 국정 교과용도서가 교과용도서에서 중핵적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었다. 그러던 것이 제7차 교육과정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그 중심이 검정 교과용도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규제를 풀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살려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용도서의 검정 제도의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 또한 꾸준히 있어 왔다. 이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더 높은 기대와 변화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이나 시스템을 확고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검정 제도와 운용에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교과용도서 검정 제도와 채택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주목하였으며, 아울러 관련된 교과용도서 제도의 전반을 고찰하면서 발전 방안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요국의 교과용도서 제도와 채택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며, 설문과 면접을 통해 교육 현장 교사와 발행 종사자, 정책 운용 전문가 등의 의견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제도와 운용의 전반을 개관

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교과용도서, 특히 검정 교과용도서의 제도와 채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을 구안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과용도서 제도를 더욱 유연하고 다양성 있게 계속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주요국의 교과용도서 제도의 경향과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용도서 정책에 대한 교육 현장의 교사와 발행 종사자의 긍정적 반응, 그리고 2009년 개정 교육과정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1.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 교과용도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 국정도서는 검정도서로, 국·검정도서는 인정도서로의 전환을 점차 확대한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11년 적용 도서의 편찬에 대하여는 일정상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2. 인정 교과용도서의 규제 단계를 더욱 낮추어 심사 없는 인정도서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유 발행제 도입을 검토한다.
3. 검정 교과용도서의 가격 자율화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교과용도서 대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국·검정으로 이원화된 공급 제도와 공동 생산·공급의 비효율적인 담합 등에 대한 조속한 규제 해제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5. 참고서와 문제집에 대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 모형의 개발도 필요하다.

둘째, 검정 교과용도서의 검정 방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검정 심사 사례와 현장 교사 및 발행 종사자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평면적인 우리의 검정 방식은 보다 다각적 심층적 검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비교적 여유롭지 못한 일정 안에서도 공청회, 전시회 등을 거치면서 수업 패넌인 교사와 내용 검토 패넌인 연구자가 검정과 채택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검정 단계에 문부과학성의 조사 단계가 있다.

또, 교사와 발행 종사자가 설문 응답에서 현행의 검정 교과용도서의 발행 제도에 대하여 대체로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거의 과반수가 다소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을 볼 때, 검정 방안의 수정은 필요하다.

6. 검정 심사를 보다 다각적으로 시행하되 심의 위원에 각계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7. 심의의 전 단계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교과 전문직의 조사를 거치도록 한다. 이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제 개편과 편수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8. 검정 합격 종수를 축소한다. 교사와 발행 종사자들은 교과목별로 초등의 경우 5종 내외, 중등의 경우 8종 내외로 제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도서의 질적 저하 배제와 심도 있는 심사 등의 이유를 들고 있으며, 중등은 영어, 국어, 수학을, 초등은 영어, 음악, 미술 등의 종수 제한을 우선하여 희망하고 있다.
9. 편찬과 검정 일정을 합리적으로 편성한다. 현행 일정은 검정 일정에 비하여 편찬 기간과 채택 심사의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교과용도서 편찬과 채택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편찬과 검정 채택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검정 교과용도서의 채택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의 교과용도서 채택 결정 방식은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 과다로 채택 결정 업무 부담이 크며, 실제로 교사들은 설문 조사에서 검정 교과용도서 채택 환경이 좋지 않고 심도 있는 평가가 어려우며, 검정도서들이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나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심사해야 하는 책 수가 많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채택 심사는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단위 학교에서 채택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주 차원에서 4~10책을 선정하여(우리나라의 검정 심사에 해당) 지역 학교구별로 1~2책을 선정하여 학교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시정촌 또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서 채택 심사를 한다. 미국이

나 일본은 검정 교과용도서를 공개, 전시하여 채택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채택 심사와 회의에 학부모 대표와 학생 대표(독일)가 참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심사 부담을 분산하면서도 심도 있는 채택 심사 방안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10. 채택 단위를 광역화하며, 교육청별로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사정관제’를 도입하되, 시·도 교육청별 또는 수 개의 지역 교육청 연합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검정 합격 교과용도서 중에서 초등학교 3~4종, 중등학교 4~5종을 선정하여 단위 학교에 제시한다. 선정한 교과용도서는 순위를 정하지 않고 장점, 특색, 유의점 등 자료를 첨부한다. 사정관은 교과목별로 교사, 연구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11. 단위 학교 심사 과정은 현행 방법을 준용하되 학부모 참여를 제도화한다.

12. 채택 심사 일정을 조정하여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한다. 검정 심사에 비해 채택 심사 일정은 1개월 남짓으로 촉박하므로, 3개월 정도를 확보한다.

넷째, 교과용도서 전문 발행사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출판사들은 집필진과 편집진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 출원 당시에 일시적으로 모여 작업을 하고 흩어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질 높은 교과용도서는, 시설과 인력은 물론 경험과 전통의 축적 위에서 편찬, 발행될 수 있다.

현장 교사와 발행 종사자들이 채택 심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교육과정 반영의 충실도 외에도 참신한 구성과 편집 등도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고 있음을 볼 때, 교과용도서 전문 발행사의 육성이 필요하다.

13. 발행사의 검정 출원 요건을 강화하고, 출원 시 약속한 편집 인력 등을 존속 시키도록 제도화한다.

14. 검정 후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발행사의 추후 관리 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15. 검정과 공급 수수료를 적정화하며, 국정도서 발행권과 연계한 전문 발행사 육성 방안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주요국의 교과용도서 검정 및 채택 사례와 교과용도서 수급 현장의 교사와 발행 종사자의 의견, 현행 교과용도서 정책 등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실질적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그 가운데 검정 교과용도서의 종수 제한과 시도 교육청에 검정 교과용도서 선정 사정관제 도입 및 편찬과 채택의 충분한 기간 확보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 참고 문헌

- 곽병선 외, 교과서 발행제의 다양화에 따른 자유 발행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 교과서연구재단, 2004.
- 교과서연구센터, 1990년도 해외 교과서 사정 조사 보고서-영국, 독일, 프랑스, 1991.
-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백서, 2000.
- 권오현, 일본의 교과서 제도와 역사 교과서, 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 김광민, 교과서 제도와 교육과정의 이상, 초등교육연구, 2001.
- 김영삼, 중등 수준별,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실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과정 개편 방향 공청회 자료집, 2004.
- 김재복 외, 교육과정·교과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6.
- 김재춘, 김재현, 교과서 자유 발행제의 의미 탐색, 한국교육 31(2), 2004.
- 김정호, 교과용도서 검정 기능의 질적 향상 방안, 교과서연구 제40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3.
- 김진숙,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 비교, 비교교육연구, 한국비교교육학회, 1999.
- 김현숙, 미국의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와 그 문제점, 내일을 여는 역사, 내일을 여는 역사, 2009.
-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과서, 교육과정 정책 방안, 국정과제회의 보고 자료, 2004.
- 박도순 외, 교과서 심의·채택 제도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 박소영 외, 교과서 상시 개편 체제 수립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 박영철, EU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외국의 교과서 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 외국어 교과서 제도 및 교과서 상황, 교과서연구센터, 2000.
- 유학영 외, 국정도서 발행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3.
- 유학영 외, 교과용도서 피드백을 위한 모니터링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5.
- 이부련, 프랑스의 교과서 정책, 한국교육의 지역화에 관한 연구 제2차 세미나 발표 논문, 경상대학교, 2002. 12.
- 이용숙 외, 교과서 정책 및 내용 구성 방식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1995.
- 이춘식, 미국 텍사스 주의 교과용도서 제도, 교과서연구 44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5.
- 전효선, 프랑스 중학교의 시민 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 고려대학교, 2000.
- 정호범, 고영호, 외국 초등 사회과 교과서 구성 체제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11권,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04.
- 조난심 외, 초·중등학교 국정도서의 검정화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 진영, 한국과 일본의 교과용도서 제도 비교, 서강대학교, 2005.
-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교과서의 편찬·발행 등 교과서 변천에 관한 연구, 2004.
-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교육과정·교과서 연구, 2006.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정 교과서 검인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 2005. 6. 16.
- 한국교육학회, 바람직한 교과서 정책의 방향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 2005. 12. 22.
- 한명희, 교과서의 자유 발행보다 검정 확대를 서두를 때, 교과서연구 제35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0.
- 한정근, 미국의 교과서 제도, 교과서연구 제21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1995.

함수곤,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한교과서(주), 2000.

홍후조,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교육학회 교육과정분과 발표 자료, 2004.

홍후조 외, 교과서 인정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6.

*Bulletin Officiel de l'Education Nationle(B.O) (1998~2000)*, Paris.

Galley, M., *Middle School Science Texts: Full of Errors*, Review Finds, Education Week, 2001. 1.

Le Ministere de l'Education Nationale, *Le Systeme Educatif de la France*, Paris, CNDP, 1998.

Muther, C., *What every textbook evaluator should know*, Educational Leadership 42, 1985.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Overview and Inventory of State education Reforms: 1990 tp 2000. U.S. Department of Education*, 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NCES 2003-020.

*Sonderdruck fuer den Verband der Schulbuch e.V. Verlagsgruppe Jehle-Rehm*, 2001.

## 부록

### 1. 교사, 전문직, 연구자용 설문지

#### 검정 교과서(교과목별) 적정 종수와 교과서 채택에 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팀에서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요청을 받아 ‘주요국의 교과서 검정 경향 연구’를 수행하면서, 현행 우리 검정 교과서의 교과목별 종수와 교과서 채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이 문제에 관계되는 여러분의 고견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설문 결과는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의견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가 됨을 생각하시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8월 30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주요국의 교과서 검정 경향 연구팀

※ 다음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하가 해당하는 것은? (괄호에도 표시를 해 주세요.)

\_\_\_\_\_ ① 초등 : ( )교사, ( )교감, ( )교장

\_\_\_\_\_ ② 중등 : ( )교사, ( )교감, ( )교장

\_\_\_\_\_ ③ 교육 전문직(연구사, 장학사 등)

2. 귀하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 |               |                |            |
|---------------|----------------|------------|
| _____ ① 국어    | _____ ② 윤리     | _____ ③ 사회 |
| _____ ④ 수학    | _____ ⑤ 과학     | _____ ⑥ 영어 |
| _____ ⑦ 체육    | _____ ⑧ 음악     | _____ ⑨ 미술 |
| _____ ⑩ 제2외국어 | _____ ⑪ 전문 교과목 |            |

3. 귀하의 경력은?

- \_\_\_\_\_ ① 5년 이하  
\_\_\_\_\_ ② 6년 이상 ~ 10년 이하  
\_\_\_\_\_ ③ 11년 이상 ~ 20년 이하  
\_\_\_\_\_ ④ 21년 이상

4. 귀교의 학급 규모는?

- \_\_\_\_\_ ① 10학급 미만  
\_\_\_\_\_ ② 10학급 이상~30학급 미만  
\_\_\_\_\_ ③ 30학급 이상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등학교 전 교과목과 초등학교 영어(3~6년), 실과(5~6년), 예·체능(5~6년) 교과목이 검정제로 바뀌었습니다. 검정도서는 교과목에 따라 종수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학교 수준별 교과목인 수학1은 27종이 검정 심사에 합격하여 이미 발행되었고, 중학교 국어1은 23종이 합격하여 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검정 교과서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야할 충분한 단서가 됩니다. 다양한 교과서는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육 현장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많은 교과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해야 하는 어려움도 함께 상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 |                |            |             |
|----------------|------------|-------------|
| _____ ① 국어     | _____ ② 도덕 | _____ ③ 사회  |
| _____ ④ 수학     | _____ ⑤ 과학 | _____ ⑥ 기술/ |
| 가정             |            |             |
| _____ ⑦ 체육     | _____ ⑧ 음악 | _____ ⑨ 미술  |
| _____ ⑩ 영어     | _____ ⑪ 한문 | _____ ⑫ 제2외 |
| 국어             |            |             |
| _____ ⑬ 전문 교과목 |            |             |

6-3. 검정도서의 종수를 우선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과목 5개를  
선택하여 순위를 적어 주십시오.

<초등학교>

- |            |            |            |
|------------|------------|------------|
| _____ ① 실과 | _____ ② 체육 | _____ ③ 음악 |
| _____ ④ 미술 | _____ ⑤ 영어 |            |

<중·고등학교>

- |                |            |             |
|----------------|------------|-------------|
| _____ ① 국어     | _____ ② 도덕 | _____ ③ 사회  |
| _____ ④ 수학     | _____ ⑤ 과학 | _____ ⑥ 기술/ |
| 가정             |            |             |
| _____ ⑦ 체육     | _____ ⑧ 음악 | _____ ⑨ 미술  |
| _____ ⑩ 영어     | _____ ⑪ 한문 | _____ ⑫ 제2외 |
| 국어             |            |             |
| _____ ⑬ 전문 교과목 |            |             |

6-4. 교과목별로 검정 교과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몇 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목 앞의 빈칸에 종수를 적어 주십시오.

<초등학교>

\_\_\_\_\_ ① 실과                      \_\_\_\_\_ ② 체육                      \_\_\_\_\_ ③ 음악

\_\_\_\_\_ ④ 미술                      \_\_\_\_\_ ⑤ 영어

<중·고등학교>

\_\_\_\_\_ ① 국어                      \_\_\_\_\_ ② 도덕                      \_\_\_\_\_ ③ 사회

\_\_\_\_\_ ④ 수학                      \_\_\_\_\_ ⑤ 과학                      \_\_\_\_\_ ⑥ 기술/가정

\_\_\_\_\_ ⑦ 체육                      \_\_\_\_\_ ⑧ 음악                      \_\_\_\_\_ ⑨ 미술

\_\_\_\_\_ ⑩ 영어                      \_\_\_\_\_ ⑪ 한문                      \_\_\_\_\_ ⑫ 제2외국어

\_\_\_\_\_ ⑬ 전문 교과목

7. 현재까지 발행된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향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교과목과 관련된 분만 응답해 주세요.)

\_\_\_\_\_ ① 향상되었다

\_\_\_\_\_ ② 비슷하다

\_\_\_\_\_ ③ 퇴보되었다

\_\_\_\_\_ ④ 잘 모르겠다.

8.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검정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해당되는 교과목과 관련된 분만 응답해 주세요.)

\_\_\_\_\_ ① 채택하는데 필요한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다. (8-1로 가세요.)

\_\_\_\_\_ ②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지 못한 편이다. (8-2로 가세요.)

\_\_\_\_\_ ③ 잘 모르겠다.

8-1.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를 선택하여 순위를 적어 주세요)

\_\_\_\_\_ ① 교과서가 다양성을 지녀서

\_\_\_\_\_ ② 출판사의 과당 경쟁이 해소되어서

\_\_\_\_\_ ③ 두드러지게 좋은 교과서가 있어서

\_\_\_\_\_ ④ 그동안 기대하고 있던 교과서가 발행되어서

\_\_\_\_\_ ⑤ 기타 ( )

8-2. 이유는 무엇입니까?(3개를 선택하여 순위를 적어 주세요)

\_\_\_\_\_ ① 너무 많은 교과서의 종류로 인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워서

\_\_\_\_\_ ② 많은 출판사가 과당 경쟁을 하여서

\_\_\_\_\_ ③ 교과서마다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_\_\_\_\_ ④ 교사들의 검토 결과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어서

\_\_\_\_\_ ⑤ 기타 ( )

9. 교과서 채택 시 귀하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3개를 선택하여 순위를 적어 주세요)

\_\_\_\_\_ ① 출판사의 인지도

\_\_\_\_\_ ② 집필(저작)자의 명성

\_\_\_\_\_ ③ 교육과정 반영의 충실도

\_\_\_\_\_ ④ 교과서의 디자인과 편집 및 인쇄 상태

\_\_\_\_\_ ⑤ 참신한 구성 및 내용

\_\_\_\_\_ ⑥ 기타 ( )

10.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써 주십시오.

## 2. 검정교과서 발행사용 설문지

### 검정 교과서(교과목별) 적정 종수와 교과서 채택에 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팀에서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요청을 받아 ‘주요국의 교과서 검인정 경향 연구’를 수행하면서, 현행 우리 검정 교과서의 교과목별 종수와 교과서 채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이 문제에 관계되는 여러분의 고견을 조사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설문 결과는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의견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자료가 됨을 생각하여 정성껏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8월 30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주요국의 교과서 검인정 경향 연구팀

※ 다음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귀하의 주요 업무는?

\_\_\_\_\_ ① 경영

\_\_\_\_\_ ② 기획

\_\_\_\_\_ ③ 편집

\_\_\_\_\_ ④ 영업

2. 귀하가 담당하는 교과목은?(편집자가 아닌 경우는 가장 관심 있는 교과목을 체크)

- |               |                |            |
|---------------|----------------|------------|
| _____ ① 국어    | _____ ② 윤리     | _____ ③ 사회 |
| _____ ④ 수학    | _____ ⑤ 과학     | _____ ⑥ 영어 |
| _____ ⑦ 체육    | _____ ⑧ 음악     | _____ ⑨ 미술 |
| _____ ⑩ 제2외국어 | _____ ⑪ 전문 교과목 |            |

3. 귀하의 경력은?

- \_\_\_\_\_ ① 5년 이하  
 \_\_\_\_\_ ② 6년 이상 ~ 10년 이하  
 \_\_\_\_\_ ③ 11년 이상 ~ 20년 이하  
 \_\_\_\_\_ ④ 21년 이상

4. 귀사의 전문 편집인력은 몇 명입니까?

- \_\_\_\_\_ ① 50명 미만  
 \_\_\_\_\_ ② 50명 이상 ~ 100명 미만  
 \_\_\_\_\_ ③ 100명 이상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등학교 전 교과목과 초등학교 영어(3~6년), 실과(5~6년), 예·체능(5~6년) 교과목이 검정제로 바뀌었습니다. 검정도서는 교과목에 따라 종수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학교 수준별 교과목인 수학1은 27종이 검정 심사에 합격하여 이미 발행되었고, 중학교 국어1은 23종이 합격하여 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검정 교과서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야할 충분한 단서가 됩니다. 다양한 교과서는 교육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육 현장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많은 교과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해야 하는 어려움도 함께 상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 위와 같은 현행 검정 교과서 발행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_\_ ① 바람직하다  
\_\_\_\_\_ ② 바람직하지 못하다  
\_\_\_\_\_ ③ 다소 수정할 사항이 있다  
\_\_\_\_\_ ④ 잘 모르겠다

6. 교과목별 검정 교과서의 합격 종수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_\_\_\_\_ ① 제한해야 한다 (6-1~4번의 문항에 답해 주세요.)  
\_\_\_\_\_ ② 제한할 필요가 없다 (7번 문항으로 가세요.)

6-1. 검정 교과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① 내·외적인 질이 떨어지는 교과서 배제를 위해서  
\_\_\_\_\_ ② 채택 과정에서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_\_\_\_\_ ③ 출판업계의 과당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_\_\_\_\_ ④ 교과용도서 채택에 따른 부조리를 줄이기 위해서  
\_\_\_\_\_ ⑤ 기타 ( )

6-2. 검정 교과서의 종수를 제한해야 할 교과목이 있다면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초등학교>

- \_\_\_\_\_ ① 실과                      \_\_\_\_\_ ② 체육                      \_\_\_\_\_ ③ 음악  
\_\_\_\_\_ ④ 미술                      \_\_\_\_\_ ⑤ 영어

<중·고등학교>

- |                |            |               |
|----------------|------------|---------------|
| _____ ① 국어     | _____ ② 도덕 | _____ ③ 사회    |
| _____ ④ 수학     | _____ ⑤ 과학 | _____ ⑥ 기술/가정 |
| _____ ⑦ 체육     | _____ ⑧ 음악 | _____ ⑨ 미술    |
| _____ ⑩ 영어     | _____ ⑪ 한문 | _____ ⑫ 제2외국어 |
| _____ ⑬ 전문 교과목 |            |               |

6-3. 검정교과서의 종수를 우선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과목 5개(초등 및 중·고등학교 포함)를 선택하여 순위를 적어 주십시오.

<초등학교>

- |            |            |            |
|------------|------------|------------|
| _____ ① 실과 | _____ ② 체육 | _____ ③ 음악 |
| _____ ④ 미술 | _____ ⑤ 영어 |            |

<중·고등학교>

- |                |            |               |
|----------------|------------|---------------|
| _____ ① 국어     | _____ ② 도덕 | _____ ③ 사회    |
| _____ ④ 수학     | _____ ⑤ 과학 | _____ ⑥ 기술/가정 |
| _____ ⑦ 체육     | _____ ⑧ 음악 | _____ ⑨ 미술    |
| _____ ⑩ 영어     | _____ ⑪ 한문 | _____ ⑫ 제2외국어 |
| _____ ⑬ 전문 교과목 |            |               |

6-4. 교과목별로 검정 교과서의 종수를 제한한다면 몇 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과목 앞의 빈칸에 종수를 적어 주십시오.

<초등학교>

- |            |            |            |
|------------|------------|------------|
| _____ ① 실과 | _____ ② 체육 | _____ ③ 음악 |
| _____ ④ 미술 | _____ ⑤ 영어 |            |

<중·고등학교>

- |                |            |               |
|----------------|------------|---------------|
| _____ ① 국어     | _____ ② 도덕 | _____ ③ 사회    |
| _____ ④ 수학     | _____ ⑤ 과학 | _____ ⑥ 기술/가정 |
| _____ ⑦ 체육     | _____ ⑧ 음악 | _____ ⑨ 미술    |
| _____ ⑩ 영어     | _____ ⑪ 한문 | _____ ⑫ 제2외국어 |
| _____ ⑬ 전문 교과목 |            |               |

7. 현재까지 발행된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향상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향상되었다  
\_\_\_\_\_ ② 비슷하다  
\_\_\_\_\_ ③ 퇴보되었다  
\_\_\_\_\_ ④ 잘 모르겠다.

8. 제7차 교육과정과 제7차 개정 교육과정 검정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_\_\_\_\_ ①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은 편이다. (8-1로 가세요.)  
\_\_\_\_\_ ② 채택하는데 제반 환경이 좋지 않은 편이다. (8-2로 가세요.)  
\_\_\_\_\_ ③ 잘 모르겠다.

8-1.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를 선택하여 순위를 적어 주세요)

- \_\_\_\_\_ ① 교과서가 다양성을 지녀서  
\_\_\_\_\_ ② 출판사의 과당 경쟁이 해소되어서  
\_\_\_\_\_ ③ 두드러지게 좋은 교과서가 있어서  
\_\_\_\_\_ ④ 그동안 기대하고 있던 교과서가 발행되어서  
\_\_\_\_\_ ⑤ 기타 ( )

8-2. 이유는 무엇입니까?(3개를 선택하여 순위를 적어 주세요)

- \_\_\_\_\_ ① 너무 많은 교과서의 종류로 인해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워서
- \_\_\_\_\_ ② 많은 출판사가 과당 경쟁을 하여서
- \_\_\_\_\_ ③ 교과서마다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 \_\_\_\_\_ ④ 교사들의 검토 결과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어서
- \_\_\_\_\_ ⑤ 기타 ( )

9. 귀하는 학교현장에서 교과서 채택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3개를 선택하여 순위를 적어 주세요)

- \_\_\_\_\_ ① 출판사의 인지도
- \_\_\_\_\_ ② 집필(저작)자의 명성
- \_\_\_\_\_ ③ 교육과정 반영의 충실도
- \_\_\_\_\_ ④ 교과서의 디자인과 편집 및 인쇄 상태
- \_\_\_\_\_ ⑤ 참신한 구성 및 내용
- \_\_\_\_\_ ⑥ 기타 ( )

10.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써 주십시오.